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2023년

한국의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2023. 9. 14.(목) ~15.(금)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2023년

한국의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2023. 9. 14.(목) ~7.(금)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목차

I . 2023년 한국의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개요	03
II . 연속유산 측면에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08
III .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28
IV .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람성향 및 관광해설 방향성 제언	44
V .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형식과 절차	94

2023년 한국의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개요

2023년 한국의 서원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은 한국의 서원이 소재한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세계유산 및 한국의 서원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해설의 전문성 함양 및 업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의 서원 소재 지역에는 약 30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재단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의 서원 소재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세계유산 및 한국의 서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가치를 공유하여 유산의 해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본 교육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세계유산 및 한국의 서원 관련 강의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연속유산의 측면에서 바라본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 서원의 가치: 유교문화와 전인교육의 과제와 연속유산으로서의 ‘한국의 서원’
- 서원 관광: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에 따른 관광 성향 분석 및 해설의 방향성 제언
- 서원의 제향: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형식과 절차

교육 일정표

시간		내용	진행
1일차	13:30 ~ 14:00	등록	김종석PM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14:00 ~ 14:10	개회	
	14:10 ~ 14:50	[교육 및 질의응답]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박성진 센터장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14:50 ~ 15:00	휴식	
	15:00 ~ 15:40	[교육 및 질의응답] 연속유산 측면에서 바라본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신동욱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15:40 ~ 15:50	휴식	
	15:50 ~ 16:30	[교육 및 질의응답]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에 따른 관광 성향 분석 및 해설 방향성 제언	신종일PM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16:30 ~ 16:40	휴식	
	16:40 ~ 17:20	[교육 및 질의응답]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형식과 절차	이동구 (안동 도산서원 前 별유사)
	17:20 ~ 17:50	질의응답 및 설문	
	17:50 ~ 18:00	방배정	
	18:00 ~ 19:00	석식	
2일차	07:00 ~ 08:50	조식 및 휴식	
	08:50 ~ 09:00	이동 (숙소 → 창덕궁)	
	09:00 ~ 10:00	세계유산 창덕궁 답사	김태휘 해설사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10:10 ~ 10:20	이동 (창덕궁 → 종묘)	
	10:20 ~ 11:30	세계유산 종묘 답사	
	11:30 ~ 12:30	중식 및 폐회	



II. 연속유산 측면에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연속유산 측면에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

신동욱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I . 연속유산의 이해

- 세계유산의 종류는 ICOMOS 평가서의 유산 카테고리(Category of Property)구분에 따라 단일유적(a site), 유적 및 문화경과(asite and landscape), 건물군(a group of building), 그리고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로 구분한다.
- 연속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당사국 사이의 협동과 협력 증진" 을 이상적으로 실현하는데 부합하며(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2010.9) 그 실현방안으로서 연속유산 등재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2000년대 후반 세계유산센터 및 ICOMOS,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있다.
- 이에 2011년 세계유산총회에서 세계유산 운영지침 중 연속유산과 관련된 137조 및 부록 2B가 개정 보완되었고, 이에 연속유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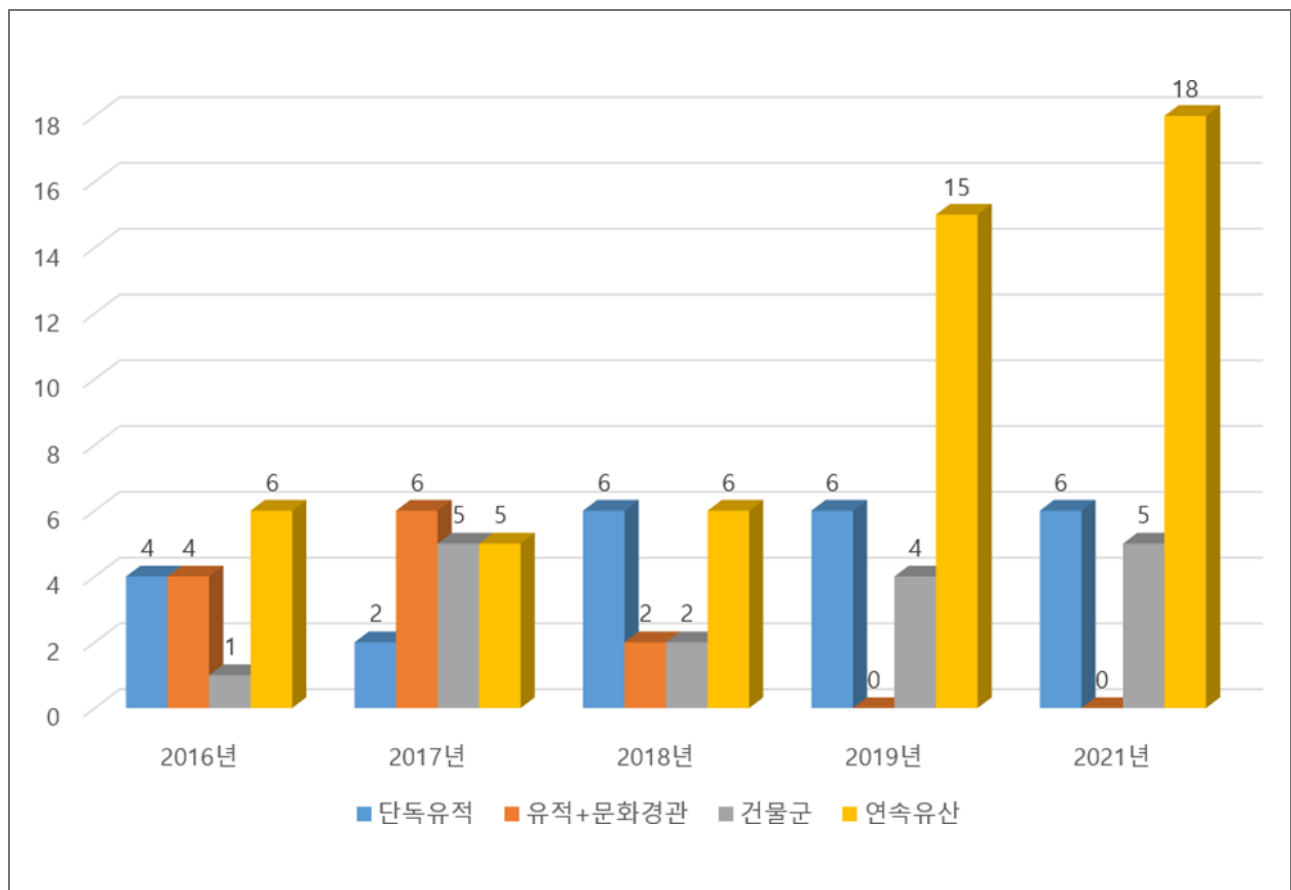
연속유산

- 연속유산은 단일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혹은 별개의 일련의 유산요소
- 연속유산에는 명확하게 연계된 둘이상의 유산요소 부분이 포함
- 각 유산요소들은 거리가 가까울 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나 모든 요소들은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개별유산에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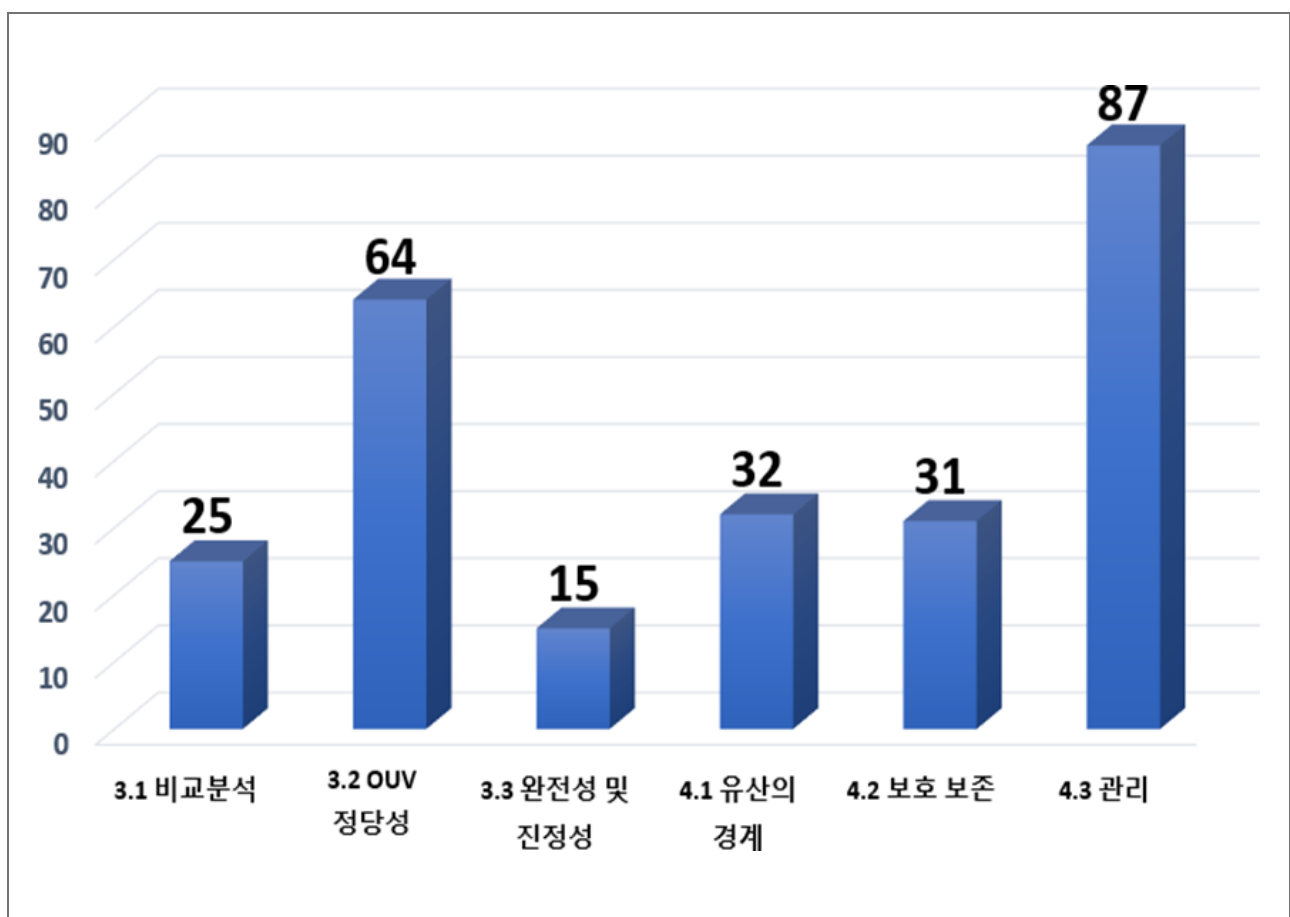
연속유산 등재현황

- 최근 5년간 연속유산의 등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속유산은 전체 등재된 세계유산의 약 50%를 차지한다.
- 특히 지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경우, 전체 등재 유산의 62%가 연속유산이었다.
- 연속유산의 OUV 충족조건은 (ii), (iii), (iv) 가 전체의 77%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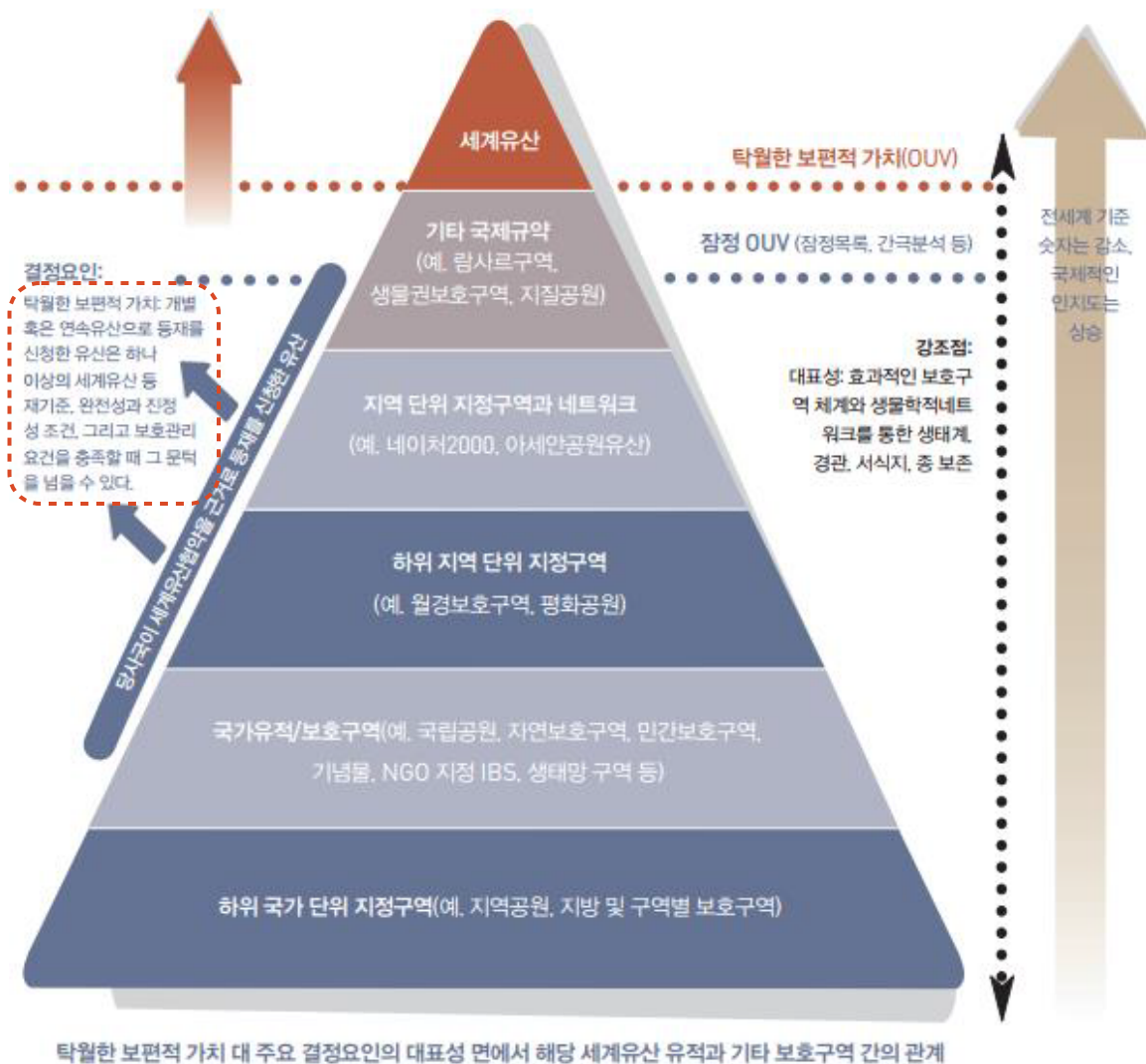
구분	단독유적	유적 및 문화경관	건물군	연속유산	합계
2016년	4 (27%)	4 (27%)	1 (6%)	6 (40%)	15
2017년	2 (11%)	6 (33%)	5 (28%)	5 (28%)	18
2018년	6 (37%)	2 (13%)	2 (13%)	6 (37%)	16
2019년	6 (24%)	0 (0%)	4 (16%)	15 (60%)	25
2021년	6 (21%)	0 (0%)	5 (17%)	18 (62%)	29
합계	24 (23%)	12 (12%)	17 (16%)	50 (49%)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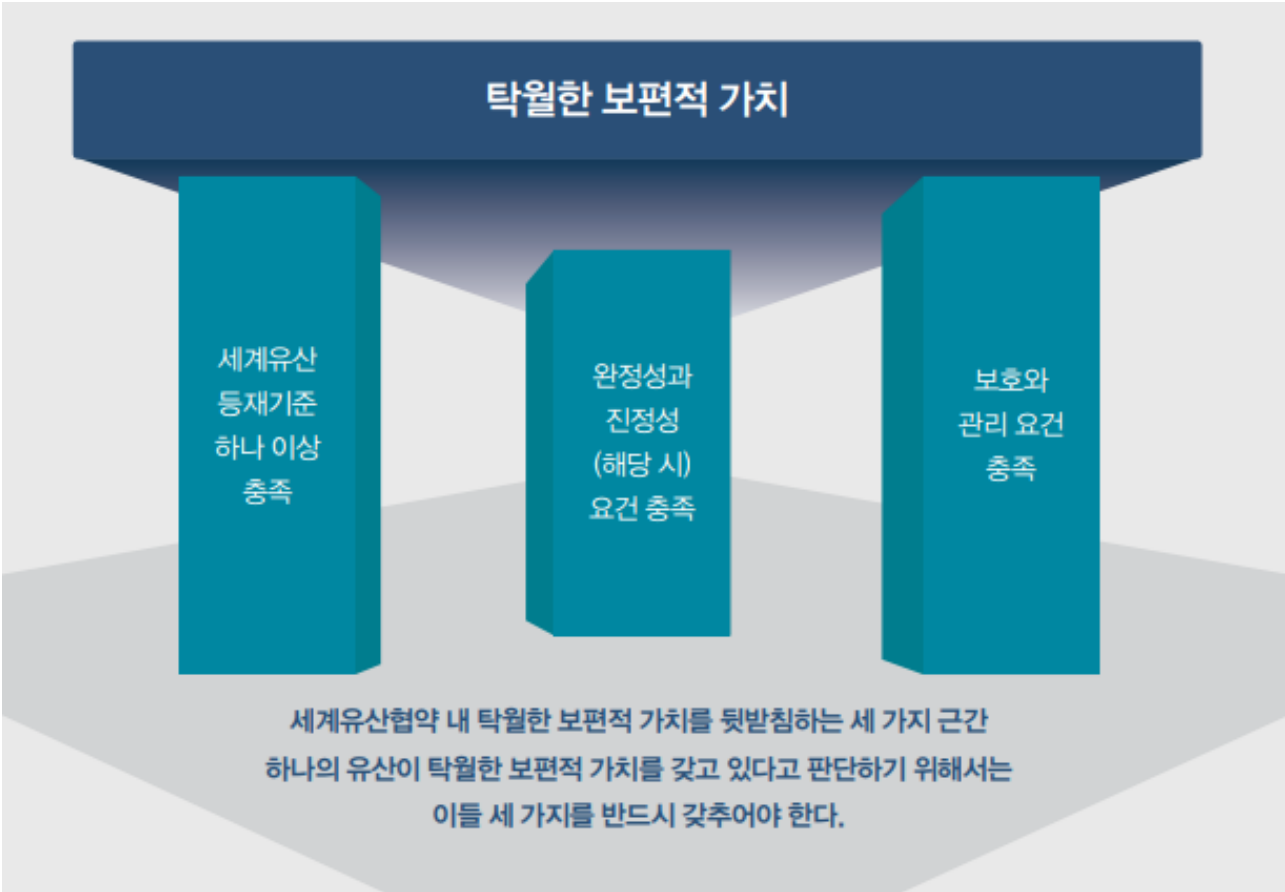
- 연속유산의 OUV 정당성과 관련한 자문기구의 주요 요청내용은 유산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대한 보충 및 연속유산의 선정이유, 개별유적이 전체에 기여하는 합리적 근거에 대한 추가요청이 다수를 차지한다.
- 관리에 대해서는, 연속유산의 경우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강하게 요구된다.
- 비교분석의 경우, 연속유산과 관련된 비교분석을 보충하는 요구 및 세부 구성요소의 선택과 관련된 요청사항이 다수를 차지한다.
- 완전성 및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복원 및 보존에 대한 추가정보 요청과 더불어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보충하는 요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 최근 세계유산 등재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연속유산 등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에 자문기구의 등재평가 과정에서 연속유산과 관련된 보다 많은 추가정보제공이 요청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등재신청서 3장과 관련하여 OUV정당성, 비교분석, 그리고 완전성 및 진정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연속유산의 등재의 경우, 아래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이며, 이는 등재 이후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 통합보존관리시스템 마련
 - 유산 경계 설정 시,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른 지리·문화권의 설정
 - 개별 구성요소가 전체 연속유산의 OUV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



[Magin, C. and Chape, S. 2004. Review of the World Heritage Network: Biogeography, Habitats and Biodiversity. IUCN/UNEP-WCMC.]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연속유산은 다른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 진정성과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 보호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 및 관리체계: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유산요소를 조화롭게 관리
유산에 대한 위협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
특히 세계유산협약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과 보고 준비

연속유산이나 월경유산, 국가간 유산의 관리체계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세계유산으로서 그관리의 응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유산요소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변화에 대응해야한다.

II. 세계유산 제도와 연속유산

세계유산 운영지침과 연속유산

- 세계유산 운영지침 114조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 세계유산 운영지침 137조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이상의 관련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a) 구성요소는 관련이 있는 경우 경관과 생태, 진화론적 또는 서식지의 연결성을 제공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 사회 또는 기능적 연계를 반영해야 한다.
 - b) 각 구성요소는 충실하며 과학적이고 명확히 정의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전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무형적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도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이해와 소통이 쉬워야 한다.
 - c) 신청유산이 일관되고, 구성요소들이 과도하게 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구성요소의 선정 등 유산 신청과정에서 유산의 전반적인 관리 측면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단, 해당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개별 요소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닌 - 연속된 유산이다.
- 세계유산 운영지침 138조
연속유산은 다음의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
 - a) 단일 당사국의 영토(국가 연속유산), 또는
 - b) 여러 당사국의 영토,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국경이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으며 관련 당사국 모두의 동의 하에 신청하면 된다(국가간 연속유산).
- 세계유산 운영지침 139조
연속유산 신청서는 단일 당사국이든 복수 당사국이든 상관없이 여러 신청주기에 걸쳐 제출해 평가받을 수 있다. 단 맨 처음 신청유산이 그 자체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러 주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국들은 보다 나은 계획 수립을 위해 위원회에 해당 당사국들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속유산의 등재

- 연속유산의 경우 연속된 유산요소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근본적이면서도 타당해야 한다. 또한 유산 요소 선정에는 명백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논리는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해당 유산요소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와 특징물에 근거해야 한다.
- 비교분석에서는 관련 유산요소의 선정 논리를 설명해야 하며, 해당 연속유산 전체가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유산의 잠정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지 않은 유산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원칙적으로 연속유산으로 신청하는 모든 요소가 등재신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첫 신청 당시 첫 번째 유산요소(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운영지침에 따라 연속유산의 일부만 우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머지 유산요소를 추후 추가할 수 있다(운영지침 137-139항). 이때는 향후 연속유산으로 신청할 기타 요소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 각 유산요소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유산요소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있는지도 밝힌다.
- 연속유산 등재신청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다른 신청과 마찬가지로 해당 유산이 동일한 등재 기준과 완전성 요건, 진정성, 관리체계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등재기준 수립시 지리적 문화권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 요건에서도 동일하다.
- 추가적으로 중요한 또다른 원칙은 모든 연속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서 한건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즉 연속유산은 단일 유산으로 등재되며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특정 연속유산 한 부분의 가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올라야 한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전체 해당 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한나라에 위치한 유산이든 국가간 유산이든 관계없이 모든 연속유산에 적용된다.

ICOMOS 해석 현장(Ename Charter)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문화유산 보호와 연구를 위한 국제학회로, 1965년에 설립
- ICOMOS의 여러 국제학술분과 중 하나인 해석분과(ICIP,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에서 오랜 토론과 연구를 통해 마련한 헌장을 2008년 ICOMOS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 ICOMOS 해석헌장 구성: 전문, 정의, 목표, 원칙 총 4개의 장
- 헌장의 목적: "문화유산 보존 노력의 필수요소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해석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
- Interpretation: 모든 문화유산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
- Presentation: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 방안
- 헌장에서의 '해석'은 당연히 presentation까지 포괄하고 있는 용어로 해석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잠재적 활동의 전범위"라 할 수 있음
- 여기에는 인쇄 및 전자 출판물, 공개 강연, 현장 및 직접 관련 오프 사이트 설치, 교육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해석 과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훈련 및 평가가 포함되는 전달, 인프라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기도 함
- 해석의 7가지 기본 원칙: 접근과 이해, 해석의 정보, 설정과 맥락에 대한 주의, 진정성의 보존, 지속성에 대한 계획, 포괄성에 대한 고려, 연구·훈련·평가의 중요성

과거의 공동체와 문명의 살아남은 광범위한 범위의 물리적 흔적과 무형적 가치 중에서,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 그리고 유산을 대중과 공유하는 방법 모두가 유산 해석에 포함되는 요소이다. 그것들은 지나온 세대가 무엇에 의미를 부여했는지,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상징하기에, 과거로부터의 물질적 유산은 미래의 세대에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From the vast range of surviving material remains and intangible values of past communities and civilisations, the choice of what to preserve, how to preserve it, and how it is to be presented to the public are all elements of site interpretation. They represent every generation's vision of what is significant, what is important, and why material remains from the past should be passed on to generations yet to come.



문화유산의 무엇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한 공공에게 잘 제시할 것인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ICOMOS 해석 현장(Ename Charter)

"문화유산 해석은 모든 관계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며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보존전문가, 정부관계자, 현장운영자, 해설사와 여행사 관련자 등을 관계 당사자로 규정하며, "문화유산 해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정된 집단'을 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 강조함
- 한편으론, 유산 해석은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며, 변화를 수용해야 함
-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제도 내에서 등재 시 인정받은 OUV는 변동하지 않으며 또한, 등재를 가능하게 OUV는 당연히 잘 보존되어야 하고, 활용을 포함한 모든 보존 관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함
- 하지만 그 외의 가치, 즉 새롭게 드러난 찾아진 가치 역시 OUV와 조화를 이루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 가능 함



해석 층위의 다양성,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자(예)

1.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서원 관광안내소, 소수박물관
2. 남계서원: 남계서원 관광안내소, 함양박물관
3. 옥산서원: 옥산서원 관광안내소, 옥산서원 박물관
4. 도산서원: 도산서원 관광안내소,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5. 필암서원: 광주국립박물관, 필암서원 전시홀
6. 도동서원: 한국국학진흥원, 달성문화센터, 도동서원 관광안내소
7. 병산서원: 한국국학진흥원, 병산서원 관리사무소
8. 무성서원 : 태산선비문화사료관, 태산선비마을, 정읍박물관, 무성서원 관광안내소
9. 돈암서원: 돈암서원 관광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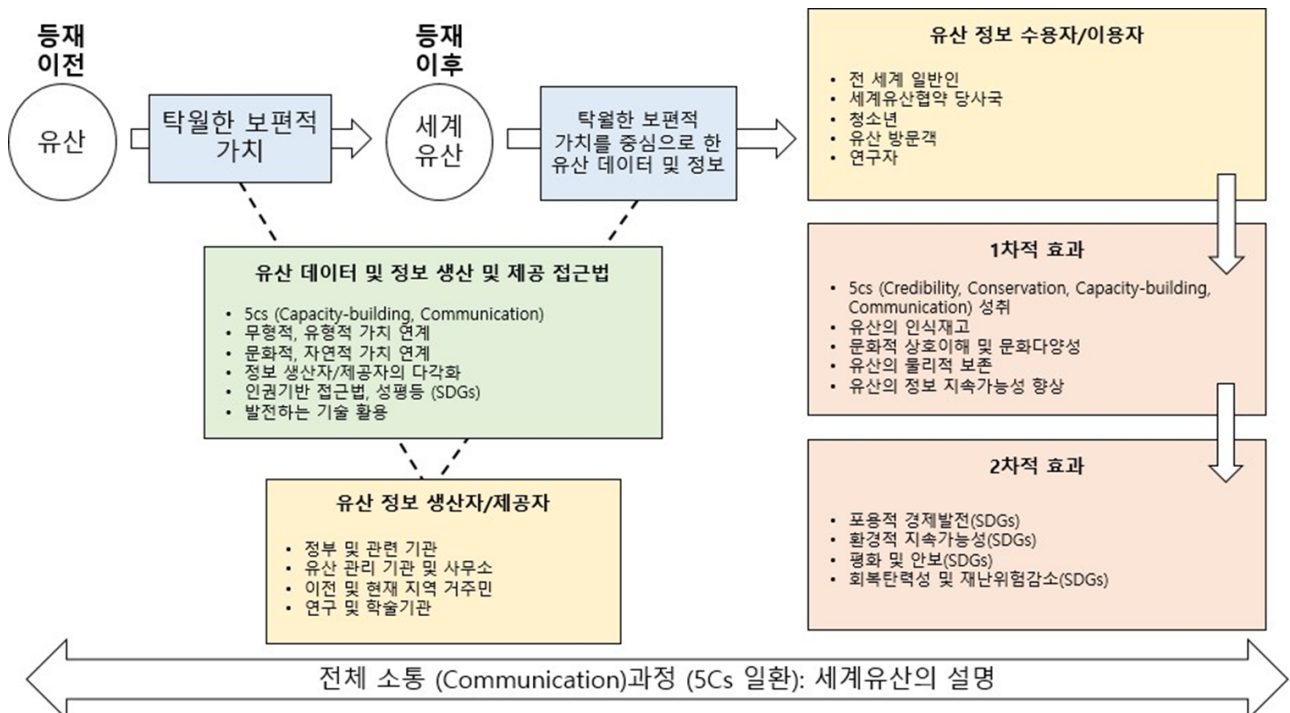
III.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설명과 해석

- 설명은 유산의 해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호연계된 개념이다.
- 그러나 설명에 대한 구분되고 명확한 개념적 접근을 위해 협소한 의미에서는 유산의 가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개념적인 접근을 해석으로, 설명은 보다 물리적인 접근으로 이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세계유산 관련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과정으로 보면, 설명은 유산관리자, 연구자 등과 같이 정보의 생산자와 제공자의 영역에, 해석은 정보수용자와 이용자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세계유산 정보의 생산-제공-수용-이용자의 개념과 범위가 맥락에 따라 다변화하고 있다.
- 이런 변화는 상호소통이라는 설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며, 설명방법·매체 등의 발전에 따라 경계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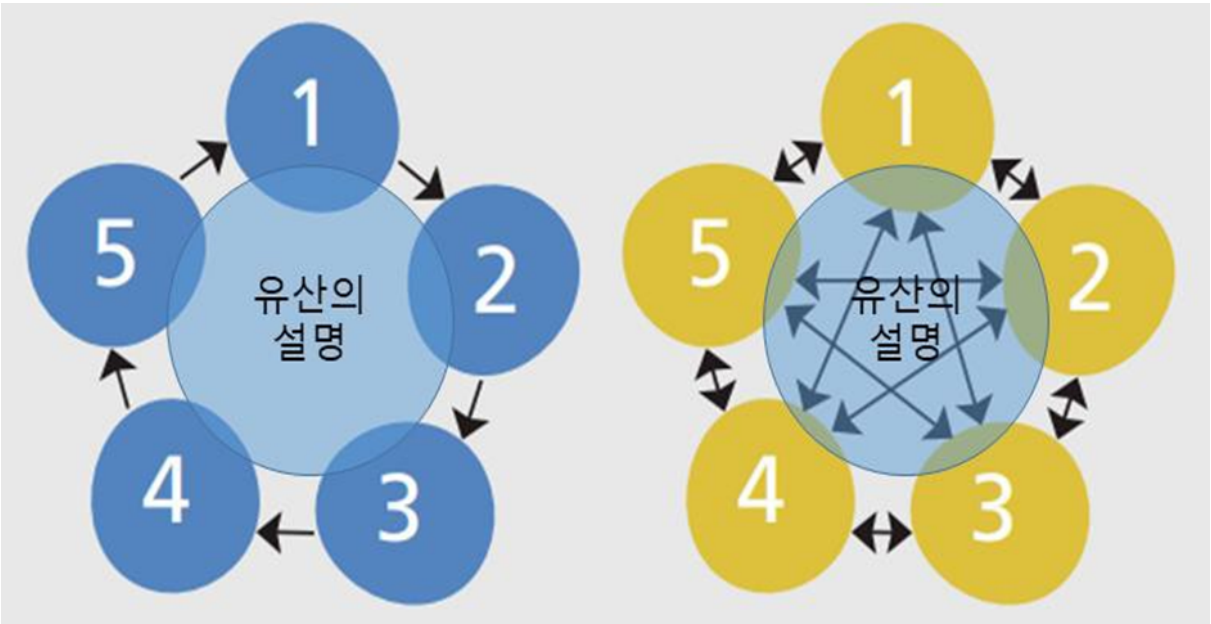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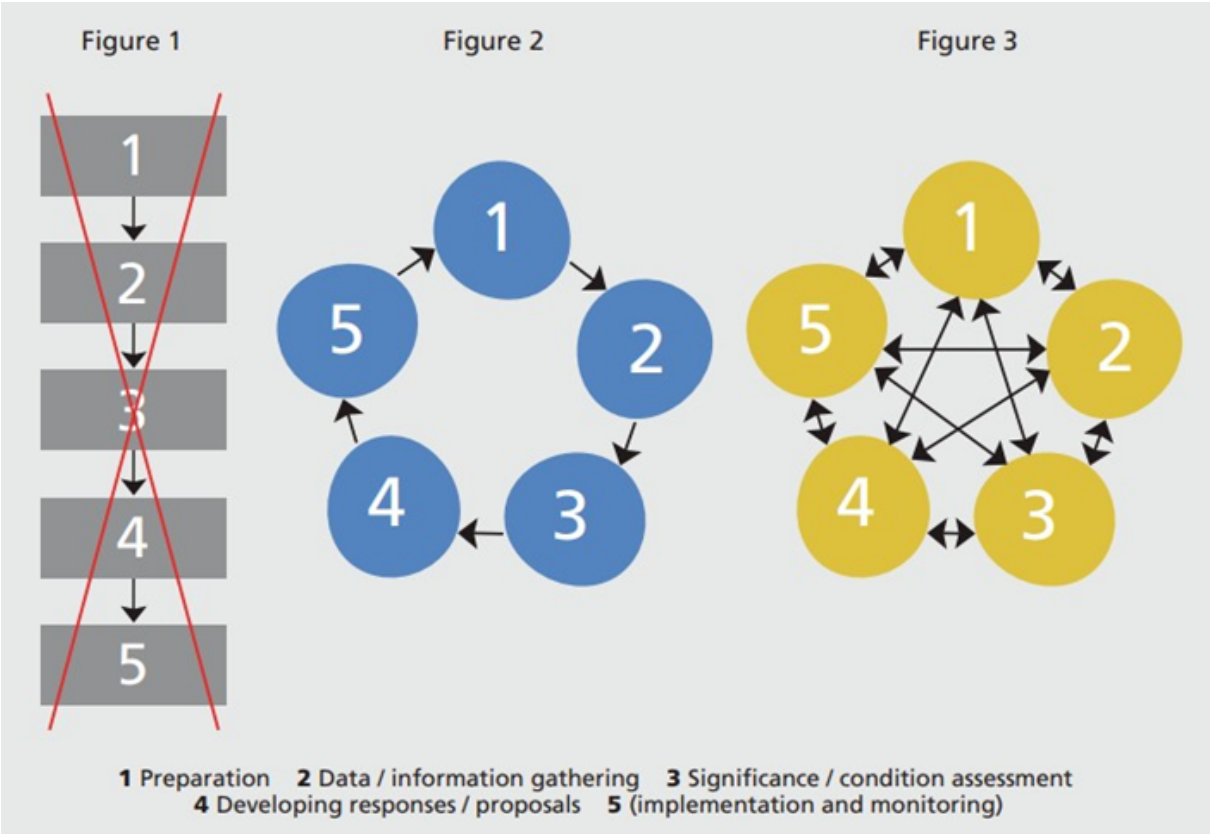
설명과 해석: 국제단위에서의 주요개념과의 연계성

국제정책과 해석과 설명								
UN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Substantiality	Peace and Security	Resilience/ Disaster Risk Reduction	Gender Equality	Local Communities	Indigenous Peoples	Human Right
		UNESCO	평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세계유산협약					
			5Cs	세계전략(Global Strategy)				
			아프리카 지역 실행 계획(2021-2027)					
		국내	포용적 세계유산 해석 설명					
			해석(Interpretation)		설명(Presentation)			



설명과 해석: 국제단위에서의 주요개념과의 연계성

- 연속유산 관점에서 세계유산 통합관리 측면에서 설명과 해석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연구 + 가치발견 + 평가 + 보존 + 보호 + 소통이 유기적 연계



IV.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동향

1. 포용적 유산의 해석 연구

설명과 해석: 국제단위에서의 주요개념과의 연계성

-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은 유산의 보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두 용어의 개념의 정립과 함께 세계유산제도 내에서 해석과 설명의 시행이라는 보다 실질적 관점에서의 개념의 설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에나메현장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접근법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해석과 설명이 시행되는 세계유산현장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환경 등은 현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함

가치 (Value): 가치기반의 해석과 설명

- 세계유산으로서 유산이 가진 가치는 OUV로 대표되지만, 각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는 OUV 이외에도 다양한 가치(other values)를 가지며, 세계유산의 설명에 있어 OUV와 other values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계유산의 설명에 있어 OUV와 other values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유된 가치의 다양성이며, 실무에서 세계유산의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역시 두 가치에 대한 합리적 설명방법에 대한 지침 등에 대한 요청이 확인됨

이해당사자: 참여적 해석과 설명

- 세계유산의 설명의 개념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한 의미는 양방향의 소통으로 세계유산 설명에서 지향해야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보여 주며, 이를 위해 세계유산과 설명과 관련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하는 "이해당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세계유산의 설명은 이런 이해당사자의 참여적 설명의 시행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학문적 연구로서 혹은 세계유산 제도의 문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언급되고 있음
- 세계유산의 설명에 있어서도 기존 정보의 생산자/제공자/수용자/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의 증진으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 이해당사자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집단을 의미하며, 세계유산의 설명의 관점에서 이해당사자의 설정,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한 상황

2. 더 나은 세계유산 이해를 위한 역량 강화

역량강화

- 세계유산뿐 아니라 세계유산의 설명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역량강화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유산의 가치와 사회, 경제, 정치, 경제적환경 그리고 미래세대로의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세계유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설명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역할로 이를 위한 기초연구, 가이드라인 제시, 지침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임
- 세계유산제도에서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유산의 다양성뿐 아니라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회, 경제, 정치적 역량에 따라 보호와 관리, 해석과 설명에 있어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세계유산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필요

보존 및 관리와 설명

- 최근 세계유산제도에서 해석과 설명은 세계유산의 제도에서 단편적인 주제가 아니라 보전을 위한 관리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추세임
- 특히 관리의 측면에서 설명은 세계유산 자체와 가치를 보여주는(presentation)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유산의 관리와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
- 해석과 설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에 있어 여전히 진정성과 완전성에 기반한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존방안과 제도적 보호방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 세계유산의 설명은 세계유산으로서 등재기준 설정, 진정성과 완전성의 검토, 보존관리계획 등 OUV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정으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제도 내에서 해석과 설명 개념과 위치 그리고 계획, 실행, 모니터링 등의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
- 따라서 세계유산 관리의 관점에서 해석과 설명, 보존과 설명의 관계,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 이후 보존에 있어서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와 접근 필요

문화관광과 세계유산 설명

- 세계유산 설명이 대중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유산관광과 세계유산 설명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유산이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함께 사회, 문화,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과 세계유산의 설명에 대한 연구 필요

3. 소통하고 공유하는 세계유산&정보화

정보와 기록

- OUV와 other values를 기반으로 한 해석과 설명은 정보의 수용자 혹은 이용자로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의 다양성을 세계유산이 해석과 설명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음
- 해석과 설명과 관련된 정보와 기록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여 공유기반의 아카이빙을 통해 확대, 공유, 재창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설명 콘텐츠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을 줄여주는 유용한 도구로서 아카이빙되고 공유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음

설명 기법과 매체

- 설명기법과 매체는 세계유산의 설명으로서 Presentation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부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규모, 시설, 종류, 형태 등은 매우 다양함
- 설명을 위한 시설은 유산과 관련된 박물관, 유적 내의 박물관, 방문자센터 등의 시설부터 안내판, 오디오가이드, 가이드 투어, 강의, 강연, 웹사이트 등 유산의 가치를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매체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설명 기법과 매체의 개발은 결국 세계유산의 해석과 직접 연결된 과정으로 기습적, 물리적인 설명기법 및 매체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포용적 해석을 위한 설명방법론 개발 및 보급 필요

정보통신 기술(ICT) 세계유산 설명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유산의 설명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법과 매체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설명방법과 매체는 전통적인 인적, 물적 방법에 비해 상호소통이라는 설명의 기본적인 개념을 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에나메 현장과 같은 이전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의 원칙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큰 차이가 있는 분야로, 설명 방법론으로서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립된 분야로서의 설명방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설명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임

V. 결론 및 시사점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체제 내에서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변화하는 사회문화경제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당면 이슈들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침
- 세계유산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유산 보존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미래세대가 유산이 보유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지원 강조하는데 있어 커뮤니케이션 전략(설명 및 해석을 위한 방법론)은 중요하며, 보존 이슈(설명과 해석을 위한 자원)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짐
- 이에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협약의 핵심 정신을 구현하고, 새롭게 논의되는 정책적 이슈와 국제적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각각의 이슈에 해당하는 도전과제와 해결책을 드러내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함
-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유산 설명 전략의 토대가 되어야 함.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유산의 속성이나 특징으로 표현되며, 이에 세계유산의 속성과 가치의 분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하지만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유산이 가진 세계유산 설명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세계유산의 데이터 및 정보의 수용자 / 이용자의 범위 및 대상은 그 맥락에 따라 다변화될 수 있음
- 사람 중심의 접근법(people-centered approaches)은 유산의 보존에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유산 설명의 사업 사례들이 확인됨
- 이러한 접근법은 장기적으로 유산과 더 넓은 주변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유산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유산의 요소로 들어오게 됨
- 유산 분야의 정책 및 개념적 발전은 모든 단계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와 유산 관행, 평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결하는 권리 기반 접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며, 이는 유산과 지역사회 모두에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해석과 설명은 다른 관점, 다른 사람, 해설사와 청중 모두에 따라 달라지며,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세계유산의 맥락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와 필요성의 더 넓은 범위에 두는 정신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음
- 세계유산협약의 제5차 전략적 목표로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세계유산협약의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한 것이 두 가지 주요 이정표였음. 이러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방문객의 더 넓은 지역사회에도 관련이 있음

- 세계유산제도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서, "5C" 중 하나인 Communication은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 및 지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임
- 세계유산협약은 당사국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표현,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장려함.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 감상을 높이고, 문화유산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
- 또한, 유산을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정에 통합하려면(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다분야적 접근과 보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이며 사람 중심의 유산 거버넌스 및 관리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 해석과 설명은 해결책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데, 공동체 참여, 의사소통, 교육의 3차원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유산의 설명과 해석을 둘러싼 대중의 참여 경향성은 전문가와 그 밖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인과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산을 경험하는 관람객의 경험과 사회적 상황과 조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결합하며 자유롭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담론은 진정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는데 즉 잠정성에 대한 개념은 고정된 물질적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태도, 즉 고정된 기준에 기초한 판단보다는 문화적 변화와 다양성의 역동적인 과정을 인정함으로써 형성되는 보다 조건적이고 맥락적인 정의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담론은 에나메 현장에서 언급하는 포용성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유산에 대한 해석과 설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되고 잘 짜여진 고정된 것이 아닌 공동체 참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함

Ⅲ.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박성진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센터장



중국의 서원 박물관

소개

- 유교는 학문인가 종교인가?
 - 학문적 성격
 - 종교 체계적 성격(유교의 정의)
 - 종교적 성격
- 유교의 종사자들은 누구인가?
 - 유자, 유학자, 유림, 유생
 - 사림
 - 선비

일본의 사숙 데키주쿠



유교의 학교 제향시설

동시(童試) · 향시(鄕試) · 회시(會試) · 전시(殿試)
국자감
공묘(부자묘)
부 · 주 · 현학(府州縣學)-공원(貢院)
사립 서원
일본 聖堂, 베트남 국자감, 말레이 인도네시아
성균관, 사학
향교
사립 서원
서당(가숙)
제례의 기원
종묘(천자,제후,대부,사), 문묘제
향교 대성전, 서원 사당
精舍(학문), 祠宇(조상)

중국의 서원 백록동서원 주자사



서원 제도의 정착

- 중국의 경우
 - 공자
 - 제자백가-집단지도체제
 - 송명리학의 발생
 - 주자
- 조선의 경우
 - 성리서적의 전파
 - 사림의 등장
 - 서원창건과 서원운동
 - 16세기~17세기 서원
 - 서원의 남설
 - 서원의 폐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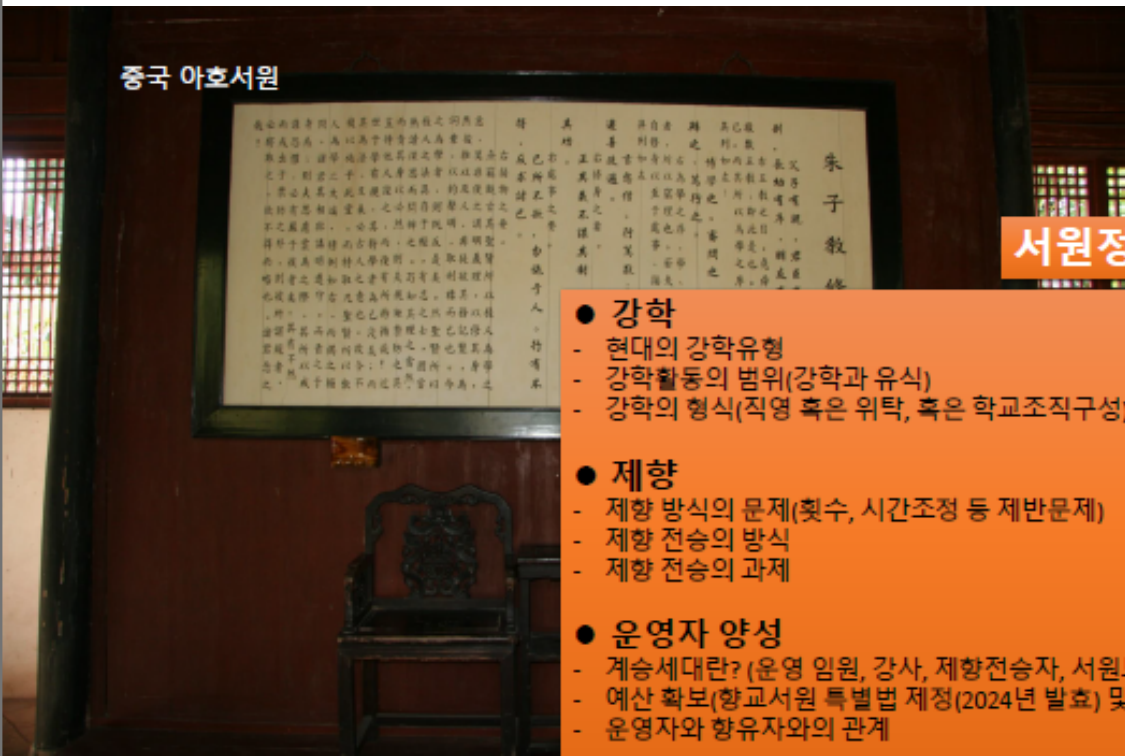
중국 동림서원 의용당



서원의 특성

- **강학**
 - 강학과 과거
 - 강학의 유형
 - 강학의 형식
 - 현대의 강학
- **제향**
 - 제향의 대상 선정
 - 제향방식과 차이
 - 현대의 제향
- **도서관**
 - 도서의 확보와 활용
 - 도서의 발행과 보존
 - 도서관기능과 현대

중국 아호서원



서원정신의 계승

- **강학**
 - 현대의 강학유형
 - 강학활동의 범위(강학과 유식)
 - 강학의 형식(직영 혹은 위탁, 혹은 학교조직구성)
- **제향**
 - 제향 방식의 문제(횡수, 시간조정 등 제반문제)
 - 제향 전승의 방식
 - 제향 전승의 과제
- **운영자 양성**
 - 계승세대란? (운영 임원, 강사, 제향전승자, 서원보호자, 행정인력)
 - 예산 확보(향교서원 특별법 제정(2024년 발효) 및 방법
 - 운영자와 향유자와의 관계

서원의 학문 성리학이란



중국 백록동 서원 강학당

중국에서의 성리학과 변천

- 성리학의 태동 : 불교나 도교 등에서 여러 형이상학적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유학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유학을 불교와 도교에 비해 우위를 갖는 학문으로 만들었다. 이는 **송나라** 시기 **주돈이** · 장재 · 소옹 · 정호 · 정이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유학자들이 구체화하였고 이를 **주희**가 집대성하여 이후 성리학이라 부름
- 양명학 : 심즉리, 심외무물, 인간의 의지 강조
- 고종학 : 청나라 실사구시 중시
- 5.4운동 : 유교타도운동
- 중국 공산당 : 비림비공
개혁개방 : 위대한 중화 교육자



주희(朱熹, 1130-1200)

서원 교육의 원류탐구

8

한반도 성리학의 도입과 발전

- 성리학(性理學)이 안향(安珦: 1243~1306)에 의해 도입
- 불교의 폐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개혁적 열망은, 성리학을 도입하여 불교적 세계관을 몰아내는 지식인들의 거대 프로젝트로 결론이 내려지고 조선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기초를 놓음.
-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들의 논의는 구 고려 왕조 시대의 종교적 생활 방식을 타파하는데 있었고 성리학이 윤리적, 경제적 생활 이념으로 완전히 체화된 것은 퇴계와 율곡이 등장한 16세기 후반



배향자 중심의 인물 계보도와 서원 성격 분류

- 존현서원3개 — 병산. 필암. 돈암
- 사림서원3개 — 옥산. 남계. 도동
- 강학서원3개 — 소수. 도산. 무성

최치원(통일신라)

(857년~)

안향-이색-정도전

(1243~1306)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정여창**

(1405~1504)

김굉필-조광조-이이-**김장생**-김집-송준길

(1454~1504)

(1548~1631)

김안국-**김인후**

(1510~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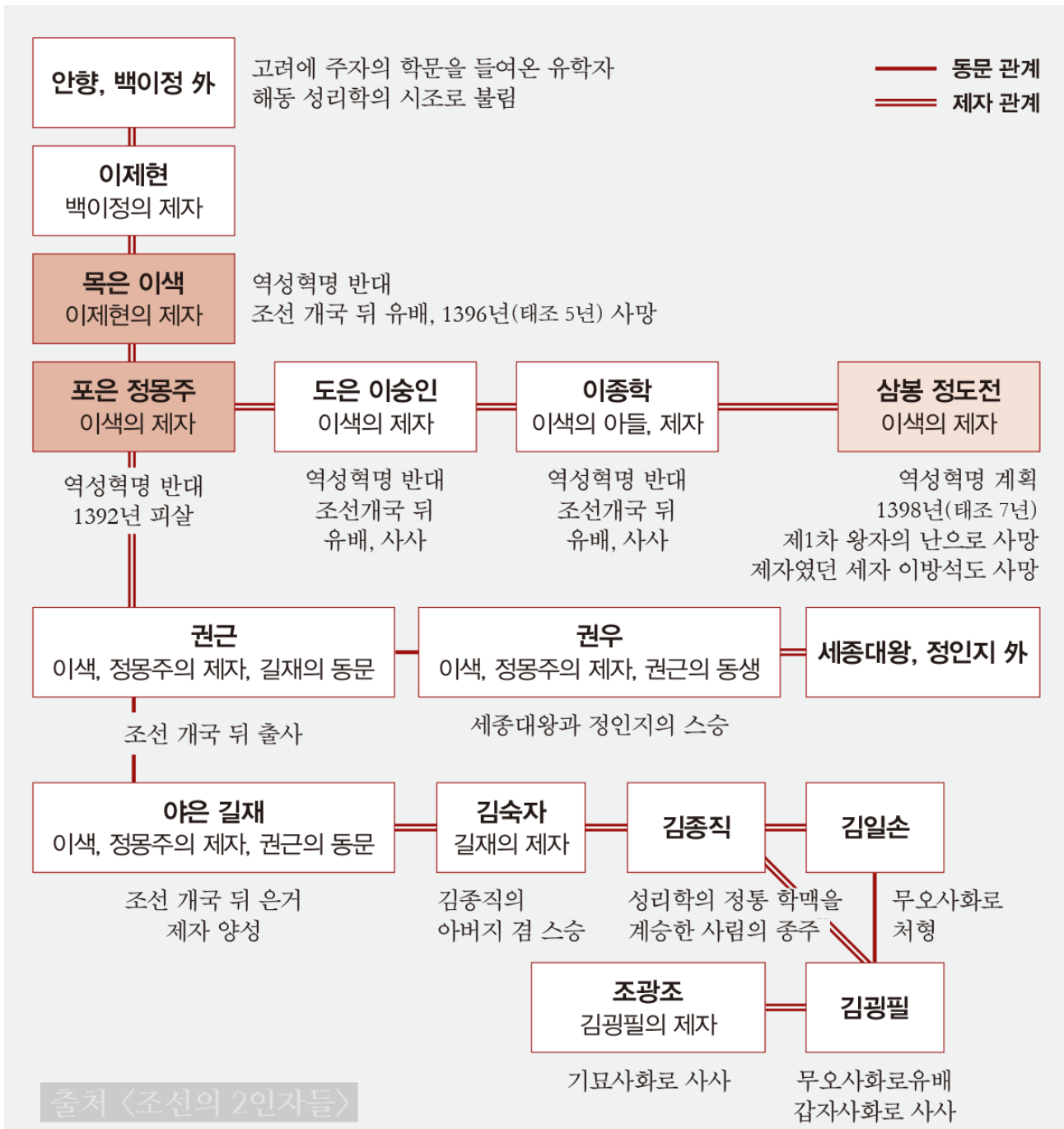
손중돈-**이언적**

(1491~1553)

-**이항**-**류성룡**

(1502~1571) (1542~1607)

성리학 계보도 중심의 흐름도(영남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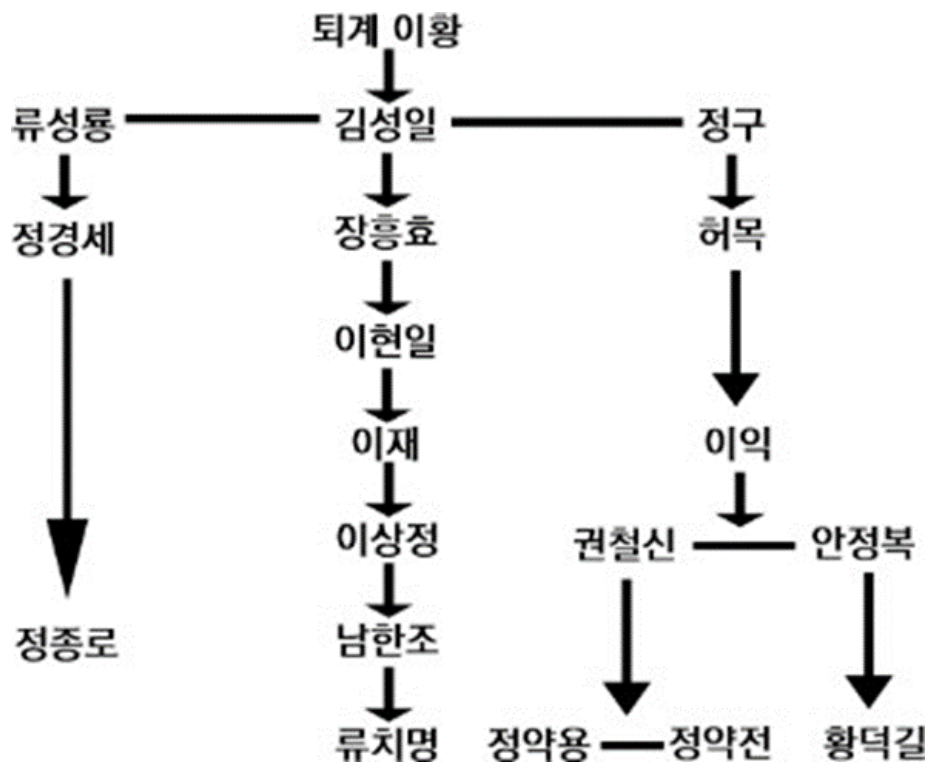
성리학 계보도 중심의 흐름도(영남학파)

김종직
사람의 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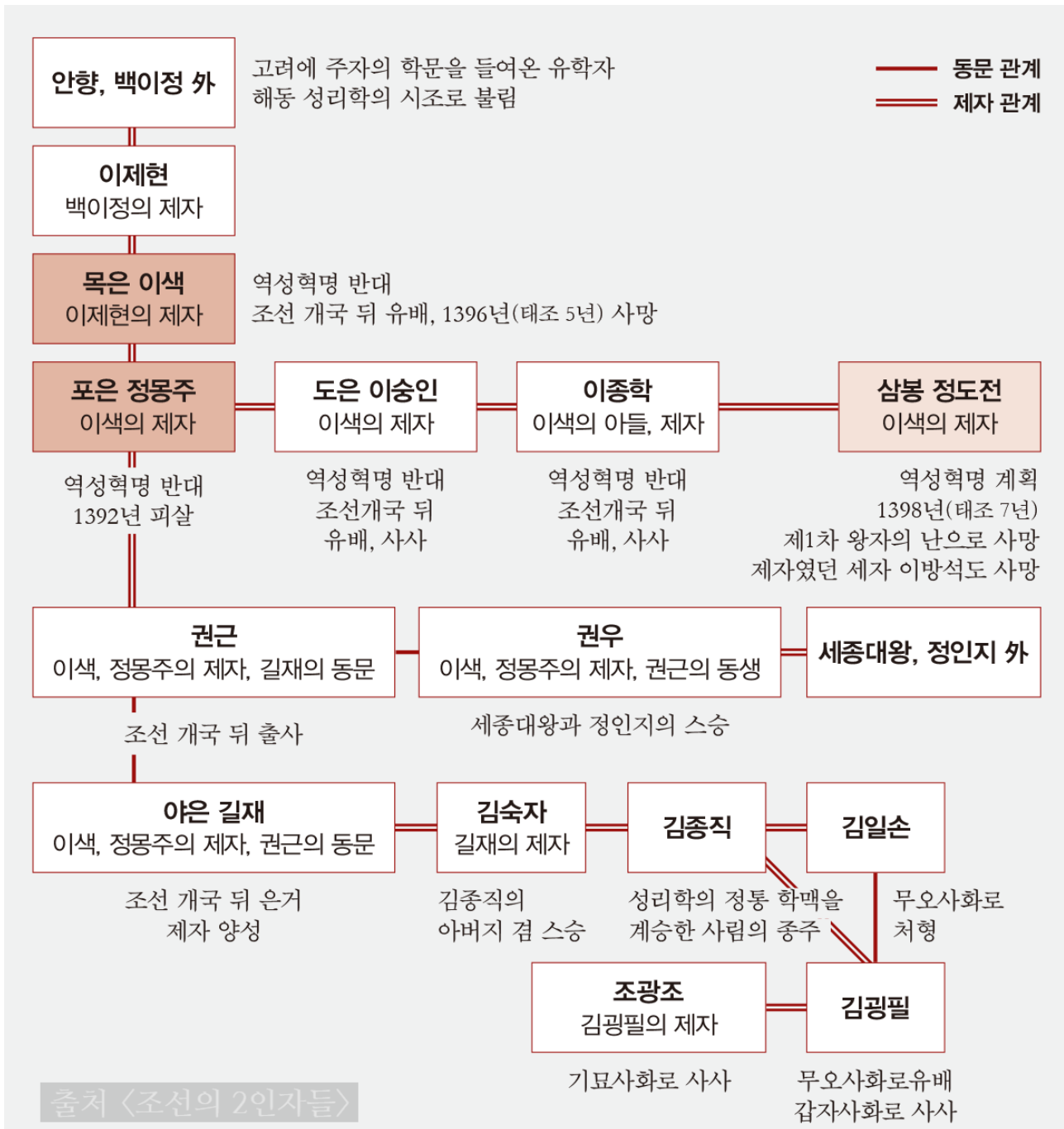
정몽주의 제자였던
'길재'의 학문 계승

손중돈
이언적 외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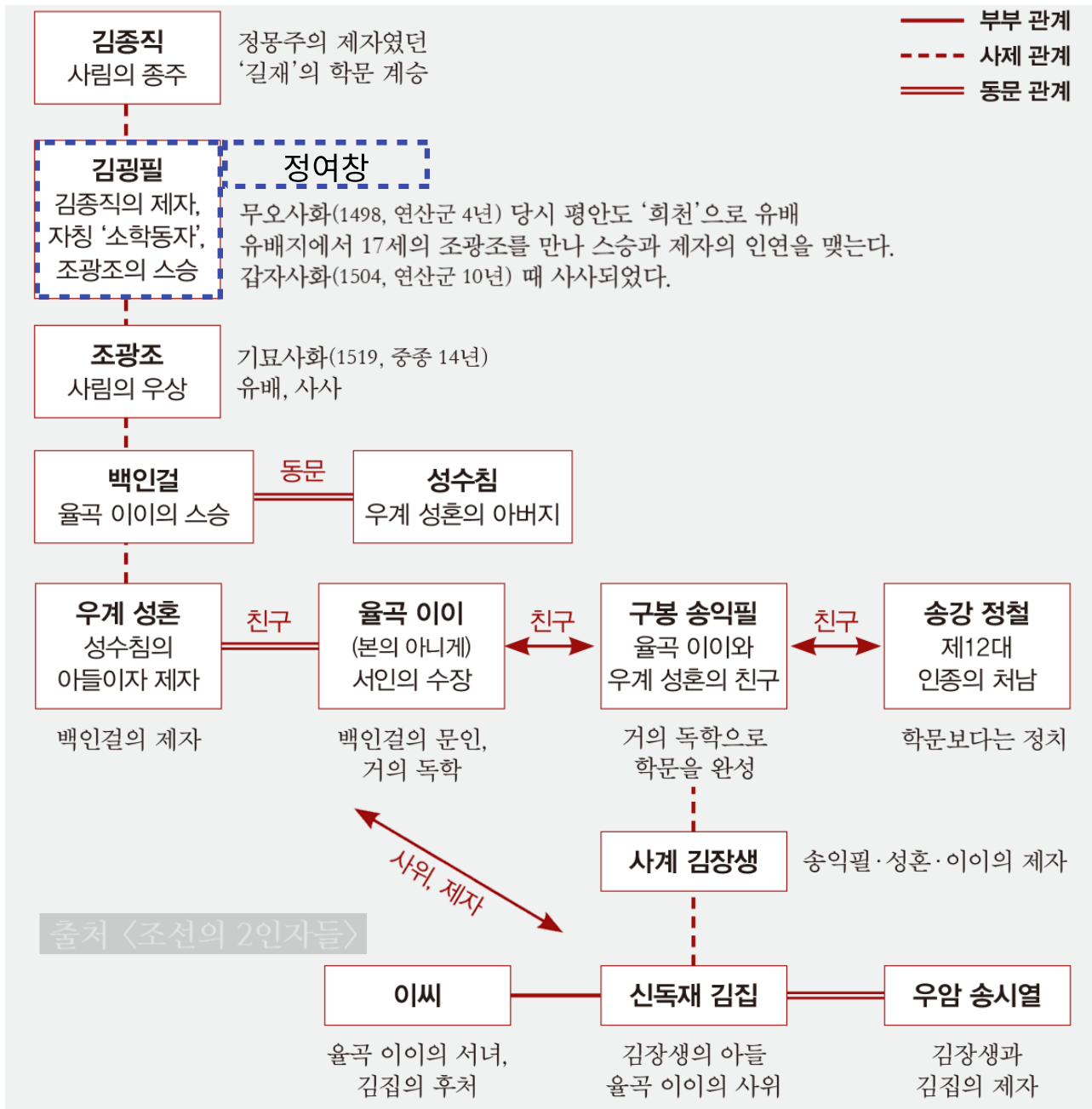
이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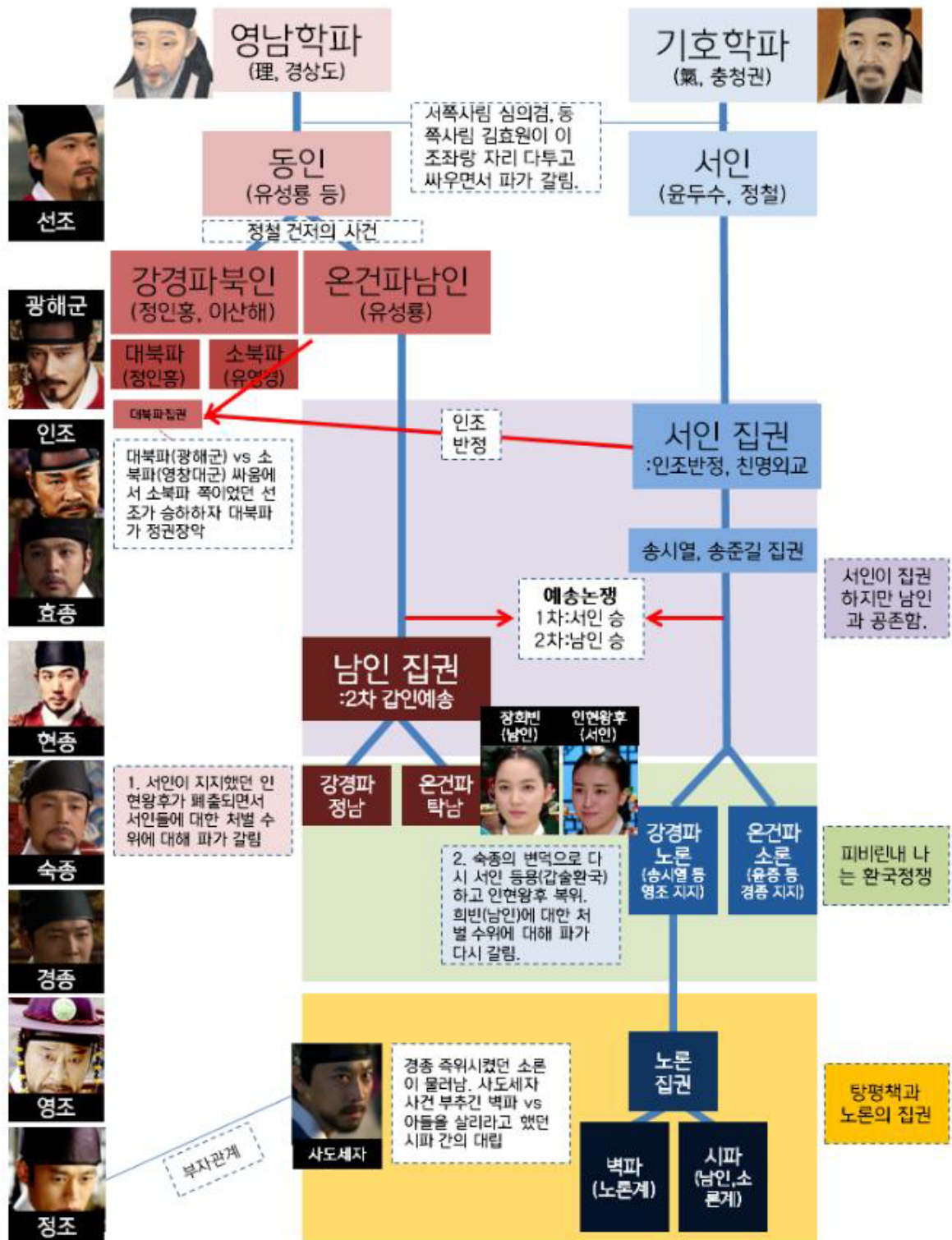
성리학 계보도 중심의 흐름도(기호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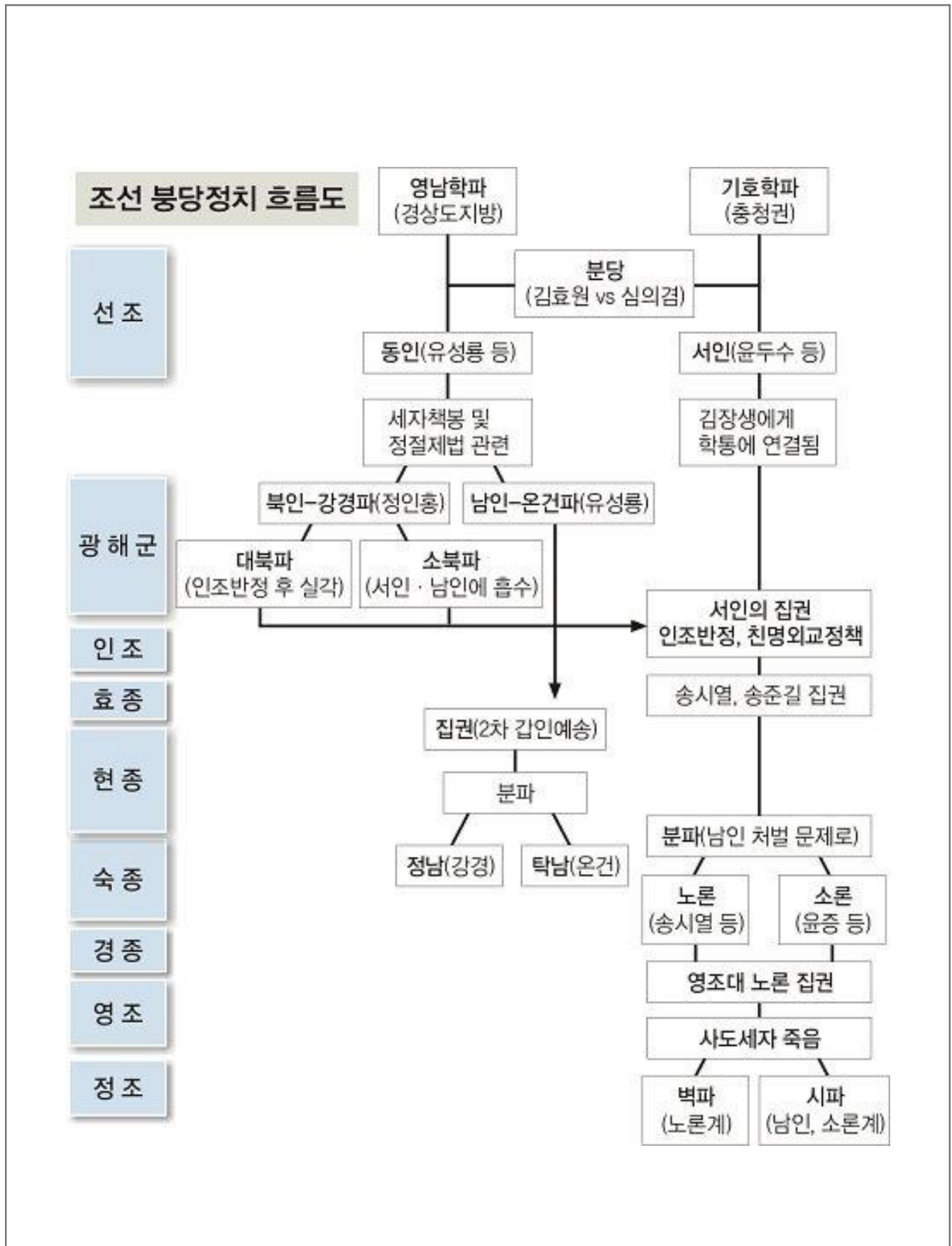


성리학 계보도 중심의 흐름도(기호학파)



조선 봉당정치 흐름도







**나가는 말
서원의 정체성**

- 소수: 진입로, 사루, 충효교육관, 관리사무소
- 도산: 진입로와 잊혀진 유적, 시사단접근로
- 병산: 상가문제, 하회마을과 병산 접근로(데크설치)
- 옥산: 진입로와 주차장, 교육관, 계곡관리, 제향방식
- 남계: 진입로, 교육관, 주유소, 서원앞 광장관리방안
- 도동: 주차장, 수변접근 및 활용
- 필암: 진입로, 수로, 공원조성
- 무성: 진입로, 흥학재 복원, 교육관과의 연계성
- 돈암: 진입로, 산양루 주변 경관조성



감사합니다



IV. ‘한국의 서원’ 방문객의 관광 성향 과 해설 방안 제언

‘한국의 서원’ 방문객의 관광 성향과 해설 방안 제언

신종일²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유산관리팀

I. 한국의 서원과 관광

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의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이뤄진 영주 소수서원, 함양 남계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장성 필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의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여기서 연속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이상의 관련 구성요소(경관, 생태, 서식지 등이 시간·문화·사회·기능적으로 연계)를 포함하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시킨 유산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문화 및 자연유산 정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 속에서 오랜 세월의 인간 사회와 정주지의 진화를 입증하는 문화경관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래 서원은 중국에서 설립되고 번창하였으나 본연의 가치를 전승하지 못한 반면, ‘한국의 서원’은 등재기준 (iii)에 충족하고 완전성과 진정성의 요구조건에 충족되어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고, 이때 서원 관리를 위해 주요 문서 작성을 완료할 것과 연속유산으로서 9개의 서원에 대한 추가적인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1.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2021년 한국의 서원 방문객 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2. 성균관대학교 건축학박사, 강원원주대학교 관광학박사. 강원관광대학 건축과(실내건축디자인과) 부교수 역임, 강릉원주대학교, 인천대학교, 건양대학교 등 출강

[표-1] ‘한국의 서원’ 등재기준과 완전성 및 진정성

구분	내용
등재기준 (iii)	한국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며,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그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춰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그 기능과 배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변혁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완전성	한국의 서원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속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도로, 수목과 시야 내 경관 등 인접 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 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유산의 이들 속성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우수하다. 개발, 총해, 화재, 지진 및 방문객 등 본 유산에 대한 주요 압력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진정성	한국의 서원은 진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온전하다. 그 활용과 기능, 전통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크게 축소된 면이 있다. 비록 두 곳의 서원이 최초의 위치에서 옮겨진 바 있지만 서원의 위치와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무형유산과 서원의 정신적 측면 또한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권고사항	a) 서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작성을 완료할 것 b) 9개 서원을 단일유산으로 통합하기 위한 해설을 개발할 것

서원 발생지인 중국과 달리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배향 인물을 유교 창시자인 공자가 아닌 지역의 유능한 성리학자를 모시고, 그 선현의 유지를 받들어 개인의 영달보다 인격 수양과 후학 교육, 그리고 향촌 교화에 매진한 성리학 교육기관의 존현양사(尊賢養士)의 전통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주세붕은 이미 문성공은 국학에 종사되어 있으며 학교(향교)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흥년을 당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 여론 속에서 주자가 남강(南康)의 위태로움과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없으면 삼강과 구법이 없어져 인류가 멸망하기에, 교육은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하면서 백록동서원을 세운 것을 본받아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에 이어 풍기군수로 온 이항은 선비들로 하여금 심학을 공부하게 하여 선현의 도를 잇도록 백록동 고사에 따라 편액과 서책을 하사해 달라고 관찰사 심원통에게 요청하였고, 왕(명종)으로부터 1550년에 소수서원이란 편액과 서책을 사액받음으로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서원은 전국적으로 건립되면서 조선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각 서원 건립은 건립 주체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학문적으로 대표되는 인물을 배향하고 그를 모시는 사당을 조성하여 제사를 지냄과 동시에 그 인물의 사상과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약 1세기에 걸쳐 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건립되면서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시설의 하나인 서원의 정형을 완결지으면서 서원의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9개 서원의 특징은 주향자의 위상, 서원의 입지, 서원의 역할 등에 따라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한국의 서원’ 등재기준과 완전성 및 진정성

서원명	특징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도입(문성공 안향. 회헌, 1243-1306)· 최초의 서원, 최초의 사액서원· 서원 교육 및 제향과 관련된 운영 규정을 최초로 마련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정치참여와 성리학적 세계관 현실구현(문헌공 정여창. 일두, 1450-1504)· 지형조건을 활용하여 제향-강학-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배치정형을 최초로 제시· 서원 재정운영 모범사례 : 창건부터 19세기까지 사림의 기부내역 장부 부보록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연구: 이기론(문원공 이언적. 회재, 1491-1553)·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서원 건축에 도입한 사례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연구: 종합(문순공 이황. 퇴계, 1501-1570)· 자연친화적 경관입지를 구현한 한국 서원의 전형· 성리학적 공간으로서 서원 건축 장식의 간소화를 실현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연구: 도식화(문정공 김인후. 하서, 1510-1560)· 평지에 입지한 서원으로 건축 배치 형식을 창의적으로 적용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후학양성(문경공 김공필. 한훤당, 1454-1504)· 위치와 경관에서 자연과 조화 : 경사지 지형 조건을 최대한 살린 서원 건축 배치의 탁월성· 건축 미학의 완성: 장식물의 예술적 구현, 최소 규모의 예술적 계획, 흙담장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국가리더(문충공 류성룡. 서애, 1542-1607)·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 최초로 만인소 작성· 만대루를 통해 한국 서원 누마루 건축의 탁월성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교화 활동(문창공 최치원. 고운, 857-?)· 서원기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대표· 자연경관이 아닌 제향 인물들이 활동하던 지역 마을 인근에 입지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연구: 예학 이론 심화(문원공 김장생. 사계, 1548-1631)· 예제와 결합 된 강학 건축물의 탁월성· 원형 보존을 전제로 한 이건 과정에서 전통 건축 기술의 전승

일반적으로 서원을 건립하는 장소는 배향하고자 하는 인물의 출생지나 거주지, 강학처, 묘지 등 개인 연고지가 주를 이루고 간혹 벼슬을 했던 곳에 입지하고 있다. 서원 명과 사액 명칭은 대부분 하천, 바위 등의 지명과 관련이 많고 또한 배향 인물의 성정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서원은 개인 수양에 적합한 장소에 사당과 강당을 근간으로 설립된 것을 바탕으로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 교육을 위한 강학공간, 그리고 수기를 위한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공간에는 기능에 맞는 건축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배향 인물과 공간 구성에 따른 건축물 현황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3] ‘한국의 서원’ 건축물 현황

서원명	위치	사적번호	건립연도	사액연도 (이건)	배향인물
소수서원	경북 영주	제55호	1543년 (백록동)	1550년	회헌 안향(1243-1306) 근재 안축(1282-1348) 안보(1302-1357) 신재 주세붕(1495-1554)
남계서원	경남 함양	제499호	1552년	1566년	일두 정여창(1450-1504) 개암 강익(1523-1567) 동계 정온(1569-1641)
옥산서원	경북 경주	제154호	1572년	1573년	회재 이언적(1491-1553)
도산서원	경북 안동	제170호	1574년	1575년	퇴계 이황(1501-1570) 월천 조목(1524-1606)
필암서원	전남 장성	제242호	1590년	1659년 (1672년)	하서 김인후(1510-1560) 고암 양자징(1523-1594)
도동서원	대구 달성	제488호	1605년 (보로동)	1607년	한훤당 김굉필(1454-1504) 한강 정구(1543-1620)
병산서원	경북 안동	제260호	1613년	1863년	서애 류성룡(1542-1607) 수암 류진(1582-1635)
무성서원	전북 정읍	제166호	1615년 (태산)	1696년	고운 최치원(857-908?) 불우현 정극인(1401-1481) 눌암 송세림(1479-1519) 영천자 신잠(1491-1554) 목재 정언충(1491-1557) 성재 김약목(1500-1558) 명천 김관(1575-1635)
돈암서원	대전 논산	제383호	1634년	1660년 (1880년)	사계 김장생(1548-1631) 신독재 김집(1574-1656) 동춘당 송준길(1606-1672) 우암 송시열(1607-1689)

서원명	제향공간			강학공간			
	사당	전사청	내삼문	강당(협실)	외편액	내편액	동서재
소수서원	문성공묘 (3×3, 맞배)	전사청 (외부)	내삼문	강학당 (4×3, 팔작)	백운동	소수서원 (명종)	일신재/직방재 지락재 학구재
남계서원	사우 (3×1, 맞배)	전사청 (외접)	내삼문	명성당 (4×2, 팔작) 거경재, 집의재	남계 서원	명성당	양정재 보인재
옥산서원	체인묘 (3×2, 맞배)	전사청 (내부)	체인문	구인당 (5×2, 팔작) 양진재, 해립재	옥산서원 (김정희)	옥산서원 (이산해) 구인당 (한호)	암수재 민구재
도산서원	상덕사 (3×2, 팔작)	전사청/ 주청 (외부)	내삼문	전교당 (4×2, 팔작) 한존재	도산서원 (한호)	전교당	박약재 홍의재
필암서원	우동사 (3×2, 맞배)	전사청 (외접)	내삼문	청절당 (5×3, 맞배)	필암서원 (윤봉구)	청절당 (송준길)	진덕재 송의재
도동서원	사우 (3×2, 맞배)	증반소 (외접)	내삼문	중정당 (5×2, 맞배)	도동서원 (배대유)	도동서원 (이황 집자) 중정당 (이관장)	거인재 거의재
병산서원	존덕사 (3×2, 맞배)	전사청 (외부)	신문	입교당 (5×3, 팔작) 명성재, 경의재	병산서원	입교당(이호)	동직재 정허재
무성서원	태산사 (3×3, 맞배)	-	내삼문	강학당 (5×3, 팔작)	무성서원	-	강수재
돈암서원	송례사 (3×2, 맞배)	전사청 (외부)	내삼문	양성당 (5×2, 팔작) 응도당 (1971이건) (5×3, 맞배)	양성당, 응도당	돈암서원 (송시열, 응도당 내부)	거경재(동) 정의재(서)

서원명	강학공간			교류유식공간				고직사	기타시설
	장판각 장서각	기타	외삼문 (정문)	누각	정자	연지 (연못)	기타		
소수서원	장서각		지도문		경림정 세한대 (광풍정)	탁청지 (외부)		고직사	영정각 사료관 경자바위
남계서원	경판각			풍영루(문루) (준도문) (3×2 팔작)		동서 연지	애련헌 (동재) 영매헌 (서재)	고직사	홍살문
옥산서원	경각 문집판각		역락문	무변루 (7×2 팔작)				고직사	비각 (신도비) 하마석
도산서원	장판각 동서 광명실	도산서당 농운정사 역락서재	진도문			정우당 (서당) 몽천열정	천연대 천광운영대	상/하 고직 사	
필암서원	장판각 경장각 (팔작)			확연루(문루) (3×3 팔작)				고직사 한장사	계생비 묘정비 홍살문 하마석
도동서원	장판각		환주문	수월루(문루) (3×2 팔작)				고직사	신도비각 신도비 유물 전시관
병산서원	장판각		복례문	만대루 (7×2 팔작)		광명지 (내부)		고직사	
무성서원				현가루(문루) (3×2 팔작)				고직사	홍살문
돈암서원	장판각	정희당	입덕문	산양루 (5×2 맞배)				경회당	홍살문 하마석

2. 관광의 이해

(1) 관광의 개념 정의

가. Tourism과 관광(觀光)의 의미

- 그리스의 ‘torons’와 라틴어의 ‘tornus’로 ‘돌다’, ‘순회하다’는 의미를 내포
- 1811년 최초로 영국의 Sporting Magazine에 ‘Tourism’이란 단어가 등장, 그 의미는 각지를 여행하고 돌아오다’라고 하는 ‘Tour’로 정의
- Travel: ‘travail’의 수고, 노고, 중노동을 뜻하는 어원에서 파생되어, ‘고통과 위험에 가득찬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사용
- 주(周)나라 易經(卷六, 上經)의 觀의 괘(卦), 기원전 8세기
-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모든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를 보고 식견을 펴면 왕에게 우대받음
- 최치원(신라), <계원필경>, “人百 己千之 觀光六年 金名榜尾” 남이 백 번 하면 나는 천 번 해서 관광 6년 만에 과거급제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 觀: 황새 鵠(천년 꿈의 황새)+ 볼 見(볼 것 안볼 것을 식별) : 선악을 구분하고 비약을 준비하는 사람의 심성
光: 우뚝할(단정) 올 + 작을 小(해, 달, 별) : 모든 사물이 삼위일체적 조화
觀光: 한 나라의 문화와 문명 및 영화를 현명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는 활동
- 중국에서는 여유(旅遊, 무리를 지어 여행하며 놀기)를 사용

나. 관광의 정의

- U.N.국제여행관광위원회(1963): 일상 거주지를 떠나 타지방에서 여가, 위락, 휴가, 스포츠, 건강, 연구 및 종교행사와 업무, 친지방문, 사절, 회의참가 등을 목적으로의 방문(방문객), 방문지에서 최소한 24시간 이상을 체재하는 관광객(Tourist)과 24시간 미만을 체재하는 소풍객(Excursionist)으로 구분
- UNWTO(1982): 관광이란,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친구와 친지 방문, 건강, 회의와 연구 등을 목적으로 방문국을 최소 24시간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행위”로 규정
- WTO(1991): 캐나다 오타와. 관광은 “레저, 사업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상의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여행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체재하는 활동”이다.

다. 관광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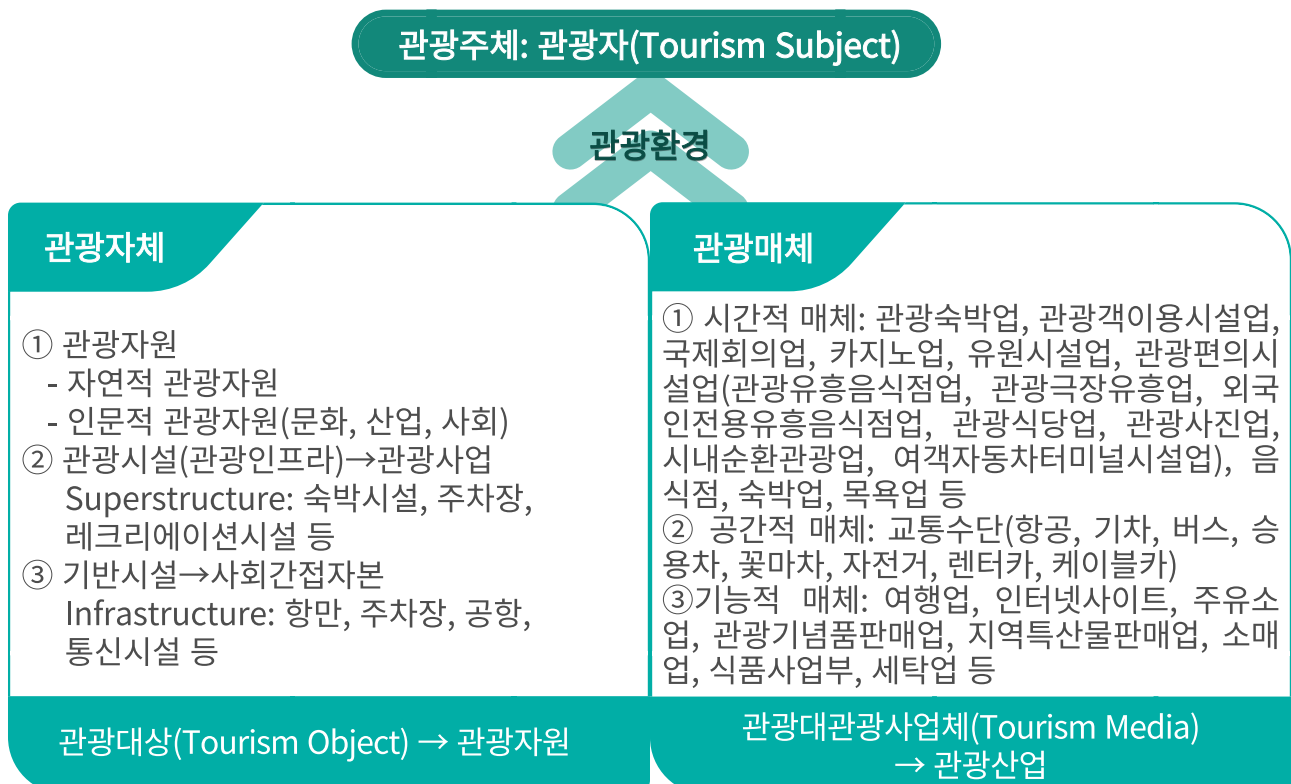
- ① 관광이란 관광자들이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
- ② 관광은 관광자들이 일상 생활영역(심리적 영역)을 떠나는 공간적 이동행위

- ③ 관광은 이동하는 시간적 범위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가 필요
- ④ 관광은 경제적 소비가 있어야 함
- ⑤ 관광은 자유시간(여가) 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유재량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

(2) 관광시스템

가. 관광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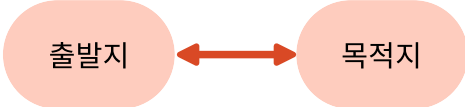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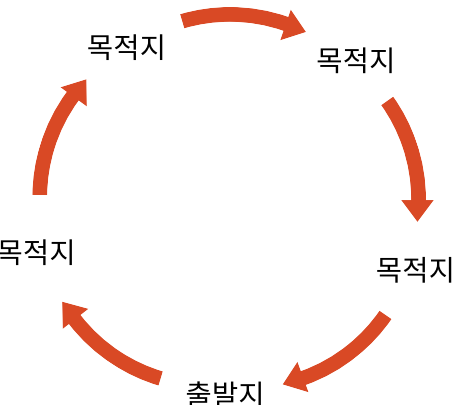
- ① 관광주체: 관광소비 수요의 주체인 관광객
 - 관광욕구(wants), 요구(needs)에 의해 관광활동 결정, 잠재적 관광소비자
 - 관광매력대상(관광지)에 대한 체험과 관광활동을 통해 만족극대화 모색
- ② 관광객체: 관광객의 욕구를 자극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모든 유·무형의 관광대상
 - 사회간접자본: 항만, 공항, 도로, 철도, 통신시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 시설
 - 슈퍼스트럭처: 레크리에이션시설, 숙박시설 등 구조적인 시설
- ③ 관광매체: 관광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면서 관광자가 요구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진흥을 촉진하는 모든 기관과 조직
 - 관광매체의 목적-관광상품 생산·판매로 이윤극대화
 - 유·무형의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을 투입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출물
- ④ 관광환경 : 관광활동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환경
 -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생태적·보건적 환경 등
 - 다양한 환경 변수



[그림-1] 관광시스템

나. 관광의 형태

① 관광 루트와 코스를 중심으로

형태	개념	특징
피스톤형	관광자가 거주지를 출발하여 단일 관광목적지까지 직행하여 그 목적지에서만 체류하고 동일한 관광교통로를 이용하여 거주지까지 돌아오는 가장 단순한 코스	- 하루관광 형태의 특징 - 가장 적은 경비가 소요
		
스폰형	출발지에서 관광목적지까지 왕복직행하지만 목적지 내의 여러 곳에서 휴식 등 여가시간을 피스톤형보다 많이 발생 즐기는 것은 물론, 주위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보고 즐기며 관광 또는 유람하는 형태	- 목적지에서의 관광소비가 피스톤형보다 많이 발생 - 자가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형태
		
안전핀형	출발지에서 관광목적지까지 직행하여 관광목적지에서도 스폰형과 마찬가지로 주위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구경 및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즐기고 난 후 되돌아올 때에는 출발 교통로와는 다른 관광교통로를 이용하는 형태	- 관광경비의 지출이 많음 - 자가용보다는 2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관광형태의 전형적인 예
		
텀블린형	거주지 부근에서 가까운 관광자원 및 관광지를 관광하기 시작하여 되돌아올 때까지 여러 곳의 다양한 관광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관광형태	- 체류기간이 길다 - 관광소비가 많다 - 순수관광목적의 관광형태로 가장소비가 많고 자유로운 관광코스의 선택
		

[그림-2] 관광의 형태

② 국적과 국경을 중심으로

㉑ 국내관광(Domestic Tourism): 내·외국인이자국 내를 방문하여 관광

㉒ 국제관광(International Tourism):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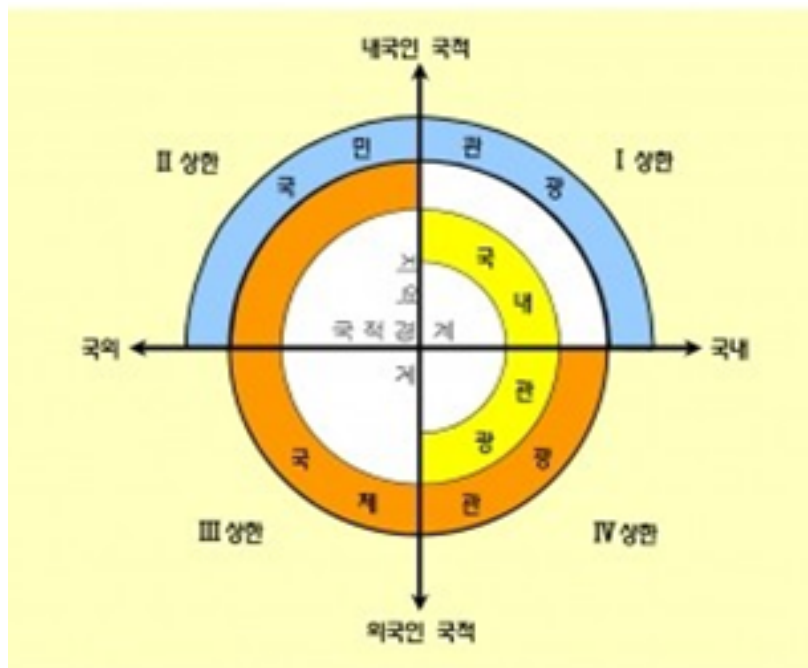
- 국외관광(Outbound Tourism): 내국인이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

- 외래관광(Inbound Tourism): 외국인이 자국 내를 방문하여 관광

- 외국인의 국외관광(Overseas Tourism):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을 방문

㉓ 국민관광(National Tourism): 내국인이 국내외를 방문하여 관광

㉔ 내부관광(Internal Tourism): 내국인이 자국 내를 관광



[그림-3] 관광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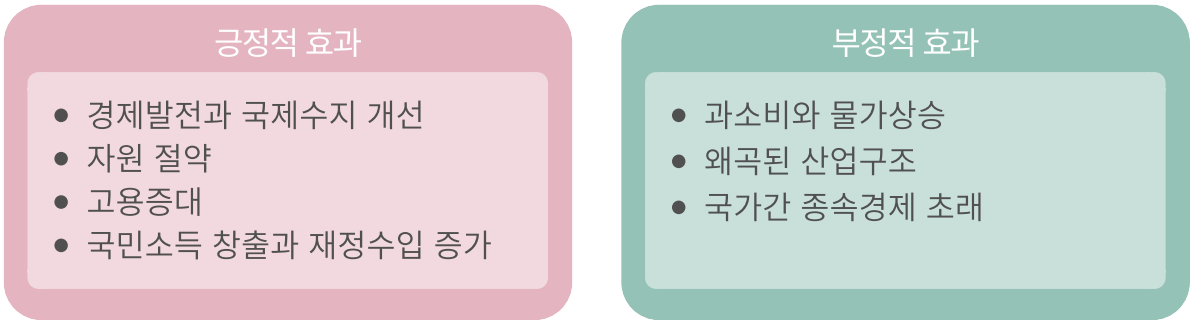
③ 관광목적에 중심으로

- 순목적관광: 자유로운 관광으로 개인의 오락, 휴양, 레크레이션, 견문확대 등의 관광목적 행위로 여행을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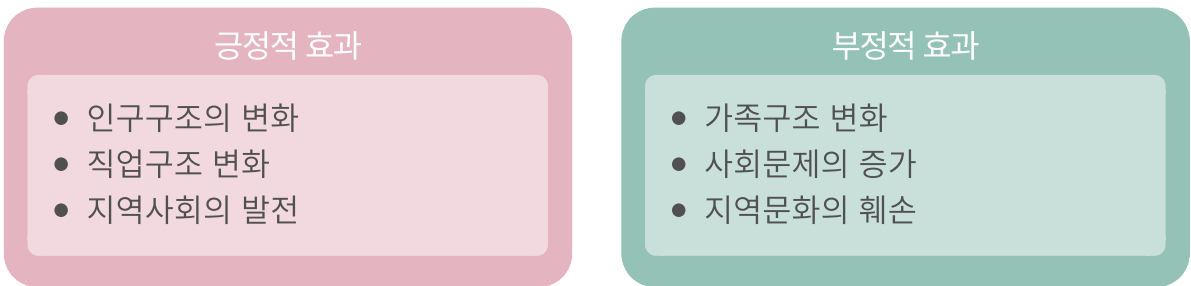
- 겸목적관광: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관광활동을 하는 것

다. 관광의 효과

① 경제적 효과



② 사회·문화적 효과



(3) 관광자 행동

가. 관광자 유형(개인의 성격)

- 내부지향형 여행자: 천성적으로 모험을 즐기지 않고 기성의 관광목적지 선호
- 외부지향형 여행자: 모험심이 강하여 오지 등 다양한 경험을 추구

◎ 프로그(Plog)의 분류

- 내성적 관광객: 사교성이 부족하고 비활동적 성격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를 선호하고 모험을 싫어함
- 외향적 관광객: 사교적이고 활동적 성격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모험을 선호
- 중립적 관광객: 내·외향적의 중간에 위치한 성격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음

◎ 코헨의 유형: 관광객들은 일반적으로 낯선 관습과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신기하고 특이한 체험을 선호하지만, 너무 특이한 체험은 망설이게 됨

- 제도화되지 않은 관광영역: 방랑자(육로 긴 여행), 탐구자(신비추구, 방관자)
- 제도화 된 관광영역: 개별 대량관광자(고가지향), 조직화된 대량관광자

◎ 발렌 스미스의 유형과 관광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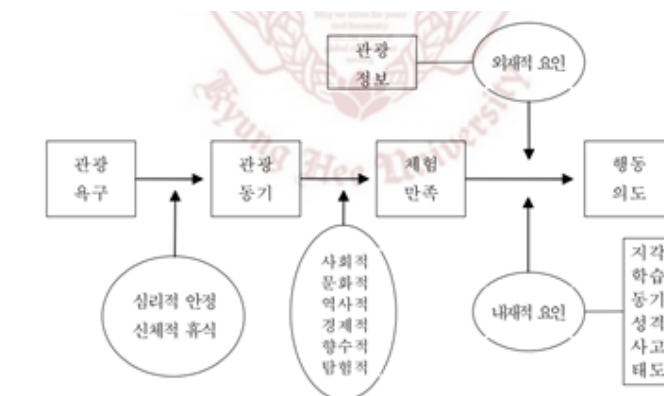
관광자 유형	여행집단의 수	현지 규범 적응도
탐구자 엘리트관광자 경로이탈 관광자 이례적 관광자 초기 대량 관광자 대량 관광자 전세 관광자	매우 제한적 별로 눈에 띄지 않음 흔치 않지만 눈에 띄음 이따금 눈에 띄음 꾸준히 유입 연속적인 유입 대량 유입	기꺼이 적응(관광객 아니라고) 완전 적응(단기체제 시설이용) 적응(규범에 어긋나지만 만족) 어느 정도 적응(당일관광) 서구적 쾌적성추구(무관심) 서구적 쾌적성기대(중류층) 서구적 쾌적성요구(접촉 무)

◎ 관광자 유형에 따른 관광형태

- ① 조직적 단체관광객: 단체 패키지여행상품으로 잘 알려진 유명관광지를 찾으며 여행 중 친숙함과 최소한의 신기함을 희망
 - ② 개별적 단체관광객: 단체 여행 중에도 약간의 자유시간을 선호하여 조직적 단체 관광객보다 더 신기함을 추구
 - ③ 탐험형 관광객 : 스스로 여행일정을 편성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관광객들과의 접촉을 피함.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현지 주민들을 만나 상호 교류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
 - ④ 방랑형 관광객 : 자세한 여행일정 없이 현지 상황에 맞는 숙박과 관광행동을 결정함. 상업화된 관광지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의 신기함을 추구하고 최소한의 친숙함을 원함
- 나. 관광행동의 의사결정

- 관광행동은 관광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관광상품을 탐색하고 관광지로의 이동과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소비자 활동
- 관광행동은 계획단계에서의 기대, 관광목적지로의 이동, 관광목적지에서의 활동, 귀환, 회상 등 5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행동

- ◎ 관광자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 정보탐색 → 대안평가 → 구매(체험) → 구매 후 평가 등 5단계로 구분



자료 : 임현국(1998)

[그림-4] 관광행동 유발과정도

① 문제인식(욕구인식)

- 문제의 인식단계는 관광욕구를 인지하는 것인데, 욕구란 이상적인 상태와 현재 상태와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일종의 결핍 상태
- 욕구는 보통 인식하기 어려우나 이것이 활성화되면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된다. 필요는 구체적인 대상과 연결될 때 동기를 유발
- 문제인식의 원천
 - ㉠ 개인적 특성으로 동기, 가치, 라이프스타일, 개성 등
 - ㉡ 사회적 영향력으로 문화, 준거집단, 가족 등
 - ㉢ 상황적 영향력인 상품에 대한 불만족, 재무적 여건 변화 등

② 정보탐색

- 정보탐색은 관광객이 여행상품의 구매 및 소비를 통해 특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서 시작
- 정보탐색의 구분
 - ㉠ 내부적 탐색: 새로운 의사결정을 인식한 후 처음의 활동으로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회상하고 검토하는 일이며, 만족경험이 높으면 곧 바로 그 대안을 구매
 - ㉡ 외부적 탐색: 내부적 탐색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기억 속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에 외부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인 노력과 비용이 요구
- 관광정보 원천
 - ㉠ 개인적 원천으로 가족과 친구 이웃 등 → 구전(가장 중요)
 - ㉡ 상업적 원천으로 광고, 판매원, 상인, 포장 등
 - ㉢ 공공적 원천으로 대중매체, 소비자 단체, 정부기관 등
 - ㉣ 경험적 원천으로 취급, 조사 사용 등

③ 대안평가

- 대안평가란 내부적 정보탐색이나 외부적 정보탐색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종합하여 각 대안들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
- 선택대안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평가기준 별 성과수준(performance level)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대표적인 평가기준의 네 가지 속성
 - ㉠ 가격수준의 적합성
 - ㉡ 물리적인 특성
 - ㉢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익

- ㉔ 제품사용에 부수되는 이미지
- 관광자의 대안평가 기준
 - ㉕ 관광상품(관광교통, 관광지 등)의 질: 주차의 편리성
 - ㉖ 비용(경비): 메뉴와 요금의 적정성
 - ㉗ 개별 관광지의 속성 혹은 편익이나 매력: 예약 편리성, 직원의 친절성
- ④ 구매(관광 체험)
 - 구매란 대안평가에 의한 최초의 잠재적 구매결정이며, 구매행위와 점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예가 총동구매임
 - 관광자 구매행동은 일반 소비자행동과 달리 구매시점과 관광활동 시점이 서로 다르고 공간이 광범위하고 과정도 복잡
 - 시점차이로 인하여 관광상품은 구매 후 소비까지 기간이 길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연기 또는 취소되거나 변형
 - 관광자 활동은 보통 관광지에서의 활동을 의미하지만 관광지 도착 전과 관광지를 떠난 후의 활동도 포함
 - 관광자 활동은 관광의 형태, 문화적 접촉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이동형태와 관광경험 역시 개인적인 이유와 관광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⑤ 구매 후 평가
 - 구매에 대한 만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 제품의 지각된 성과 사이의 관계
 - 구매 후 평가란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구입한 제품을 평가하는 것으로, 만족, 불만족, 인지부조화의 형태로 나뉜다.
 - i) 만족은 우호적인 구매 후 태도로서 재구매의도가 증가하고 상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짐: 관광만족 → 재방문, 타인에게 추천, 비슷한 방문지 선택
 - ii) 불만족은 다른 적합한 대체 안의 선택과 사용중지, 불평행동, 그리고 부정적인 구전효과를 가져옴: 관광 불만족 → 다음 방문지로 고려 않고 타인에게 불평 전달
 - iii) 인지부조화란 구매한 후 선택의 합리성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구매 후에 발생하는 불만족스러운 심리적 긴장 상태로서, 인지부조화의 해소 방법으로는 제품을 버리거나 반환하거나 구매한 제품의 긍정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대안제품의 부정적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를 합리화하거나, 별다른 차이 없다는 자기 안정을 취함
 - 구매 후 평가 및 행동은 관광객의 기억 속에 피드백 되어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 마케팅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와 검토 필요

(4)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독시(Doxey)의 태도변화 5단계)

- ① 행복감의단계: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고, 소득증대 등의 가시적 효과로 행복감을 느끼고, 관광서비스 직업으로 이직을 생각
- ② 무관심의 단계: 관광객 접촉이 공식적, 상업적 즉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인식, 주민 3차산업으로 전직, 관광객에 대한 긍정과 부정 양립
- ③ 분노의 단계: 관광산업이 포화 수준, 관광객 모방의 전시효과로 과소비와 물질만능주의 만연, 세대 간 갈등 표출 등으로 주민들 허탈감 강화
- ④ 적대의 단계: 원망과 불만을 직접 표출, 세금 인상, 세대 간 갈등 조장, 지역 전통 훼손 등의 문제를 관광객 책임으로 돌리고 노골적으로 적대감 표출
- ⑤ 최종단계: 관광객을 묵인하거나 이주, 관광객 감시와 적대적 태도의 잠재성 부각

나.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

- ① 저항(resistance)단계: 관광객에게 공격적 행동과 적대감 표출, 분노를 표시
- ② 회피(retreat)단계: 부정적 감정과 접촉 및 상호작용을 회피
- ③ 거리유지(boundary maintenance)단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정 거리 유지
- ④ 회복(revitalization)단계: 긍정적 태도와 풍습 및 축제가 부활
- ⑤ 채택(adoption)단계: 관광객과 관광을 사회·문화·경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임

다.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건전한 관광개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II. 문화관광해설사의 이해

1. 문화관광해설사의 개념 정의

문화관광해설사란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한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첫째,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해당 활동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둘째, 관광객의 방문 목적, 관심 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여흥적 해설로부터 해당 활동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셋째, 관광정보를 생산 확산시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넷째,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 문화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재를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해당 활동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설 영역과 활동지역이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중심에서 생태 녹색관광, 농어촌 체험관광, 관광지, 관광단지 등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이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되었다(2005.8.1.).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 사업의 총괄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운영 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표-4]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연혁

날짜	내용
2001. 01. 22.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최초 수립
2001. 01. 27.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계획” 지침 시달 (문화관광부→시·도)
2002. 12. 31.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인원 1,000명 목표 달성
2005. 08. 01.	‘문화유산해설사’ 명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2009. 12. 3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원 2,000명 목표달성
2011. 04. 05.	관광진흥법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법제화,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2011. 10. 06.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2012. 01. 0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제정
2014. 12. 18.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 활용 고시 개정
2016. 09. 3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시스템(www.ctgs.kr) 운영 개시

2.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관광진흥법

상하위법

-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3.] [고시 제2023-1호, 2023. 1. 3., 일부개정]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시행 2023. 6. 1.] [고시 제2023-30호, 2023. 6. 1., 일부개정]
 - 고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19. 5. 2.] [고시 제2019-19호, 2019. 5. 2., 일부개정]
 - 고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시행 2017. 2. 28.] [고시 제2017-8호, 2017. 2. 28., 일부개정]
 - 고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시행 2023. 1. 1.] [고시 제2022-62호, 2023. 1. 1., 일부개정]
 - 고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시행 2023. 7. 11.] [고시 제2023-37호, 2023. 7. 11., 일부개정]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시행 2023. 8. 3.] [고시 제2023-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고시 카지노업 영업준칙 [시행 2023. 7. 10.] [고시 제2023-39호, 2023. 7. 10., 일부개정]
 - 고시 호텔 등급 표시 [시행 2022. 7. 1.] [고시 제2022-32호, 2022. 7. 1., 일부개정]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시 [시행 2021. 6. 29.] [고시 제2021-35호, 2021. 6. 23., 일부개정]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시행 2021. 1. 25.] [고시 제2021-7호, 2021. 1. 25., 일부개정]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고시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시행 2008. 6. 26.] [고시 제2008-13호, 2008. 6. 26., 일부개정]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 [시행 2011. 10. 18.] [고시 제2011-38호, 2011. 10. 18., 제정]
 - 고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시행 2017. 8. 1.] [고시 제2017-29호, 2017. 8. 1., 일부개정]
 - 고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3. 1. 1.] [고시 제2022-60호, 2023. 1. 1., 일부개정]
 - 고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시행 2023. 1. 1.] [고시 제2022-61호, 2023. 1. 1., 일부개정]
 - 고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시행 2017. 9. 8.] [고시 제2017-35호, 2017. 9. 8., 일부개정]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4. 1.] [고시 제2022-17호, 2022. 4. 1., 일부개정]
 -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시행 2017. 6. 30.] [고시 제2017-26호, 2017. 6. 30., 제정]
 - 고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1. 30.] [고시 제2020-55호, 2020. 11. 30., 제정]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시행 2021. 1. 25.] [고시 제2021-7호, 2021. 1. 25., 일부개정]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시행 2023. 7. 1.] [훈령 제489호, 2023. 7. 1., 일부개정]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 [시행 2011. 10. 18.] [고시 제2011-38호, 2011. 10. 18., 제정]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시행 2023. 8. 3.] [고시 제2023-38호, 2023. 7. 11., 일부개정]
 - 기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 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시행 2011. 5. 2.] [지침 제9999호, 2011. 5. 2., 제정]
 - 자치법규
 - 조례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8. 11. 5.] [조례 제2704호, 2018. 11. 5., 일부개정]
 - 조례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7. 6.] [조례 제1538호, 2022. 7. 6., 일부개정]
 - 조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3. 6. 11.] [조례 제1608호, 2023. 6. 7., 일부개정]
 -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시행 2023. 8. 4.] [조례 제5107호, 2023. 8. 4., 일부개정]
 -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 2023. 6. 11.] [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6. 11.] [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조례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27.] [조례 제2642호, 2022. 10. 27., 일부개정]
 - 조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1. 8. 3.] [조례 제2566호, 2021. 8. 3., 전부개정]
 - 조례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11. 17.] [조례 제2626호, 2021. 11. 17., 일부개정]
 - 조례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11. 17.] [조례 제2626호, 2021. 11. 17., 일부개정]
 - 조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30.] [조례 제1991호, 2023. 3. 30., 일부개정]
 - 조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9.] [조례 제2668호, 2021. 9. 29., 일부개정]
 - 조례 거창군 수송대관장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8. 10.] [조례 제2729호, 2022. 8. 10., 일부개정]
 - 조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11. 2.] [조례 제7234호, 2021. 11. 2., 일부개정]
 - 조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6.] [조례 제1372호, 2022. 8. 16., 제정]
 - 조례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1.] [조례 제3956호, 2014. 12. 26., 일부개정]

[표-5] 관광법 체계

관광진흥법 [법률 제13958호, 2016.2.3.,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31호, 2017.3.8.,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9호, 2017.2.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양성교육

가. 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5.]

나. 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11.]

[표-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

구분	개설·운영 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기본 소양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20시간
	전문 지식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40시간
	현장 실무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8) 해설 현장 실습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40시간
	합계		100시간
교육 시설	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다. 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3.8.8.>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4. 5.]

[표-7]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이론	기본소양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30점	70%
	전문지식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70점	
	합계		100점	
실습	현장실무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45점	30%
		8) 해설 기법 시연	45점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점	
	합계		100점	

※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 1)부터 9)까지의 모든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이론평가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제6조 관련)

1. 교육 구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2. 교육 내용: 아래의 구성 형식을 갖춘 교육과목별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의 순서	세부항목
(1) 제목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3) 요약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4) 진행과정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교육교재,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6) 참고자료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기타 교육과목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7) 단어 설명	○ 해당 교육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3. 평가방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계획 및 수료기준, 평가결과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취소, 재교육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강사 및 교육시설 등
 - 가. 강사구성: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 해당 교육과목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해당 교육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3)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 나. 교육교재: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목별로 적절한 교육교재(활동지, 활동자료 포함)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교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다. 교육시설: 교육 기간 중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을 수강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안정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시설을 갖춰야 한다.
 - (1) 강의실: 80㎡이상 강의실 1개 이상. 단,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하여야 함
 - (2) 강사대기실 및 회의실
 - (3) 교육기자재: 강의실 내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음향시설 구비

(2)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³

특별시·도·광역시·자치단체의 장은 ‘신규양성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선발되었거나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해설 기획력을 갖추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당해 연도 중에 총 24시간 이상 실시하되, 활동경력 별 차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의 수료와 평가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과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각 70점 이상으로 하며,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표-8] 보수교육과정 교육 내용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기본 소양	1) 해설사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24시간 이상(실습포함)
전문 지식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 이해 5)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 이해	
현장 실무	6)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 기법 7)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3) 문화관광해설사 활용과 관리⁴

-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해설역량 향상과 관련된 교육 및 수습기간은 활동일수에 서 제외된다. 단 식비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
-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3. 주유비, 간식비 등 제9조 제4항에 따른 활동비 이외의 비용
 4. 문화관광해설사의 외부보수교육, 워크숍 등의 교육 참여(단, 교통비에 준하는 실비 지급은 가능)

3. 문화체육관광부(2019.12).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4. 문화체육관광부(2019.12).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한편, 특별시·도·광역시·자치단체의장은 당해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관리 및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관리를 위해 통일된 양식의 활동일지(별첨양식)를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III.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광 성향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먼저 성별에서 여성이 285명(51.8%), 남성이 266명(48.3%)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문객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 미만이 71명(12.9%), 30대가 100명(18.2%), 40대가 128명(23.3%), 50대 122명(22.2%), 60세 이상이 129명(23.5%)인데, 50대 이상이 45.7%로 나타나 다른 관광지에 비하여 높은 연령층이 방문하였고,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의 방문은 12.9%에 불과하였다. 한편 기혼자는 411명(74.9%)으로 미혼자 138명(25.1%)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거주지역은, 경상도가 248명(45.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81명(14.7%), 충청도 79명(14.3%), 전라도 65명(11.8%), 경기도 62명(11.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경상도가 많은 것은 9개 서원 중에 6개 서원이 경상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원이 없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이 143명(26.0%)으로 전체의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재학/졸업이 295명(54.0%)로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학력자가 93명(17.0%), 대학원 이상이 91명(16.7%), 고등학교 이하가 67명(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문객의 학력이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직이 113명(21.2%)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전업주부 84명(15.%), 기술전문직 74명(13.9%), 서비스업 57명(10.7%), 자영업 54명(10.2%), 학생 48명(9.0%), 공무원 35명(6.6%), 노동생산직 20명(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비율이 절반을 넘고 연령이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전업주부가 15.8%인 것은 자연스럽고, 서비스업이 10.7%이고 노동생산직이 3.8%로 적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침체에 따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사무직과 전문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서원의 관광이 문화관광의 속성을 가지면서 가족 중심(50.7%)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방문자의 가계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미만이 224명(4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0-600만원이 171명(32.0%), 600-800만원 58명(10.8%), 1,000만원 이상 44명(8.2%), 800-1,000만원 38명(7.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9]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성별	남성	266	48.3
	여성	285	51.7
나이	30세 미만	71	12.9
	30대	100	18.2
	40대	128	23.3
	50대	122	22.2
	60세 이상	129	23.5
결혼여부	기혼	411	74.9
	미혼	138	25.1
거주지역	서울	81	14.7
	경기도	62	11.3
	충청도	79	14.3
	전라도	65	11.8
	경상도	248	45.1
	강원도	11	2.0
	제주도	1	0.2
	기타	3	0.6
교육수준	고졸이하	67	12.3
	전문대졸	93	17.0
	4년제졸	295	54.0
	대학원이상	91	16.7
직업	사무직	113	21.2
	기술전문직	74	13.9
	노동생산직	20	3.8
	서비스직	57	10.7
	자영업	54	10.7
	공무원	35	6.6
	학생	48	9.0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24	41.9
	400~600만원 미만	171	32.0
	600~800만원 미만	58	10.8
	800~1,000만원 미만	38	7.1
	1,000만원 이상	44	8.2

2. 관광 행태적 특성

서원 방문객의 최종 목적지가 서원인 사람은 373명(67.9%)이고 목적지가 서원이 아닌 사람은 176명(32.1%)로 서원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사람이 서원을 경유지로 하는 사람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서원을 경유지로 삼은 곳은 소수서원으로 비교적 수도권에서 가깝고 주변에 부석사와 선비촌 등 다른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원 방문객 중 다시 방문한 방문객은 39.5%이고 처음 방문한 사람이 60.5%이다. 그리고 세계유산 9개 서원의 방문경험자는 72.8%로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재방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9개 서원을 연계(서원의 길)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원 방문객의 방문 목적을 보면, 순수관광이 323명(5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답사가 148명(26.9%), 학업이 51명(9.3%), 업무상 방문이 16명(2.9%)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서원 방문객이 서원 관광정보를 얻은 경로를 보면, 인터넷이 199명(34.3%)이고, 다음으로 친구나 지인 123명(23.3%), 인쇄물 89명(16.9%), 홍보 65명(12.3%), 기타 41명(7.8%), 여행사 10명(1.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서원 방문객의 동반자 관계를 보면, 가족이 279명(5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애인이 116명(21.1%), 동호회원 75명(13.6%), 혼자가 36명(6.5%), 회사동료 31명(5.6%)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관광과 소그룹 관광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 방문객의 체류 기간은, 당일 방문자가 334명(60.7%), 1박 2일이 107명(19.4%), 2박 3일이 83명(15.1%)이고, 3박 4일이 14명(2.5%), 4박 5일이 11명(2.0%)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 방문객의 숙박 형태를 보면, 서원 근처의 민박, 호텔, 모텔, 서원(서원, 연수원 등), 캠핑, 게스트하우스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숙소예약 방법으로는,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의 순서로 나타나고, 최근에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서원 방문객의 여행경비를 보면, 10만원 미만이 189명(3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만원대 115명(21.3%), 10만원대가 100명(18.5%), 30만원대가 61명(11.3%), 40만원대가 23명(4.3%), 50-70만원대가 35명(6.5%), 80만원 이상이 15명(2.8%)로 나타났다.

[표-10] 방문객의 관광행태 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구성비(%)
관광 목적지	서원	373	67.9
	다른 곳	176	32.1
이곳 방문경험	있다	218	39.5
	없다	334	60.5
9개서원 방문경험	있다	402	72.8
	없다	150	27.2
방문 목적	관광	323	58.7
	업무	16	2.9
	학업	51	9.3
	답사	148	26.9
	기타	12	2.2
정보 원천	친구	123	23.3
	여행사	10	1.9
	인쇄물	89	16.9
	홍보	65	12.3
	인터넷	199	37.7
	기타	42	7.9
동반자	가족	279	50.7
	친구/애인	116	21.1
	회사동료	31	5.6
	동호회	75	13.6
	혼자	36	6.5
	기타	13	2.4
관광기간	당일	334	60.7
	1박 2일	107	19.5
	2박 3일	83	15.1
	3박 4일	14	2.5
	4박 5일	11	2.0
	기타	1	0.2

구분		빈도(명)	구성비(%)
숙박장소	서원	34	6.2
	민박	67	12.3
	게스트하우스	27	4.9
	모텔	49	9.0
	호텔	54	9.9
	캠핑	28	5.1
	자가	287	52.6
예약방법	인터넷	194	35.7
	전화	89	16.4
	직접방문	40	7.4
	기타	221	40.5
여행경비	10만원 미만	189	34.9
	10만원대	100	18.5
	20만원대	115	21.3
	30만원대	61	11.3
	40만원대	23	4.3
	50-70만원	35	6.5
	80-100만원	7	1.3
	100만원 이상	8	1.5

3. 관광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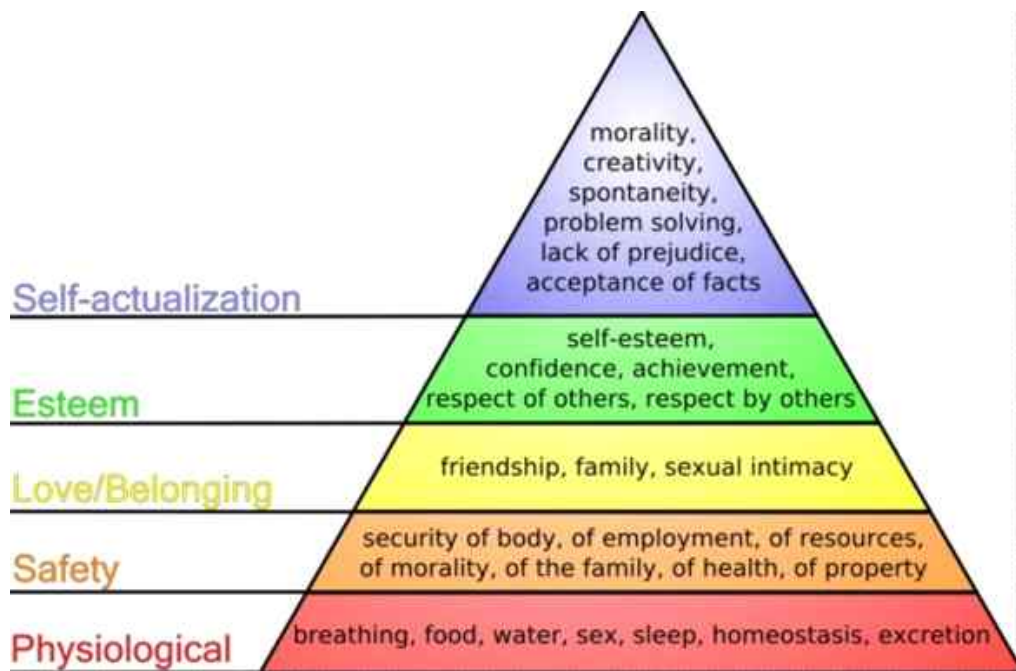
관광 행동 분석에서 근본적인 접근 중 하나가 동기 이론인데, 이는 관광객의 의사결정 행동이 동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의사결정자의 욕구 충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왜 관광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광 연구자들은 동기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동기(motivation)의 어원은 라틴어 ‘movere’인데 이것은 이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과거부터 생존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해 왔고, 현재는 생존뿐만 아니라 종교, 건강, 교육, 자아실현을 위해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의 이동은 정주지를 옮기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충동, 감정, 욕망 등의 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회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관광 동기의 개념 정의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천인 동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로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 요인들의 총칭이다. 이에 따라 동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추진력이며, 특정한 요구와 욕구를 특정한 대상을 통해 충족시키게끔 하는 힘이다(한응범, 2010). 여기에서 요구(Needs; 필요)란 생리적인 결손 상태이며, 요구에서 생기는 심리적인 상태가 욕구(Wants)이다(윤병국 등, 2007).

Maslow(1970)는 인간의 욕구는 상향적으로 충족되도록 예정된 질서로서 5단계로 계층화된다는 욕구단계 이론(hierarchy of needs)을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같이 욕구의 강도가 가장 높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는 안전 욕구(safety needs), 세 번째 단계는 좋아함과 친밀감 등의 애정과 소속감을 표현하는 사회적 욕구(love & belongingness needs), 네 번째 단계가 타인으로부터 평가와 존경받는 자존심의 존경의 욕구(esteeem needs), 마지막으로 자아완성과 자기성취 등의 욕구로서 가장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이다. 여기에서 생리 욕구, 안전 욕구, 사회상 욕구, 존경 욕구는 한 번 충족되면 더는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는 결핍 욕구이고, 자아실현 욕구는 충족이 될수록 그 욕구가 더욱 증대하는 성장 욕구로 구분된다.



[그림-5]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다이어그램

관광이 이동과 체류라고 정의됨에 있어서, 사람들이 특별한 관광목적지로 여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과 관련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관광 행동을 발생하게 하는 심리적 원동력을 일반적으로 관광 의욕 또는 관광 욕구라고 하며,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을 관광 동기(tourism motivation)라 한다. 즉 관광 동기란 관광 행동을 일으키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관광 동기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Glucksmann(1935)는 『일반관광론』이란 저서에서, 관광의 원인을 관념적인 인간과 물질적인 장소로 분류하고, 관념적 기반을 심리적, 정신적인 동기로 구분하고 물질적 기반은 육체적, 경제적인 동기로 구분하였다(조명환, 1994; 강미희, 999). 이후 관광 동기 유형은 관광자의 관념과 행동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는데 McIntosh (1977)는 관광 동기를 신체적 동기(휴식, 스포츠 참여, 오락, 건강 등의 욕구), 문화적 동기(음악, 예술, 민속, 종교의 욕구), 대인적 동기(친구, 친척, 지인 등의 만남에 대한 욕구), 명예 동기(관심, 명예의 욕구)로 세분하였고, Thomas(1984) 역시 관광 동기를 교육·문화적동기(타국의 견문 확대, 명소 감상, 새로운 것의 이해, 특별행사의 참여), 휴식과 즐거움 추구 동기(일상성 탈피, 즐거운 시간 향유, 낭만적 경험 추구), 종족 지향적 동기(조상의 생활 터전 방문, 종족의 묘지 방문), 기타 동기(기후, 건강, 스포츠, 경제, 모험, 우월성, 동조, 경제, 세상을 알고자 하는 욕망 등)로 제시하였다(사효란, 2010).

이와 같은 관광자 중심의 관광 동기는 관광 대상인 관광목적지의 동인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광을 유도하는 내적인 추진 인자(Push factor)와 외적인 힘의 유인 인자(Pull factor)가 상호작용한다는 Push-Pull 이론이 정립되었다. Crompton(1979)은 추진요인으로 일상탈출, 모험심, 자랑하기와 인정받기, 휴식, 향수, 동료애 강화, 사회적 교류의 7가지 속성을 제시하였고, 유인요인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교육요인 2가지를 제시하였으며(김영국·서보원·안태홍, 2011), Dann(1981)은 관광자의 내부적인 심리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추진요인으로 건강, 호기심, 일상탈출, 새로움의 추구 등을 제시하고, 관광지로 여행하게 유인(Pull) 요소로 관광지의 흥미로운 시설, 자연경관, 이벤트 등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관광 동기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5단계와 관련하여, Mill & Morrison (1985)는 7단계의 확장된 동기이론을 제시하였다(한응범, 2010).

[표-11] Mill & Morrison의 욕구 단계와 관광 동기

욕구 유형	동기	동기 요인
생리적 욕구	휴식 동기	일탈, 휴식, 기분전환, 긴장완화, 햇빛 추구
안전 욕구	안정 동기	안전, 건강, 위락, 활동성
소속 욕구	사랑 동기	가족 화합, 친척방문, 대인관계, 동료의식, 사교
자존 욕구	자존 동기	신분·지위, 직업개발, 신분 상승, 자기과시, 사회적 인정, 자아확대
자아실현 욕구	진실성 동기	자기평가, 자기발견, 내적 욕구 충족
지적 욕구	지식 추구 동기	문화, 교육, 방랑성, 타지역 관심
미적 욕구	미적 추구 동기	환경, 경관 등의 미

계속해서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단계설을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발전시킨 Pearce(1988)의 TCL(Travel Career Ladder) 이론은 관광 동기 구조가 개인의 여행경험에 따라 초기 단계의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에서 시작되어 기분전환 욕구(relaxation needs), 안전 욕구(safe needs), 관계 욕구(relationship needs), 자존감 및 자기개발 욕구(self-esteem & development needs),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및 수행 욕구(self-actualization/fulfillment needs)로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며, 이 이론은 관광객의 축적된 관광 경험과 빈도에 따라 관광 동기가 변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Ryan(1988)의 TCP(Travel Career Pattern) 이론은 여행경력에 상관없이 신기성 추구(novelty), 탈출 및 휴식(escape, relax), 관계 향상(relationship) 등의 핵심 동기(core motives)와 고립(isolation), 향수(nostalgia) 등의 덜 중요한 동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핵심 동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적 동기는 여행 수준과 경력이 많을수록 관광지 중심의 현지 문화 탐구를 추구하는(host-site involvement) 동기 패턴을 보이고, 경력이 적을수록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나 자기개발(self-development) 등을 추구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간의 관광 동기와 특정 목적지에 대한 선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관광 행동으로의 참가 결정과 참가 결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Manfredo, Driver & Tarrant(1996)는 관광 동기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와 편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관광 동기의 측정요인과 세부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관광 동기 요인과 측정 도구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Uysal & Jurowski (1994)	일반관광	push	가족화합, 일상탈출, 새로운 문화경험, 스포츠
		pull	유적지, 문화, 휴식, 유흥, 리조트, 야생, 자연, 시골, 저렴한 가격
Andreasen & Belk (1980)	문화예술	학습, 위락, 감정, 역사 등의 경험	
Thomas (1984)	일반관광	교육·문화	타국의 건문화대(놀이문화), 명소(경관)감상, 새로운 것의 이해, 특별행사 참여
		휴식·즐거움	일상성 탈피, 기분전환, 낭만적 경험 추구
		종족 지향	조상 근거지 방문, 가족이나 친구 연고지
		기타	기후, 건강, 스포츠, 경제, 모험, 우월성 과시, 동조, 역사 참여, 미지세계의 욕망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Ross & Iso-Ahola (1991)	문화관광지	명승고적지방문, 지식함양, 선호관광목적지방문, 볼거리, 역사탐구, 타인과의 교류, 일상도피, 지역특산물구입	
Fodness(1994)	해외관광	새로운 문화 체험, 타국인과의 만남, 식도락 및 이색 장소체험, 신기성 구경, 여행 후일담 즐김	
Mcintosh(1977)	일반관광지	신체	휴식, 스포츠 참여, 오락, 건강
		문화	다른 나라의 음악, 예술, 민속, 종교 등의 배움 욕구
		대인관계	친구, 친척, 지인 등 사람과의 만남
		명예 지위	인식, 인심, 관심, 명예
Garrod & Fyall (2000)	문화유산	보존성, 접근성, 교육성, 오락성, 고유성, 관련성, 품질성, 지역공동체성	
Jang & Wu(2006)	대만관광지	추진동기	자존감 증진, 자아 존경, 신지식 추구, 휴식
		유인동기	관광 매력물 등
Correia et al. (2007)	포르투갈	모험과 긴장감 추구,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육체적 휴식, 지적 호기심 만족, 일상에서의 탈출, 지인과 친목 도모	
Breejen(2007)	스코틀랜드 도보여행	정신적 휴식, 자신에 대한 도전, 자연감상, 일상탈출, 자아조절, 성취감과시	
조명환(1994)	일반관광	심정	사향심, 교류심, 신앙심
		신체	치료, 보양, 운동
		정신	지식, 견문, 환락
		경제	구매, 상용
최준호(1999)	공연예술	취미활동, 여가활동, 학습체험활동	
전명숙(2005)	문화유산	관광상품화 요인	관광자원성, 주변 환경의 진정성, 역사성, 종교성, 예술성, 지역성
이홍규·이동희 (2005)	남이섬	체험성, 관광경험성, 지리적 접근성, 탈일상성	
이정호(2009)	무형문화재 관람	외적 욕구	외적 욕구
		내적 욕구	지적 풍요, 감성적 자극, 엔터테인먼트
현홍준·서용건·고계성 (2010)	문화유산	고유성, 접근성, 교육성, 향토성	
김영미·김종은 (2011)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편리성, 고유성, 인적 서비스, 고궁환경, 관람정보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노경국(2011)	올레 도보여행	일상탈출, 자기성찰, 지역체험, 위신, 자연감상, 사고	
허범영·정익준 (2012)	중국·일본인 한국관광	생리적·귀속, 학습과 문화이해, 성취능력·자존발휘, 자아실현	
임근욱·이혁진 (2015)	동해안 관광지	push	일상탈출, 휴식, 자아실현, 동반자, 유희성
		pull	시설 편의성, 여가문화활동, 자연활동, 친숙성
Kim, Lee, & Klenosky (2003)	국립공원	추진동기	일상 탈출 충동, 휴식추구 본능
		유인동기	자연 환경, 역사적 사건이나 시설, 관광지 기반 시설
양작강(2020)	중국인 한국관광	신기모험, 매력성, 휴식·일상탈출, 가족화합, 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 방문객의 관광 동기의 측정 도구로, 스트레스 해소, 여가를 즐김, 가족 여행, 견문 확대, 자녀 교육, 신비감, 호기심, 세계유산, 유명한 관광지, 전통문화를 간직, 서원 전통문화 체험, 문화 이벤트, 자연경관, 레저활동, SNS 올리기, 경험 전달 등 16개 항목을 선정하고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서원 방문객의 관광 동기 분석

관광 동기 16개 변수들의 측정값에 포함된 오차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670개의 유효케이스가 사용되어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903으로 나타나고, 16개 항목에서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높아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제거할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 동기에서 제일 높은 평균값은 세계유산이 4.23이고, 다음으로 전통문화 간직(4.19), 여가 즐김(4.16), 자연경관(4.12), 스트레스 해소(4.10), 가족여행(4.03), 유명한 관광지(3.97), 견문 확대(3.89), 호기심(3.82), 신비감(3.71), 서원전통 체험(3.57), 경험 전달(3.54), 자녀 교육(3.42), 문화이벤트(3.23), 레저활동(2.92), SNS올리기(2.8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원 방문객의 관광 동기는 세계유산으로 전통문화를 간직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 여가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 단위의 여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체험과 문화이벤트와 레저활동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13] 관광 동기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항목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크론바흐 α	문항제거 시 α	비고
스트레스 해소	752	4.10	.787	5	.903	.899	
여가 즐김	752	4.16	.752	3		.898	
가족여행	733	4.03	.946	6		.898	
건문 확대	747	3.89	.888	8		.898	
자녀교육	717	3.42	1.252	13		.900	
신비감	738	3.71	.911	10		.893	
호기심	737	3.82	.869	9		.894	
세계유산	745	4.23	.770	1		.897	
유명한 관광지	735	3.97	.873	7		.896	
전통문화 간직	743	4.19	.762	2		.897	
서원전통 체험	733	3.57	1.067	11		.896	
문화이벤트	727	3.23	1.105	14		.896	
자연 경관	742	4.12	.828	4		.898	
레저활동	725	2.92	1.138	15		.901	
sns 올리기	723	2.82	1.202	16		.901	
경험전달	741	3.54	1.029	12		.896	

4. 관광지 선택속성

(1) 관광지 선택속성의 개념 정의

관광자는 관광 동기에 의하여 관광을 결정하고, 그들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지를 선택하게 된다.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먼저 본인의 지각속성과 기대의 결과로서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 이미지에 근거하여 여러 관광지를 선정한 후 관광지의 속성들을 비교하면서 후보지 수를 좁혀가며 마지막에 원하는 속성을 복합적으로 갖춘 관광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관광목적지 선택은 관광자의 선호에 따라 관광지 속성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Engel et al, 1986), 의사결정에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속성을 결정적 속성이라 한다(Myers & Alpert, 1968).

관광자가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선호하여 방문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속성을 관광지의 가치라 하며, 보통 자기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과 이국적 신기성을 가진 생활 습관 및 사회적 양식 등에 매력을 느낀다. Inskeep(1991)은 관광지의 매력을 자연적 매력물(기후, 경관의 아름다움, 해변과 바다, 동·식물군 등의 자연적 환경요소), 문화적 매력물(건축·역사·문화적인장소,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관습, 예술과 수공예품, 흥미 있는 경제적 활동, 도시지역 등), 셋째,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창조된 시설물(주제공원, 위락공원, 쇼핑, 각종 회의, 특별한 이벤트, 카지노 등)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iddleton & Clarke (2001)은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구성 요인을 자연, 인공, 문화, 사회적 유인물인 관광 매력물과 숙소, 교통, 스포츠, 상점 등의 관광시설, 기반 시설과 법률·제도등의 서비스 접근성, 여행비용 및 기타 비용 등의 가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광지의 기후, 매력적인 자연환경, 즐거움, 다양성, 행복감, 도전성, 휴식, 특별한 야외오락 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등의 개인 욕구 충족 차원과 문화 환경,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등의 사회적 차원, 그리고 금전, 건강, 안전 등의 관광 능력 차원에 따라서 구분된다(노정연·조우제, 2011).

또한 메슬로우가 제안했던 바와 개인 욕구 단계에 따라 관광 추구 형태도 위계를 갖는데, 첫째, 객관적인 물리적인 속성, 둘째, 주관적인 물리적인 속성, 셋째,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속성, 넷째, 편익과 인지 위협의 속성 등의 4가지 수준의 위계를 가지며((Driver, 1990),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안정과 욕구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관광이 보편화되어 있다.

문화관광은 역사 유물의 유적지 혹은 박물관 등을 관광하는 개념이었으나 점차 관광객 ‘행동의 문화성’이 중시되면서 ‘보는 관광’에서 ‘문화체험 관광’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문화관광은 유적지, 사적지, 역사·문화기행, 영화, 축제, 이벤트, 미술관, 박물관 등 다양한 소재가 있다. 최근에는 세계유산에 대한 관광 가치가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관광지 선택속성의 측정요인과 세부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관광지 선택속성의 요인과 측정도구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Ritchie & Zins (1978)	Quebec	일반적 속성	자연경관, 사회문화적 특성, 접근성, 현대성, 부대시설, 물가수준, 스포츠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사회문화적 속성	전통, 음식, 역사, 건축양식, 공예품, 오락 활동, 예술 및 음악, 언어, 복장
Haahi (1986)	핀란드 하계휴양지	선호관광지	물가수준(화폐가치), 접근성, 심야 위락 및 유흥, 평화롭고 조용한 휴가, 스포츠시설, 친근하고 친절함, 자연공원 및 캠핑, 문화적 체험, 아름다운 풍경, 새로운 목적지
McKercher & Cros (2003)	홍콩 문화관광지	상품요인	유적지, 주변 환경, 규모, 접근성, 특수목적으로 건설 및 현존 시설, 보완적인 건물 개조
		경험요인	고유성, 관광객과의 관련성, 소비 용이성, 교육적이고 흥미 있는 소프트웨어
		마케팅요인	관광지 포지셔닝, 자산의 관광지 잠재력, 확실한 관광객 세분화, 관광지의 계층적인 연출, 상품 수명주기 단계와 재도약 가능성
		문화요인	지역 대 국제적인 사회가치
		리더십요인	관광 태도, 비전, 관광지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마케팅 경영철학 채택 능력
Fallon & Schofield (2006)	플로리다 올랜드	개인 안전, 청결성, 활동과 볼거리 다양성, 숙박설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것, 테마파크, 고객센터,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 쇼핑 시설, 날씨, 특가 상품, 휴양, 지역주민 친절성, 식당의 다양함, 쉬운 도로 표지판, 물가, 렌터카 서비스, 유흥, 자연적·야생적 장소와 산길, 시내버스 서비스, 문화역사적 장소와 산길, 스포츠시설	
이윤섭(2006)	국내·외 관광지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시설 식음료 쇼핑 여행서비스	매력성, 접근성, 숙박시설의 편의성, 숙박시설의 관리상태, 숙박시설의 서비스, 숙박시설의 가격, 교통수단의 서비스, 교통의 안전성, 운임(가격)의 적절성, 식음료 편의성, 식음료의 환경성, 식음료의 적절성, 쇼핑시설의 유명도, 쇼핑시설의 상품가격품질, 서비스 정보성, 서비스 경제성, 서비스 시간성, 서비스 안전성
최용훈(2008)	미·일·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교통과 서비스	한국매력성, 접근성, 숙박시설의 편리상태, 서비스와 가격, 식음료의 환경성과 적절성, 쇼핑시설의 유명도와 가격 및 품질, 서비스의 정보성, 시간성, 안정성, 경제성, 그리고 교통수단의 서비스와 안정성
		숙박과 식음료	
		쇼핑	
		매력과 접근성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녕수연(2013)	무등산 국립공원	매력성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건축물과 환경의 조화, 문화관광자원의 독특함, 문화성과 향토성, 관광자원이 잘 보전됨, 옛 모습이 그대로 보전, 건축물 복원상태 잘 유지됨,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많음, 과거의 재현이 현실적,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낌, 한국 역사문화의 자부심, 선조들에 대한 존경심, 문화유산에 대한 경건한 마음, 2세들에게 문화유산을 전달, 문화유산보호의 중요성 인식, 한국 역사문화를 배움, 한국 전통문화를 배움, 교통접근이 용이, 각종 편의시설 구비, 안내정보 충분하고 정확, 문화유산 해설내용이 이해하기 쉬움, 관광종사원이 신속한 정보를 제공, 관광종사원이 친절, 지역주민이 친절
		고유성	
		교육성	
		문화성	
		편리성	
		친절성	
아마르투스 (2013)	한국과 몽골 해외관광	자연환경	기후, 경관의 매력, 주변 환경의 조화, 깨끗하고 청결함, 이색적인 풍경
		숙박 및 음식	숙박시설의 좋음, 다양한 편의시설, 식당과 부대시설의 좋음, 음식의 새로운 맛, 음식의 맛
		문화 사회적 특성	흥미로운 문화재나 역사적인 매력물, 박물관 및 문화예술시설, 새로운 생활양식, 선진화, 주민의 친절과 회의감
		서비스품질	종사원들의 친절, 종사원의 충분한 지식, 쇼핑시설, 언어소통, 즐길거리의 다양함
		지각된 위험	응급상황의 위험, 자연재해 유발, 범죄의 노출, 질병 또는 전염병, 교통사고의 위험
		접근성	교통의 불편함이 없음, 대중교통 편리, 도로시설, 이동 중 서비스, 안내정보
오현주(2016)	제주도 힐링관광	현지문화 안전·시설 오락체험 교통 자연경관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 기후, 쾌적한 숙박시설, 관광지의 기반시설, 야간여흥 및 유흥시설, 관광지 청결성, 조용한 곳 치안, 접근성, 편리한 교통, 현지 먹거리, 동반자, 역사문화 매력물, 비용, 휴가시간 및 여행일정, 색다른 경험, 이국적인 분위기, 축제 및 이벤트, 현지문화의 특색, 주민친절, 현지 프로그램
신종일(2017)	관동팔경	관광시설 관광교통 자연환경 위락쇼핑 문화환경	경관매력, 기후환경, 주변환경조화, 접근성, 교통비용, 교통안내, 교통안전성, 숙박시설환경, 숙박가격, 숙박서비스, 음식점시설, 음식가격, 음식점서비스, 관광편의시설, 쇼핑시설, 기념품가격, 위락 및 유흥, 건강 및 웰빙, 문화행사, 교육관광
Duan Zhiwei (2020)	중국 허베이성 문화유산	자연환경 숙박음식 문화사회 서비스품질 지각된위험 접근성	기후 쾌적함, 경관매력, 주변환경 협조, 깨끗함, 이색적인 풍경, 숙박시설양호, 다양한 편의시설, 숙박가격적당, 음식의 맛, 새로운 음식맛, 역사매력물, 예술 및 유산보관시설, 역사적인 분위기, 유산관광조화, 주민친절, 종사원친절, 쇼핑시설, 명승고적 설명이해, 기념품가성비, 즐길거리 다양, 응급조치가능, 자연재해 유발가능성 낮음, 질병사고 구급조치속도, 응급피난시설, 교통편리, 대중교통편리, 안내정보, 이동서비스(음식 및 주차), 관광지주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 방문객의 관광지 선택속성의 측정 도구로, 우리나라 사적지, 세계유산 등재, 자연경관 매력적, 인문경관 우수, 역사문화체험, 관광코스 매력, 숙박시설 양호, 음식먹거리 양호, 휴식편의시설 양호, 접근성 양호, 주차시설 양호, 대중교통 편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시스템, 관광종사원 친절, 지역주민 친절, 여행경비 저렴, 관광기념품 우수 등 18개 항목을 선정하고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서원 방문객의 관광지 선택속성 분석

관광지 선택속성 중요도 18개 변수들의 측정값에 포함된 오차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555개의 유효케이스가 사용되어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926으로 나타나고, 18개 항목에서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919~.924 까지로 높아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제거할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도 평균값에서 제일 높은 것은 세계유산 등재가 4.07이고,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자연경관(3.99), 관광종사원 친절(3.99), 문화관광해설사(3.95), 사적지(3.92), 인문경관 우수(3.89), 관광안내시스템(3.84), 주차시설양호(3.83), 역사문화체험(3.79), 지역주민친절(3.69), 여행경비저렴(3.62), 관광코스매력(3.61), 접근성(3.39), 편의시설(3.29), 음식먹거리(3.23), 숙박시설(3.16), 관광기념품(3.10), 대중교통(3.00)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63이다.

한편,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도 18개 변수들의 측정값에 포함된 오차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627개의 유효케이스가 사용되어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919로 나타나고, 18개 항목에서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912~.917 까지로 높아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제거할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 평균값에서 제일 높은 것은 세계유산 등재가 4.47이고,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자연경관(4.42), 관광종사원 친절(4.36), 사적지(4.34), 문화관광해설사(4.32), 인문경관 우수(4.24), 주차시설양호(4.16), 관광안내시스템(4.16), 역사문화체험(4.13), 지역주민친절(3.97), 관광코스매력(3.96), 여행경비저렴(3.84), 접근성(3.58), 편의시설(3.50), 음식먹거리(3.43), 숙박시설(3.32), 관광기념품(3.27), 대중교통(3.15)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92이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순위 차이를 보면 1~3위와 13~18위는 변화가 없고, 4~5위(사적지와 문화관광해설사), 7~8위(주차시설과 관광안내시스템), 11~12위(관광코스과 여행경비) 간에 순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92이고 중요도의 전체 평균은 3.63으로 0.29 차이이다.

[표-15] 관광지 선택속성의 기술통계 결과

중요도				항목	만족도			
순위	표준편차	평균	응답수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5	.851	3.92	638	우리나라 사적지	731	4.34	.736	4
1	.886	4.07	631	세계유산 등재	733	4.47	.688	1
2	.865	3.99	632	자연경관 매력적	724	4.42	.731	2
6	.860	3.89	629	인문경관 우수	724	4.24	.781	6
9	.888	3.79	628	역사문화 체험	730	4.13	.870	9
12	.884	3.61	628	관광코스 매력	721	3.96	.891	11
16	.955	3.16	593	숙박시설 양호	686	3.32	1.030	16
15	.922	3.23	597	음식먹거리 양호	701	3.43	.991	15
14	.893	3.29	602	휴식편의시설 양호	701	3.50	.962	14
13	.941	3.39	619	접근성 양호	722	3.58	1.025	13
8	.918	3.83	625	주차시설 양호	730	4.16	2.091	7
18	1.045	3.00	613	대중교통 편리	705	3.15	1.120	18
4	.977	3.95	623	문화관광해설사	726	4.32	.909	5
7	.895	3.84	625	관광안내시스템	728	4.16	.815	7
2	.875	3.99	625	관광종사원 친절	729	4.36	.749	3
10	.875	3.69	615	지역주민 친절	705	3.97	.877	10
11	.871	3.62	618	여행경비 저렴	713	3.84	.895	12
17	1.035	3.10	608	관광기념품 우수	700	3.27	1.107	17

5. 관광만족

(1) 관광만족의 개념 정의

만족이란 소비자 행동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및 소비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반응으로(현은지, 2016),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상황, 개인적인 요소 등에 영향을 받는다(Zeithaml & Bitner, 2000).

Oliver(1981)는 만족을 사전 기대와 소비 경험의 불일치를 통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인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Kotler 등(2010)은 만족을 ‘고객의 기대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의 만족이란 사전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성과 간의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으로(Tse & Wilton, 1988), 기대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최용훈, 2008). 그리고 감정적 측면에서 만족이란 구매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행동이나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Westbrook, 1987).

관광산업에서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관광만족에 관심과 연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Pizam, Neumann & Reichel(1978)은 관광만족을 ‘관광자가 미리 갖고 있던 신념인 관광지에 가졌던 기대와 선택된 대안인 실제 경험 간 상호작용의 결과 간의 일치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Jacob & Ragheb(1980)은 ‘관광객이 관광 활동을 위해 지불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비용에 대해 관광활동 경험으로부터 얻은 주관적 효용 또는 편익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관광만족은 일반 소비활동과 다르게 관광행동의 총경험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므로, 클로슨(Clawson)은 관광의 총경험을 사전계획과 구상단계인 기대감(anticipation), 현지로의 여행(travel to), 관광지의 경험(on-site experience), 귀로여행(travel back), 귀가 후의 회상(recollection) 등의 다섯 단계가 일괄적으로 소비되는 하나의 패키지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사현, 2008). 따라서 박은경 등(2014)은 관광만족을 관광하는 동안 관광객의 정서와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목적지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며, 관광목적지에 관한 관광자의 호감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Noe(1987)는 관광만족의 측정에 대한 접근방법을 동기적 접근(여가활동을 기본으로 얻는 기본적인 욕구, 동기, 개인의 경험 등으로 확인), 불일치적 접근(관광객의 기대와 실제 관광지에서 확인하는 평가와의 차이), 쾌락론적 접근(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기여하는 여가의 필요성)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관광만족은 관광지의 교통, 상업적 서비스 및 안전시설과 같은 물리적 특성과 관리유형 및 수준, 관광객의 사회·문화적특성과 휴식 신념, 여가활동과 관련된 상황은 물론 무형적 상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을 입증하였다.

관광만족은 사회·경제적특성과 문화적 영향 및 개인의 태도, 선호, 동기 등에 따라 다양하고, 특히 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 신뢰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측정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Jacob & Ragheb, 1980).

관광만족의 측정요인과 세부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16] 과 같다.

[표-16] 관광지 선택속성의 기술통계 결과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Jacob & Ragheb (1980)	여가관광	만족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미적 만족
박창규 (1998)	주제공원 애버랜드	만족	이곳 방문에 만족, 이곳 방문으로 행복, 이곳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
김채욱·송운강 (2007)	국내관광 경험	관광만족	여행을 통한 기쁜 생각, 나 자신의 삶의 개선, 여행목적 달성과 풍요로움
이정순 (2008)	한중일 관광활동	관광만족	관광활동의 풍요성, 관광활동의 위락성, 여행 목적 달성, 관광활동의 가치성, 관광활동 후 진취성, 관광활동의 전반적 만족
정민채 (2010)	역사문화 유적지 (강화, 부여, 경주)	방문 만족도	역사문화지식 욕구 충족, 한국 문화유적지 고유성과 정체성을 가짐, 투자한 시간과 노력보다 관광 만족, 유적지관광 소요비용 적절, 추억과 낭만의 공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한응범 (2010)	설악산 관광지	관광만족	여행에 의미가 있음, 여행은 가치 있는 일, 이번 여행은 기대만큼 만족
오성수 (2013)	SNS 관광정보	관광만족	관광 전반의 만족, 관광지 전반적인 만족, 관광경험 전반적인 만족
박혜영 (2015)	부산 관광지 (중일 시니어 관광객)	관광만족	전반적으로 여행만족, 소비한 비용이 아깝지 않은 정도로 만족, 기대했던 것 이상 만족, 전체적인 관광스케줄에 만족
박선심 (2016)	광주·전 남관광지	관광만족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음, 나의 결정에 만족, 이 관광은 현명한 선택, 이 관광은 좋은 경험, 이 관광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음
김구·양용호 (2020)	제주문화 관광지	관광만족	매력 만족, 서비스 만족, 시설 만족
홍란지 (2021)	한국의 4대 궁궐	결정만족 활동만족 감정만족	고궁관광이 현명한 선택, 고궁관광 결정에 만족, 문화유산관광이 좋은 경험,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음, 기대보다 만족, 고궁경험 행복, 고궁경험에 만족, 추억을 만듦
최영진(2021)	세계유산 수원화성	관광만족	관광지 선택 잘함, 기대보다 좋음, 관광느낌이 좋음, 관광체험의 전반적인 만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 방문객의 관광만족의 측정도구로, 기대보다 만족, 경제적 만족, 추억 낭만, 이미지가 좋음 등 4개 항목을 선정하고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서원 방문객의 관광만족 분석

전반적인 만족도 4개 변수들의 측정값에 포함된 오차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751개의 유효케이스가 사용되어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909로 나타나고, 4개 항목에서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높아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제거할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 만족도의 평균값이 제일 높은 것은 이미지로 4.36이고, 다음으로 기대보다 만족(4.23), 추억 낭만(4.22), 경제적 만족(4.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7] 전반적인 만족도 기술통계 결과

항목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크론바흐 α	문항제거 시 α	비고
기대보다 만족	755	4.23	.769	2	.909	.873	
경제적 만족	752	4.15	.741	4		.893	
추억 낭만	754	4.22	.781	3		.875	
이미지 좋음	753	4.36	.664	1		.886	

6. 행동의도

(1) 행동의도의 개념 정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에 만족을 느끼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구매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매했던 제품의 이익을 얘기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 후 경험인 제품평가와 감정, 그리고 만족이나 불만족들은 서로 간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가진다(Haim & Richard, 1993).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은 소비자가 지각한 가격과 지각한 서비스품질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재구매의도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으며, 재구매에 따른 고객 유지는 기업의 사명과 직결되는데(Bitner, 1990), 그 이유는 기존고객의 유지가 새로운 고객의 창출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Christopher, Payne & Ballantyne, 1991).

행동의도란 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런 행동의도는 경제적 행동의도와 사회적 행

이와 같은 소비자 행동의도와 유사하게 관광자들은 여행상품이나 관광지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만족하게 되면 관광지를 재방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등의 행위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에 대해 이재곤·이규상(2012)은관광에서의 행동의도를 소비자의 구매의도 개념으로 접근하여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라고 정의하였으며, 박류바(2011)는 관광객의 만족의 결과변수인 행동의도를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로 제시하였다.

Fridgen(1991)은 재방문의도란 만족한 관광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관광마케팅과 직접 연계될 수 있으며, 잠재 관광객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재방문의도는 관광지의 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물리적 속성 및 감성적 속성들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 자극을 주어야 재방문의도가 높아진다(Huang & Hsu, 2009).

행동의도의 또 다른 추천의도란 친지나 타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방문한 관광지를 추천하는 등의 구전의향을 보유한 정도를 의미한다(이미경, 2007). 추천의도의 형식인 구전(Word Of Mouth)은 소비자들과의 개인적인 대면 관계인 가족, 친구, 지인 등에서 나타나는 정보교환 현상이다(Brown & Reingen, 1987). 관광자는 만족을 느끼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 감동, 관광지에 대한 좋은 홍보를 하면서 방문한 관광지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고(이유재, 1997), 불만족을 느낀 관광자는 부정적 구전을 전하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 구전은 불만족이 판매자에게 기인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Richins, 1983).

행동의도의 측정요인과 세부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행동의도의 요인과 측정도구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Gitelson & Crompton (1984)		재방문의도	위험성 · 불확실성 감소, 정서적 유대감, 다른 사람에게 소개, 사회적 행동, 지난번 방문 때 미처 경험하지 못한 새로움 추구
이정아 (2014)	서울 5대 고궁	행동의도	고궁 다시 방문, 고궁 방문을 위해 노력, 우선적으로 방문, 타인에게 추천, 조언을 구하면 추천, 주변인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김용재 (2015)	대구·경북 서원	행동의도	다시 방문, 서원체험 적극 추천,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후이비쉬안 (2018)	시안문화유산 관광지	행동의도	다시 방문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
김묘정 (2018)	김해 가야테마파크	행동의도	주변인에게 추천, 주변인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정보를 SNS로 알림, 재방문 계획, 기회되면 재방문
EI EI CHO MYET THWAL (2019)	미얀마 바간	재방문의도 추천의도	기회가 되면 재방문, 바간을 먼저 선택, 경비 증가해도 방문, 재방문가능성 높음, 주변인에게 호의적인 말, 관광목적지로 바간 소개, 적극 추천, 주변인에게 추천

연구자	관광지	요인	요소
안주석 (2020)	경복궁	행동의도	기회가 되면 계속 방문, 가까운 시일 내에 재방문, 친구 이웃에게 추천, 긍정적인 말(구전)
Duan Zhiwei (2020)	중국 헤베이성	행동의도	관광의도가 있음, 관광계획이 있음, 관광을 위해 노력, 기회가 있으면 먼저 선택, 다시 방문
최영진 (2021)	세계유산 수원화성	추천의도 재방문의도	회의적으로 이야기, 가족·친지에게 추천, 정보를 주변 인과 공유, 이곳 적극 추천, 다시 방문, 가족·친구와 재 방문, 지속적으로 재방문, 다른 세계문화유산 방문
박두수 (2021)	한탄강 세계 지질 공원	행동의도	유네스코 관광지 재방문, 지속적으로 재방문, 주변인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함, 주변인에게 유네스코 관광을 추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서원 방문객의 행동의도의 측정 도구로, 한국의 서원을 추천, 다른 서원을 추천, 한국의 서원을 방문, 다른 서원을 방문, 이번 서원을 다시 방문 등 5개 항목을 선정하고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서원 방문객의 행동의도 분석

행동의도 5개 변수들의 측정값에 포함된 오차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747개의 유효케이스가 사용되어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900으로 나타나고, 5개 항목에서 삭제된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높아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제거할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동의도의 평균값에서 제일 높은 것은 방문한 서원을 추천하겠다가 4.23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한국의 서원을 추천하겠다(4.15), 지금 서원을 재방문(4.10), 한국의 서원을 방문(4.05), 기타 다른 서원을 방문(3.99) 나타나고 있다. 전체 평균은 4.10이다.

여기서는 행동의도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지만 추천의도가 재방문의도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행동의도 기술통계 결과

항목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크론바흐 α	문항제거 시 α	비고
지금 서원을 다시 방문	755	4.10	.797	3	.900	.891	
한국의 서원을 방문	755	4.05	.846	4		.877	
기타 다른 서원을 방문	747	3.99	.881	5		.882	
지금의 서원을 추천	755	4.23	.724	1		.879	
한국의 서원을 추천	755	4.15	.798	2		.862	

IV. 한국의 서원 방문객을 위한 해설 방향

1. 방문객 성향에 맞춘 문화유산관광 해설

(1)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광 성향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남녀 간 차이가 별로 없고, 50대 이상이 약 50%이며, 기혼자가 76%로 연령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원 분포상 경상도(42.7%) 주민이 많고,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13.6%로서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직업을 보면 사무직 등 직장인이 많고 전업주업은 16.6%, 학생은 8.9%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400만원 이하가 44.2%로 제일 많고 1,000만원 이상도 6.5%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서원 방문객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나이가 많으며, 직업을 가져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남녀 차이가 없음)로서, 유명관광지와 달리 수도권 방문객이 많지 않음

서원 방문객의 관광형태 특성을 보면, 서원이 최종목적지인 방문객이 1/3정도(67.2%)이고 현재 서원의 재방문자는 60% 미만인데 비하여 한국의 서원(9개 서원)을 방문한 경험자는 71.2%이다. 방문 목적은 순수관광(58.2%) 이외에도 답사(26.8%)와 교육(9.7%)이 주를 이루고, 정보원천은 인터넷(34.3%), 친구나 지인(23.3%), 인쇄물(16.1%)의 순서이고, 동반자는 가족(49.4%)과 친구·애인(20.8%)이 많았다.

그리고 방문일정은 당일 여행이 61.7%로 제일 많고 1박 2일(21.6%)과 2박 3일(12.9%)의 짧은 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서원스테이는 병산서원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체류하는 방문객은 서원 근처 민박이나 호텔을 사용하고, 숙박 예약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당일 방문객은 10만원 미만을 사용하고, 숙박 방문객은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요인별 서원 방문객의 평가를 보면, 관광 동기는 세계유산, 전통문화 간직, 여가를 즐김, 자연경관, 스트레스 해소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관광지 선택속성에서 관광 체험 전의 중요도는 세계유산 등재, 매력적인 자연경관, 관광종사원 친절, 문화관광해설사, 사적지, 인문경관 우수, 관광안내 시스템 등의 순서이고, 관광 체험 후의 만족도는 세계유산 등재, 매력적인 자연경관, 관광종사원 친절, 사적지, 문화관광해설사, 인문경관 우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는 사적지와 문화관광해설사 간에 나타나고 있다. 종속변수의 성질을 가진 관광만족은 이미지 좋음, 기대보다 만족, 추억 낭만, 경제적 만족 순이고, 행동의도는 방문한 서원 추천, 한국의 서원 추천, 현재 서원 재방문, 한국의 서원 방문, 기타 다른 서원 방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을 방문한 방문객은 201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원의 자연경관과 좋은 관광서비스와 인문경관의 우수성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관광 경험에 있어서 서원의 가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그 결과 서원의 좋은 이미지를 타인에게 추천하고 여건이 되면 재방문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한국의 서원 문화유산관광 해설의 방향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며 우수한 관광자원이다. 문화유산은 역사적, 교육적, 향수적, 예술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문화재청, 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더 나아가서 인간에 의하여 전승되어 온 유형·무형의 유산을 총칭한다(한명숙, 2006).

[표-20]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

구분		대상	등재건수
세계유산	문화유산	1995년: 석굴암 및 불국사 · 해인사 장경판전 · 종묘 / 1997년: 창덕궁 · 화성 /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연속유산) / 2009년: 조선 왕릉(연속유산: 18개 지역 40기) /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연속유산) / 2014년: 남한산성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연속유산) /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연속유산: 7개 사찰) / 2019년: 한국의 서원(연속유산: 9개 서원)	15
		북한: 고구려 고분군(2004) / 개성 역사기념유적(2013)	
	자연유산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21년: 한국의 갯벌(연속유산: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1997) / 조선왕조실록(1997) /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2001) / 승정원일기(2001)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 조선왕조 의궤(2007) / 동의보감(2009) / 일성록(2011) /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2013) /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 한국의 유교책판(2015) /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2015)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2017)	16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 판소리(2003) / 강릉단오제(2005) / 강강술래(2009) / 남사당놀이(2009) / 영신재(2009) / 제주칠머리당영산굿(2009) / 처용무(2009) / 가곡, 국악 관현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2010) / 대목장, 한국의 전통목조건(2010) /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2010) / 줄타기(2011) / 택견, 한국의 전통무술(2011) / 한산 모시짜기(2011) /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2012) /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 / 농악(2014) / 줄다리기(2015) / 제주해녀문화(2016) /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2018) / 연등회, 한국의 등불 축제(2020)	21
		씨름 : 남북 공동 등재	
지질공원		제주도(2010) / 청송(2017) / 무등산권(2018) / 한탄강(2020)	4
생물권보전지역		설악산(1982) / 제주도(2002) / 신안다도해(2009) / 광릉숲(2010) / 고창(2013) / 순천(2018) / 강원 생태평화(2019) / 연천 임진강(2019)	8
		북한 : 백두산(1989), 구월산(2004), 묘향산(2009)	

세계유산은 중요한 여행지로,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포용적 지역 경제발전,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구상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개발에는 세계유산 안팎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⁵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처음으로 등재된 이후 2021년 현재 15개에 이르며, 이외에도 세계기록유산, 인류 무형유산,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 다양한 자원이 있다.

문화유산의 관람행위는 단순히 방문하여 눈으로 보는 행위를 넘어 오감을 활용하여 몰입 및 체험을 추구한다. 이는 관람객이 문화유산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와 기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문화유산 콘텐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 관람객은 주어진 지식을 문화유산 관람 공간의 공간적 속성과 함께 인지하고 관람 공간을 이동하면서 문화유산 해석·전달하는매체를 통하여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관람하며 공간적 교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유산의 가치 및 보존의식을 인식한다.

따라서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문화유산의 해석 및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관람객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진작시켜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의 서원’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의 방향을 서원의 기능인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제안해본다.

첫째, 제향과 스프릿텔링: ‘선비정신’

- 배향 인물과 관련된 문종의 유래 및 선현의 가치
- 감성과 흥미를 자극하는 스토리 발굴과 개발: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음
- 인성과 리더십 교육: 전통 선비정신을 통해 훌륭한 사회의 지도자로서 성장 도모

둘째, 강학과 스페이스텔링: '이야기가 있는 공간'

-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 장소가 더욱 특별해지는 것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스페이스텔링의 목적
- 방문객에게는 의미있는 추억이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재방문을 유도

셋째, 교류·유식과 스토리텔링: 문학작품(서사구조)을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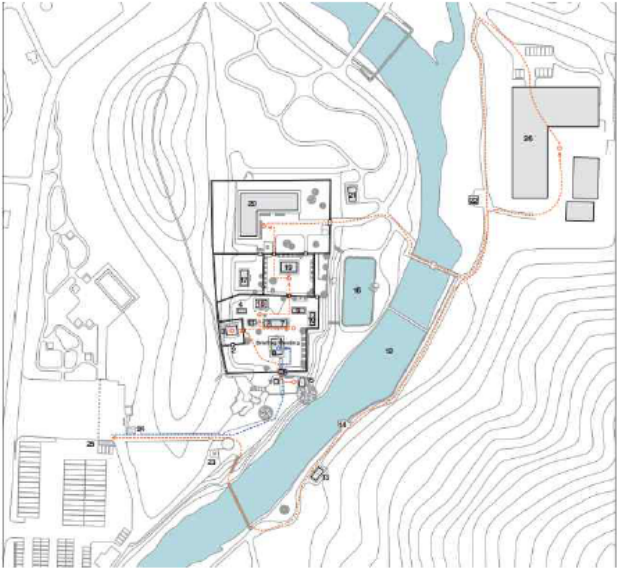
- 문학작품은 사회와 작품, 그리고 작품과 독자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전제되는 역동적인 텍스트
-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의 차이: 수용자의 적극적인 소통행위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성과 비주얼 매체(재현 매체)를 통한 소통행위
- 지식과 놀이란 개념을 도입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관람객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의 놀이적 속성을 반영

5. 이는 또한 유엔세계관광기구가 1999년 채택한 '세계관광윤리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에 부합하는 것이고 2001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것이다. 이 윤리강령의 제4조는 “관광은 인류 문화유산을 이용하고 그 유산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조는 “관광이 지역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 서원 해설 샘플⁶

1	소수서원
단 계	서비스 내용
인사 및 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환영하기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게 될 문화관광해설사 ○○○입니다.” “저는 ○년째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서원 중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예약 내용 확인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 예약 내용을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성명 확인 “○○○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님 오셨습니까?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먼 곳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 현장에서 해설 요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현황 확인(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관람하는지 등) • 해설시간 설명 및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이 원하는 시간대별 코스 선정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주의 집중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집중시키기는 관광객이 해설을 경청하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ip) 1)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하기 5) 다른 유사한 것과 비교하면서 시작하기 2) 자원에 얽힌 유래로 시작하기 6) 관광객을 참여시키며 시작하기 3) 질문으로 시작하기 7) 관광객들에게 해설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말하기 4) 통계로 시작하기 </div> <p>“혹시 오늘 돌아보게 될 세계유산 영주 소수서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서원은 몇 번째 세계유산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9개 서원이 묶인 연속유산입니다.” ※ 한국의 서원 통합안내판을 통해 9개 서원을 간략히 소개 “오늘 여러분은 저의 해설을 통해 9개 서원의 개요와 함께 소수서원이 담고 있는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p>
↓	

6.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2012.2). 주요 문화관광지 해설표준안 과목 샘플

단 계	서비스 내용
해설내용 안내	<p>• 관광객이 어떤 해설을 듣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상황 파악과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해설할 사항의 주요 골격을 설명한다.</p> <p>“해설에 앞서 오늘 관광코스인 소수서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소수서원 출입구 앞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서원 외문인 지도문 앞에는 성생단과 경림정이 있고, 서원으로 들어서면 제향 공간의 문성공묘, 전사청이 있고, 강학 공간에는 강학당, 직방재(일신재), 학구재, 지락재, 영정각을 돌아보고, 유물관을 지나서 서원 밖 유식 공간인 탁청지, 경자바위, 세한대, 다시 경림정(기타 소수박물관)에서 마치는 코스입니다.”(인사 시간 확인한 시간대별 코스 안내)</p> 
해설	<p>• 해설하는 관광자원 각각에 대해 해설을 한다. (해석 선행)</p> <p>Tip)</p> <div><p>1)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3~4개 4) 중간마다 인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 이내 여 청중의 주의를 다시 집중시킴</p><p>2)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 의문 5)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 문, 수사 의문문 사용 6) 전환 문구들을 잘 구사하여 자연스럽</p><p>3) 짧고 선명한 문장을 사용 고 체계적으로 설명</p></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소수서원의 입지: 숙수사지 당간지주, 서원 창립시 불교유물→ 고려시대 사찰2. 성생단의 기능(다른 서원의 사례소개)과 경림정과 경자바위 소개(교류와 유식)3. 문성공묘: 사당의 이름과 위상. 배향자 소개(제향 공간)4. 서원의 배치: 사당과 강당, 동서재의 배치에서 소수서원의 특징(강학 공간) 건축물 편액: 성리학 교육기관의 의미[서원센터 현판 책자(2022발행) 활용]5. 영정각 : 국보 안향선생 영정과 주세붕 및 주자 등 선현의 이야기(성리학 기원)6. 유물관 : 소수의 의미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의미(배치도) 성리학 계보도를 통해 9개 서원의 위상 이야기7. 교류와 유식공간 : 탁청지, 세한대 등 자연의 이치와 수신 방법8. 소수박물관(장시간 코스) : 현판 이야기 등

【참고문헌】

- 강미희(2006). 생태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 척도구축과 여행자유형별 비교분석. 한국학술정보.
- 김사현(2008). 『관광경제학』. 백산출판사.
- 김영국·서보원·안태홍(2011)향토음식 소비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영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5(5): 373-391.
- 노정연·조우제(2011).대구·경북지역다크 투어리즘의 선택속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6(1): 131-148.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9).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 박류바(2011). 관광지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속성에 따른 관광자의 만족, 재방문의도와 추천의도에 대한 연구 : 방한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13). 문화유산관광에서의 진정성이 관광자의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하회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효란(2010).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동기, 만족도 및 재방문에 관한 연구 : 중국 심양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일(2017). 관동팔경의 관광행동에 관한 지불의사와 경제적 가치 추정.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병국·이승곤·박상환·이혁진(2007)세계관광지리. 새로미.
- 이미경(2007). 여행상품 가격유형별 서비스품질과 만족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재(1997). 고객만족 형성과정의 제품과 서비스간 차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1): 101-108.
- 이재곤·이규상(2012).도시관광 행동유형에 따른 도시이미지가 방문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50: 127-149.
- 이정준(2021). 한국방문 대만관광객의 관광동기가 관광지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헌국(1998). 여행사 경영론. 기문사.
- 정의선(2011). 관광학원론. 백산출판사.
- 조명환(1994). 관광동기 연구에 관한 제고찰. 『관광레저연구』. 6, 93-112.
-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2012). 주요 문화관광지 해설표준안 과목 샘플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2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백서』.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2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방문객 관리연구』.
- 한응범(2010). 관광동기로서 Push-Pull요인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UNESCO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문헌】

- Bitner, M. J.(1990). Evaluating Service Encounters : The Effects of Physical Surroundings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54(April): 69-82.
- Brown, J. J., & Reingen, P. H.(1987). Social ties and word of mouth referral behavior. *Consumer Research*, 14(3): 350-362.
- Christopher M., Payne A., & Ballantyne, D.(1991). *Relationship Marketing*, Butterworth-Heinemann, Oxford.
- Driver, B. L. (1990). The North American Experience in Measuring the Benefits of Leisure. In Smith, E. H. (Ed.), *Proceedings, National workshop on measurement of recreation benefits*(pp.1-57). Bandoora Australia: Philip Institute of Technology.
- Fishbein, M., & Ajzen, I. B.(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Fridgen, J. D.(1991). *Dimensions of Tourism* : East Lansing, Michigan: Educational Institute of the American Hotel & Motel Association.
- Haim, M. & Richard L. Oliver(1993). Assessing the Dimensionality and Structure of Consumption Experience: Evaluation, Feeling,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December), forthcoming.
- Huang, S. S. & Hsu, C. HC. (2009). Travel motivation: linking theory to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4): 287-295.
- Inskeep, E.,(1991). *Tourism Planning :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Jacob, B. B. G. & Ragheb, M. G.(1980). Recreation Non-participation: Variables Related to the Desire for Now Recreational Activities, *Recreation Research Review*, 10: 5-12.
- Kotler, P., Bowen J. T., & Makens, J. C. (2010). *Marketing for Hospitality and Tourism*, Fifth Edition.
- Middleton, V. T. C., & Clarke, J.(2001). *Marketing in Travel and Tourism*. UK: Butterworth-Heinemann.
- Myers, J. H. & Alpert, M. I.(1968), Determinant Buying Attributes Meaning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keting*, 32(3): 13-20.
- Noe, F. P.(1987). Measurement Specific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9(3): 155-166.
- Oliver, R. L. (1981),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atisfaction Processes in retail Settings, *Journal of Retailing*, 57: 25-48.

【참고문헌】

- Pizam, A, Neumann, Y. & Reichel. A.(1978). Dimensions of tourist satisfaction with a destination ar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5(3): 314-322.
- Plog, S. C.(1972).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14(5): 55-58.
- Richins, L. M. (1983). Negative word of mouth by dissatisfaction consumer : A pilot stud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 127-146.
- Szymanski, D. M. & Henard, D. J.(2001). Customer satisfaction : A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9(1): 16-35.
- Tse, D. K., & Wilton, P. C. (1988). Models of consumer satisfaction formation: An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 204-212.
- Westbrook, R. A.(1987). Product/consumption-based affective responses and postpurchase process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4(3): 258-270.
- Zeithaml, V. A. & Bitner, M. J.(2000). *Services Marketing, Integrating customer focus across the firm*, Madison : McGraw-Hill.

V.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형식과 절차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형식과 절차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이동구
안동 도산서원 前별유사

I. 시작하며

서원이란 용어는 중국 당나라 때 궁중의 서적을 편찬하거나 보관 및 관리하는 곳인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서(藏書)기능만 수행했으나 후기에 이르러 강학을 수행하였고, 송나라 때 사립학교에서도 서원이란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제향기능까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조선 태종 때부터 서원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강학시설과 기능이 미비하였습니다. 중종 때 1543년 백운동서원이 강학과 존현에 대한 시설과 기능을 완비하여 창설함으로서 최초의 서원다운 서원이 되었습니다. 7년 후 명종 때 사액을 받아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원은 선비를 기르는 양사(養士), 선현을 추모하는 존현(尊賢), 향촌사회의 계도(啓導), 소장 서책을 활용하는 도서관(圖書館)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양사(養士)는 기초학력이 구비된 유생을 선발(도산서원 3년마다)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합숙 또는 비합숙으로 경서 등을 탐독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정치 사회가 변화되면서 제도화된 학교교육으로 변화되었고, 존현(尊賢)만은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점점 쇠퇴해 가는 실정이고,

향촌사회 계도는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역할이었으나 조선조 말 지방민에 대한 토색이나 하고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도서관 기능은 특정연구자들에게는 유용하지만 일반 대중은 관심 밖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시행되고 있는 존현부분이 서원의례라는 이번에 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원의례는 선현을 존경하고 추모하며 학문과 덕행을 계승하고, 서원에서의 단체 활동에 질서를 확립하며 참여하는 개인들은 스스로의 심신을 수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원의례는 중국 문묘 석전을 도입하여 조선의 학교례가 되어 성균관과 향교에서 시행되었고, 1543년 백운동서원이 창설되어 학교례와 민간의 속례(俗禮)를 섞어 축소시행 했으나, 1549년 퇴계선생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의례로는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학교례를 축소 또는 개선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행된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례가 이후 창설되는 서원의례의 전범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와 그 형식과 절차를 도산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백운동서원의 제향의례(조선서원의 전범)

1. 개요

제향의례는 향사례입니다. 줄여서 향사라고 합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서원에 모셔진 선현을 추모하고 그 선현의 학문과 덕행을 배우고 익혀서 계승하겠다는 다짐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때 국가감에 공자를 모시면서 도입한 석전의례가 조선의 성균관과 향교에 이어져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서원에서는 1543년(중종38) 백운동서원을 창설하여 문성공묘에서 처음 향사례가 봉행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학교례(성균관과 향교에서 시행하는 석전례)를 축소하고 민간에서 행해지는 제례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1549년(명종4) 당시 풍기군수였던 퇴계선생이 학궁(공부하는 곳)에서는 고려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의례가 이후 창설되는 서원의 전범(典範)이 되었습니다. 퇴계선생이 고친 내용을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 진설도 개정

<改正前>慎齋手筆笏記陳設圖¹



<改正後>退溪手筆笏記陳設圖²



1. 紹修書院. 紹修書院誌. 2007. 298쪽

2. 退溪手筆, 앞의 책.

서원을 창설한 신재선생(周世鵬)의 진설도는 향교 석전(釋奠)의 2보(簋)2궤(簋) 8변(籩)8두(豆) 1조(俎)를 2보(簋)2궤(簋)는 그대로 하고 변(마른 음식)과 두(젖은 음식)가 좌우 대칭이 되지 않고 밀과는 학궁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하여, 퇴계선생은 두에 밀과(密果)를 얹어고 녹해(鹿醢)를 올리고 변에 황율(黃栗)을 얹어고 어숙(魚鱸)을 올려 두에 절인 것, 변에 마른 것을 올려 좌우 대칭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유산 9곳 서원의 진설(붙임 1 참조)을 살펴보면 보와 궤를 각각 1그릇으로 줄이고 변과 두와 조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돈암서원만 3변3두를 쓰고 있어서 그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제물은 보궤와 변두에 담은 원칙(마른 것과 젖은 것 등)은 변함이 없으나 품목이 조금 다른 곳도 있습니다. 현재의 변경된 진설내용을 뒤의 ‘의례절차’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3. 향례절차(홀기 등) 개정

퇴계선생은 향례절차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①서원은 석전성례(釋奠盛禮 : 菜를 담아 幣를 올리는 성대한 의식)이므로 영신례(迎神禮)와 헌작례(獻爵禮)와 구분되어야 하고, ②음복(飮福 : 복을 마심)을 먼저하고 수조(受胙 : 조를 받음)를 하여야 하며, ③수조(受胙) 후에 수희백례(受禧)를 하고 철변두를 한 다음 사신배례(辭神拜禮)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운동서원의 향례절차(홀기)에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신례(迎神禮)는 초헌관이 먼저 묘우에 들어가 상향(上香)과 전폐(奠幣)를 하고 제자리에 왔다가 다시 묘우에 들어가 헌작례(獻爵禮)를 하도록 구분하였고, 수조를 먼저하고 음복을 하는 것을 순서를 바꾸어 음복을 먼저하고 수조를 하도록 했으며, 수조 후에 수희배례(受禧拜禮)를 넣고 철변두(撤籩豆) 후에 예를 마침을 아뢰는 사신배례(辭神拜禮)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홀기의 절차 외에도 건물 및 재정상태의 검열은 폐지하였습니다.

별도 표에 세계유산 9곳 서원의 의례절차(붙임 3 참조)를 비교하였습니다. 향사례 봉행일자가 소수와 병산을 제외하고 모두 중춘(2월)과 중추(8월)의 중정일(中丁日)입니다. 초정에는 성균관과 향교의 석전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전에 참례하기도 하지만 공자를 모시고 있다는 점이 그날을 피한 것으로 보이고 소수서원은 계춘(3월)과 계추(9월) 상정일로 정한 것은 신재(주세붕)께서 서원에 모신 문성공(휘 안향)이 청명과 중양의 아름다운 계절에 이곳(죽계천변)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유사한 소수서원 옆에 모셔진 금성단(錦城壇 단종 숙부 금성대군 제단)의 향사와 겹치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병산서원의 경우는 스승을 모신 도산서원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안동지방의 다른 서원들도 도산서원 향사일 이후로 정해져 있음은 병산서원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복식(服飾)은 처음에는 흑단령에 갓이나 유건을 착용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의 복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옥산과 도동서원은 현재도 흑단령은 아니어도 검은 도포를 착용합니다. 나머지 의절은 서원마다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남계와 도동서원은 영신례와 헌작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기도 합니다.

III. 제향의례 형식(도산서원과 퇴계종택 가묘와 비교)

1. 목적

서원은 후학들이 선현을 숭모(崇慕)하며 학덕을 계승하여 스스로를 수양하고자 하여 후학들이 모시고, 가묘는 후손이 조상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리며 추모를 하고자 하여 자손이 모십니다.

2. 대상

서원에는 가르침을 주신 선현을 모십니다. 한 서원에 여러 선현을 모시기도 하고, 특정 선현을 여러 서원에서 모시기도 합니다. 가묘에는 오직 조상을 종택에서만 모십니다.

3. 주사자

서원에는 유림에서 정하는 후학이 향사 등을 주제하나, 가묘에는 오직 종손이 주사자가 됩니다.

4. 제수(제물)

서원에는 서원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15가지이나, 가묘에는 집집마다 다르고 20가지 이상 됩니다.

5. 절차

서원 향사는 요약하면 8가지 절차로 진행하는데, 가묘의 기제사는 12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IV. 제향의례 절차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제향의절은 전체적인 맥락을 비슷비슷하나 내용과 용어 등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소속된 도산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산서원에는 존현의례가 정기적으로 향사(춘·추),정알(정월 초5일), 향알(매월 초하루, 보름)이 있고, 수시로 고유(사안이 있으면), 알묘(일몰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향사례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차제(差祭 : 제관차출)

당월(2·8월)초하루에 3임(任: 상유사, 재유사, 별유사)이 향알을 하고 아침식사 후 전교당에 개좌하여 헌관과 축관, 집례에게 망기(望記: 임무수행에 선임됨을 알림)를 작성하여 고목(告目: 향사일정과 입재 시각을 알림)과 함께 보내고, 여러 유생들에게는 향사 집사로 차출되었음을 알리는 회문(回文)을 작성하여 회람토록 하였으나, 요즘은 모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향사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주(祭酒)를 담그고, 제물(祭物)을 준비하고 참례자의 숙박을 위한 식재료도 확보하고 서원 내외를 청결히 합니다.

옛날에 제주는 서원에서 담가서 썼고, 제물은 관할 관아(官衙)에서 준비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경주지방에는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물을 서원에서 준비하지만 향사 전날 시장 또는 간부가 서원에 방문하여 제물대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향사제물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통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망기를 받거나 회문으로 통고를 받은 제관은 그날부터 재계(齋戒)를 하여야 합니다. 재계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경건히 향사를 모실 선현의 학문과 덕행 등을 생각하고 복습하여 향사에 결례가 없도록 복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살생, 시비, 음주, 사음(邪淫)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정성스런 마음으로 향사를 모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입재(入齋)

옛날에는 향사 2일전 오후까지 서원에 왔는데, 2009년 이후부터는 1일전 오전 10시까지 복장을 갖추어 반드시 진도문(進道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복장이 불량하거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유 불문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향사를 마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합니다. 서원 내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갓 또는 유건과 도포를 벗어서는 안됩니다. 쓸데없이 떠들거나 다른 방에 함부로 들락거리거나 어슬렁거리어도 안됩니다. 조용히 재계하면서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3. 정재일 알묘(整齋日 謁廟)

입재날 11시에 전원이 상덕사에 알묘를 합니다. 선현께 인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내일 향사를 봉행한다고 아뢰고 참례자 모두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향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개좌하여 상읍례를 하고 성덕사의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초헌관이 사당에 들어가 분향하고 나오면 다 같이 재배를 하고 예를 마칩니다.

4. 분정(分定)

분정은 향사를 봉행할 때 해야 할 업무를 서로 나누어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재일 알묘를 마치고 전교당에서 개좌하여 자리에 앉아 차제 때 망기를 보낸 명부와 입재 때 기록한 시도록을 참고하여 업무를 나누고 분정판에 기록하여 모두에게 확인시켜 틀림이 없으면 전교당 서쪽벽에 게시합니다. 다른 서원에서는 분정판에 기록하여 유사(有司)가 큰 소리로 창(唱)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창방(唱榜)이라고 합니다.

도산서원에는 2002년 이후부터 여성을 상덕사에 출입을 허용하였고, 2020년 가을 향사에 우리나라 서원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초헌관을 모셨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센터 이배용 이사장님이 셧습니다. 2019년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한 공헌도 있었지만 한국 정신문화를 이끄시는 큰 어른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서원에서도 초헌관으로 향사에 참례하고 계십니다.

세계유산 서원의 분정내역을 보면 도산서원에서는 업무는 13가지이고 인원은 15명 정도입니다만, 업무가 20가지나 되는 서원도 있습니다. (붙임 5 참조) 표에 한자(漢子)로 된 용어를 한글로 옮겨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축봉치(寫祝奉置)

축문을 베껴서 축판에 붙여 사당에 비치하는 일입니다. 분정이 끝나면 축관이 사당에 들어가서 축함(祝函)을 전교당에 옮겨 와 축문을 베껴 초헌관이 확인한 다음 축판에 붙여서 축함에 넣어 상덕사의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축함이 전교당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일어서서 축함을 향해 읊을 합니다. 축문 내용이 서원마다 다르고(붙임 6 참조) 초헌관과 축관이 사당 앞 축대 또는 사당 안에서 사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독약(讀約)

백록동규와 향립약조와 남전여씨향약을 유사가 중앙에 나아가 큰소리로 읽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퇴계선생 관련 행사에서 식사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도 퇴계선생 유적지 모임

에서 점심식사 전에 반드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선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다짐이며 향촌질서와 풍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백록동규는 주자가 지은 중국 백록동서원 원규이고, 향립약조는 퇴계선생이 지은 예안향약이고, 남전여씨향약은 중국 송나라 때 여씨집안의 규약입니다.

7. 점심개좌

정재일 알묘와 분정과 사축을 마치면 독약을 하고 전교당에서 모두 점심식사를 합니다. 평소에는 참례자 모두 전교당에서 상(床)을 받아 함께 식사를 했는데, 2020년 추향 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반 유생들은 자리를 옮겨 식사를 했습니다.

8. 간품례(看品禮)

점심식사 후 2시경에 간품례가 있습니다. 향사례에 쓰일 제물과 시생(豕牲)을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서원마다 용어와 행례(行禮)를 다르게 시행됩니다. 도산서원에는 초헌관 이하 모두가 전교당 마당에 차례로 서서 제물과 시생을 맞이하여 제물은 전사청에 봉치하고 시생은 마당 가운데에서 검사를 합니다. 초헌관이 시생 옆에 서면 재유사가 앞에서 시생을 바라보고 읊을 하며 ‘충’(充: 살이 찼습니까)하면 초헌관이 읊을 하며 ‘돌’(臄: 살이 찼네)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세 번 반복하고 전사청에 봉치하고 상읍례를 하고 파좌를 합니다.

변과 두에 담을 제물은 사슴고기의 절임과 말린 것은 소고기 육회와 포로 바뀌었고 물고기 절임과 말린 것은 전어젓갈과 문어포로 대체하였으며 시생은 기록에 의하면 꿩 → 닭 → 염소 → 돼지(원내도살) → 돼지(원외도축)으로 변천되었습니다.

병산서원의 경우는 ‘제수검치’라고 하는데 준비된 제수 전부를 고직사 마루(본래는 전사청인 듯)에 진열하여 초헌관과 집례가 들어가서 홀기첩에 있는 품목과 수량을 읽으면 초헌관은 가부를 확인하고 진설에 착오 없도록 각 품목마다 한지에 품명을 써서 봉하여 두었다가 진설을 합니다.

9. 척기례(滌器禮: 제기점검)

간품례를 마치면 재유사는 전사청에 가서 각종 제기의 수량과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각 제기의 모양과 규격과 수량은 앞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이 가운데 소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희준(犧樽)이라고 하는데 도산서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기가 많이 상해서 1995년에 일괄하여 제작 구매할 때 같이 구입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남계와 도동서원에서는 소와 코끼리 모양의 술통을 사용합니다.

10. 봉준례(封樽禮)

척기례가 끝나면 곧 전사청에서 제물도 확인하고 제주를 준(樽)에 담아 봉하는 의식입니다. 재유사가 전사청에 나아가 방에 봉치한 제물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여 봉하고, 마루에 서향으로 앉으면 도사령이 준(술독)과 술을 가져와서 원위와 종향위 독에 수량을 세어서 담고 한지로 봉합니다. 원위는 5말, 종향위는 3말을 담는데 이때 말(斗)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그릇으로 술을 떠서 준에 붓습니다. 정해진 수량으로 준에 담아 봉하고는 남은 술로 시음을 하고 일어서서 술독을 향해 읊을 하고 마칩니다.

11. 습례(習禮)

봉준례까지 끝나면 대체로 오후 4시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습례를 합니다. 습례는 분정된 업무를 결례 없이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참례자 각자가 정해진 임무와 위치를 숙지하여 홀기의 순서에 따라 행동을 연습합니다. 습례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선현을 극진히 받들기 위함입니다.

12. 석미례(浙米禮)

습례를 마치고 쉬었다가 저녁식사 후 7시경에 향사에 쓰일 맏쌀과 기장쌀을 이르는 절차입니다. 준비된 맏쌀과 기장쌀을 자배기(깊이가 낮고 입구가 넓은 웅기항아리)에 담아 9번 물을 부어 손을 넣지 말고 돌려가며 헹구어 들어오는 의례입니다.

옛날에는 재유사가 인솔하여 나룻배를 타고 서원 앞 낙동강 가운데 정박하여 실시했으나 지금은 강물이 오염되었고 안동호가 되어 위험해서 정문 앞 수도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헌관 이하 모두다 전교당 앞마당에 도열하여 개좌를 하여 제미(祭米)가 들어오면 제미를 향해 읊을 하고 전사청에 봉치하고 재유사가 돌아오면 파좌 상읍례를 하면 향사 전일 절차가 끝납니다.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 준비된 야화(夜話: 밤참)를 하고, 재유사가 헌관들에게 사관(저녁인사)을 드리고 나면 취침하게 됩니다.

13. 진설(陳設)

향사 당일 오전 9시에 재유사가 홀기첩을 가지고 사당에 들어가서 옮겨온 제물을 홀기첩의 진설도를 확인해 가며 진설을 합니다. 옛날 새벽(축시, 1시경)에 봉행할 때에는 전날 밤 11경에 진설을 했습니다. 진설은 각 서원마다 비슷하나 돈암서원이 3번 3도로 특이합니다.(붙임 2 참조)

조(俎)에는 소수서원을 제외하고는 돼지를 쓰고 있습니다. 필암서원에는 묘우 앞에 계생비(繫牲碑)가 있어서 옛날에는 소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학맥에 따라 제물의 품목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진설이 완료되면 모든 집사가 홀기에 의하여 실제와 같이 습례를 하여 숙지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14. 개좌(開座: 자리를 열다, 즉 의례를 시작함)

낮 11시부터 본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축시(丑時: 새벽 1시경)에 개좌를 했으나 2009년부터는 오시(午時: 낮11시부터)에 시작합니다. 헌관들은 예복을 갖추고 전교당 동벽에서 서향으로 모든 집사와 참례자는 전교당 앞 뜰에 서로 마주보고 도열하여 도사령의 “상읍례 아뢰오”를 세 번 외치면 상읍을 하고, 2020년부터 ‘도산12곡’을 제창한 다음, 집례가 먼저 사당 뜰에 들어가서 창홀(唱筓: 큰소리로 읽음)하면 따라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15. 점시진설(點視陳設)

먼저 모든 집사(임무가 정해진 유생)는 신문 밖으로 나아가면 초헌관은 사당에 들어가서 진설상태를 살피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문 밖으로 나가면 집사는 위패의 독(櫝)과 보궤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다른 헌관들도 신문밖에 나아갑니다.

16. 제집사 각취위(諸執事 各就位)

모든 집사는 사당 뜰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손을 씻은 다음 정해진 자리에 나아갑니다. 헌관들은 사당 뜰에 들어와서 재배를 합니다. 이 재배는 선현을 뵈는 의식입니다. 가정의 제사에서 참신(參神)과 같습니다.

17. 영신례(迎神禮)

이 의례는 선현을 맞이하는 절차입니다. 가정의 제사에서 강신례(降神禮)와 같습니다. 초헌관이 항상 앞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태워서 제상에 올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본래는 향을 올린 다음 폐백(명주)을 올려야(전폐례) 하는데 도산서원에는 1868년(고종5. 무진)에 나라에서 감(減)했다고 하여 생략하고 있습니다. 병산서원을 제외한 다른 서원에는 옷감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의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례가 당초 백운동서원에 초헌례와 같이 행해져서 퇴계선생께서 학교례와 맞지 않다고 하여 구분하여 시행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남계와 도동서원에서는 지금도 구분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서원은 비교적 일찍 창건(남계 1552년, 도동 1568년)하여 의절을 개정하지 않은 듯하고 묘호(廟號: 사당이름)도 없습니다.

18. 헌작례(獻爵禮)

초헌관은 다시 원위 존소(술독)를 확인하고 묘우에 들어가 항상 앞에 꿇어 앉아 술잔을 올리고 다시 엎드리면 축관이 헌관 왼편에 나아가 꿇어 앉아 축문을 다 읽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른

헌관들도 차례로 손을 씻고 초헌관과 같은 방법으로 향상 앞에서 잔을 드리고 내려옵니다. 이때는 축문 낭독이 없으며 분헌관은 종향위에만 잔을 드립니다. 다른 서원에서는 헌작례가 끝나면 헌관들이 내려와서 재배를 하는데 도산서원에서는 헌작 후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남계와 도동서원의 경우 헌관이 작을 받아 모사에 조금씩 세 번 붓고 작을 올립니다. 남계서원은 또 작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재배를 하고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19. 음복수조(飮福受胙: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는다)

다시 초헌관은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 앉아 복주와 조육을 받는 절차입니다. (집사는 복주를 덜어오고 → 조육도 가져온다 → 초헌관은 음복자리 북향으로 앉고 → 축관은 헌관 왼쪽에서 → 잔을 헌관에 주고 → 헌관은 마시고 → 축관은 빈잔을 받고 → 조육을 헌관에 주고 → 헌관은 받고 → 다시 축관에 준다) 이 절차를 마치고 초헌관이 제자리에 오면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헌관들만 재배를 하거나 초헌관을 제외하고 다른 헌관만 재배를 하기도 하고 아예 재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계선생은 백운동서원 의례를 개정하면서 이때 자리에 있는 모두(집사를 제외한 참례자)가 재배를 하도록 하여 수희배(受禧拜: 복을 받는 절)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20. 철변두(撤籩豆)

행례가 끝나서 진설된 제수를 돌려놓는 의절입니다. 축관은 다시 사당에 들어가서 변과 두를 각 하나씩 돌려놓고 나오면 뜰에 있는 모두가 절을 두 번 합니다. 이 재배는 선현께서 잘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제사를 마칠 때 사신재배와 같습니다.

21. 망예(望瘞: 축문을 묻다)

축문을 땅에 묻는 의절입니다. 옥산서원은 망료(望燎)라고 하고 그 외에는 모두 망예(望瘞)라고 합니다. 도동서원은 사당 서쪽 담장의 태우는 곳에서 태우고 그 외에는 태워서 땅에 묻는데, 도산서원은 축문을 그대로 접어서 땅에 놓고 물을 붓고 기왓장을 덮어 놓습니다. 다음 향사 때 열어보면 녹아서 없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는 초헌관이 묻는 자리에 가서 북쪽을 향해 서면 축관이 축판을 가져와서 초헌관에게 보여 확인한 다음 판에서 축문을 뜯어 접어서 땅에 놓고 물을 붓고 기왓장을 덮고 제자리에 와서 차례로 전교당으로 나갑니다.

22. 파좌(罷座: 의례를 마침)와 제공사(祭公事)

파좌는 모두 전교당에 나와 헌관들은 동벽에서 서향으로 이외 모두는 남북으로 마주보며 도열을

하여 상읍례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제공사(祭公事)를 합니다. 제공사는 모든 집사가 모여 의례 봉행에 결례나 잘못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격려를 하는 자리입니다. 옛날 새벽에 향사를 봉행할 때에는 파좌 후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아침 식사 전에 동재(박약재)에서 하였습니다. 지금은 파좌 직후에 결례유무를 확인을 하고 각 헌관의 소감과 덕담을 듣고 곧 독약(讀約)을 한 다음 음복례 준비를 합니다.

23. 음복례(飲福禮)

음복상이 차려지면 전원이 일어서서 음복개좌를 하고 앉으면 초헌관부터 종헌관까지 순배(巡杯)를 합니다. 이 역시 서원마다 약간씩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배가 끝나고 파좌를 하면 모든 일정이 끝입니다. 대개 12시 30분 정도 됩니다.

이상 도산서원의 향사례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서원과 다른 점은

- ① 퇴계선생이 개정한 백운동서원의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 ② 홀기에 군더더기 없이 함축하였고, 예를 든다면 축문을 읽을 때 도산서원서는 ‘독축(讀祝)’라고 하면 축관이 알아서 위치로 가서 읽고 돌아오는데, 돈암서원 홀기는 축관은 ‘나아가 신위 우측에 축판을 들고 동향으로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축판을 본래 자리에 갖다놓고 돌아온다’. (祝進 神位之右執版東向跪讀之 訖祝還置祝版於故處降復位)와 같이 동작 하나하나를 지시하듯 읽습니다. (붙임 7 참조)
- ③ 청행사. 전폐례. 헌작후 재배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 ④ 어떤 의례든 시작과 마침에 반드시 개좌(시작)와 파좌(마침)의 읍례(揖禮)를 합니다.
- ⑤ 2020년부터는 본 의식 시작 전에 반드시 퇴계선생이 지은 도산12곡을 제창합니다.

V. 마무리

가정의례가 집집마다 같지 않듯이 서원의례 역시 원칙과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의 의절마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400여년간 이어오면서 지역별 학파별로 개선되면서 나름의 전통성을 확보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근대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정치와 사회제도가 변혁되면서 국민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저급문화로 추락한 유교문화는 극히 일부의 계층에서 유지계승되어 왔습니다. 서원의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무너지는 사회질서 정상화에 유교문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서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원은 스스로 선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경모(敬慕)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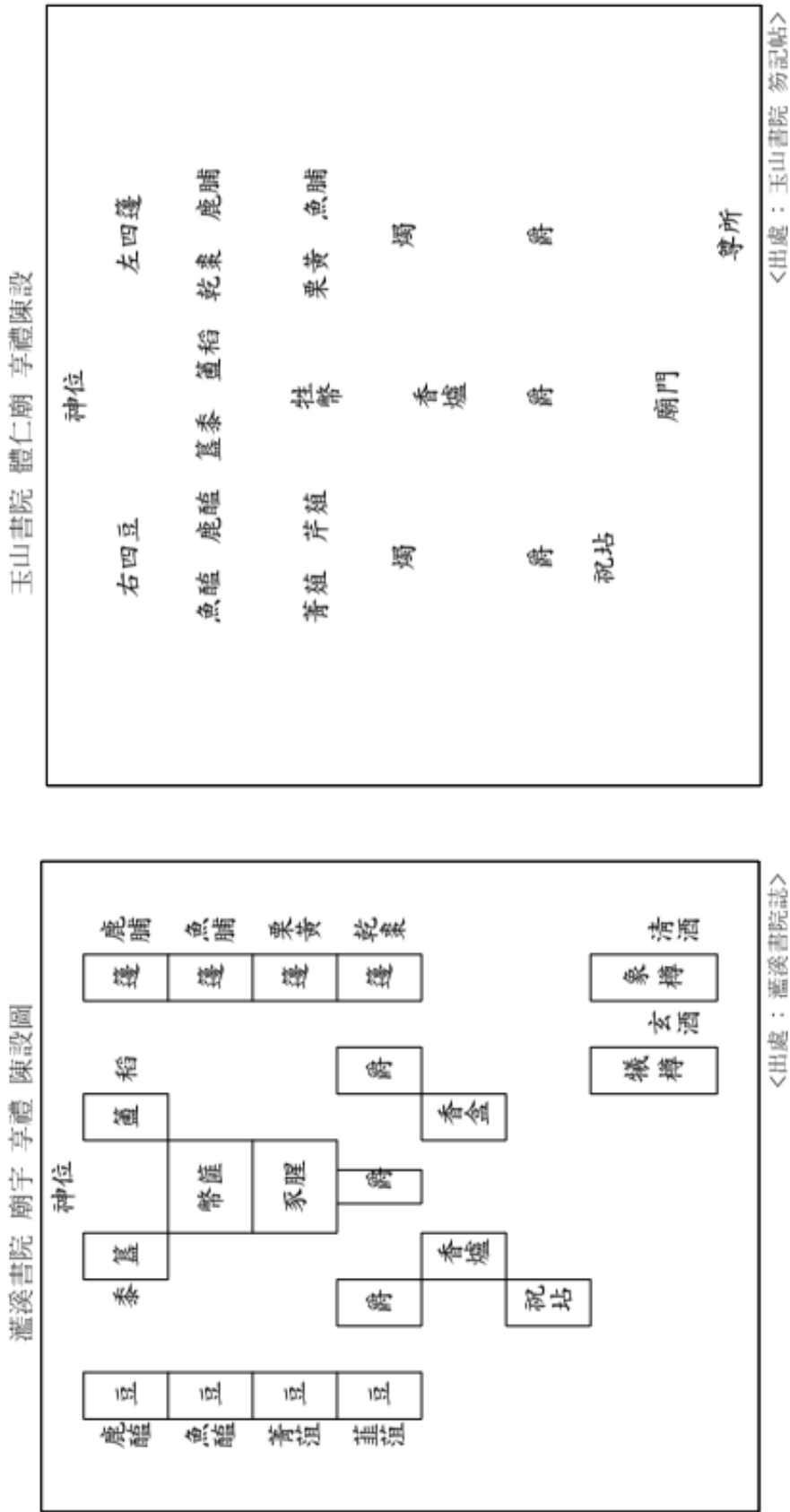
유림이 모이는 장소에서 지켜지는 의례나 범절은 선현을 존송(尊崇)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질서도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존경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정신과 가치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정신문화로 승화시켜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크게 기여토록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이 앞장서서 활동하시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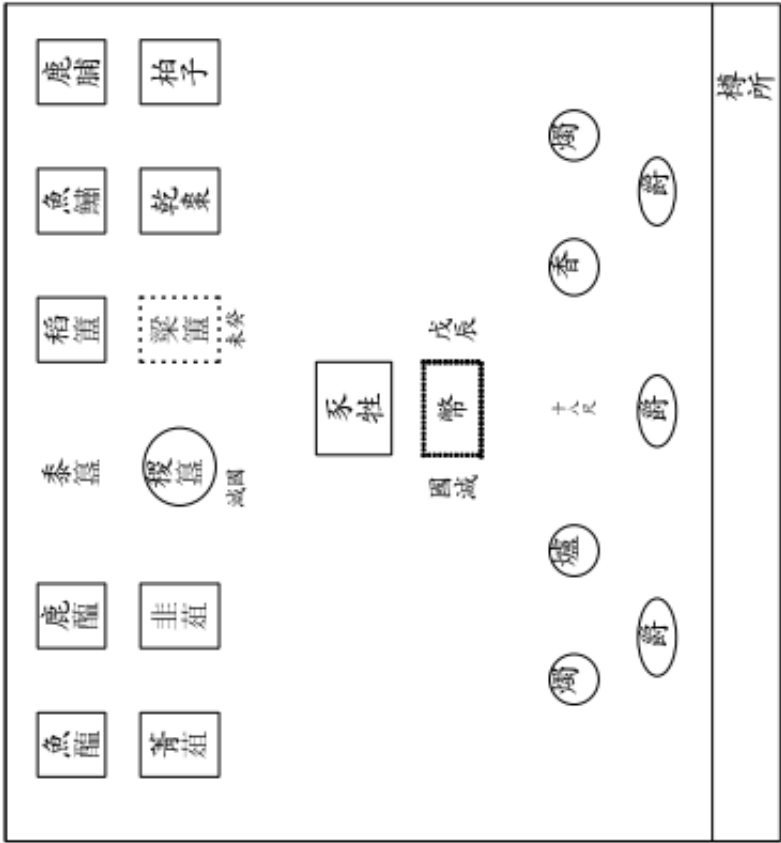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종가의 제례와 음식 7 . 8』 . 도서출판 월인.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향교·서원향사』 (2008년부터 조사). 2011~13년 간행]
- 도산서원. 『의절초(필사본)』 . 도산서원 고문서(한국국학진흥원 기탁)
- 도산서원.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 이동구 편. 『UNESCO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의절』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2013
- 이동구 편. 『도산서원 의절』 . 도산서원. 2015
- 김미영, 「서원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집』 9~35쪽
- 이동구, 「서원제향의 현대적 계승과 과제-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서원의 현대적 계승과 활용(국내서원학회 학술회의 자료집.2013.4.)』 55~63쪽
-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2020.12.)』 55~87쪽
-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2013.12.)』 185~202쪽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호 (2017.6.)』 321~351쪽
- 한재훈, 「한국 서원의 의례의 종류와 의의: 강학례, 향사례 그리고 향음주례」 『한국서원학보 11(2020.12.)』 27~51쪽

붙임 1. 各 書院陳設圖(소수서원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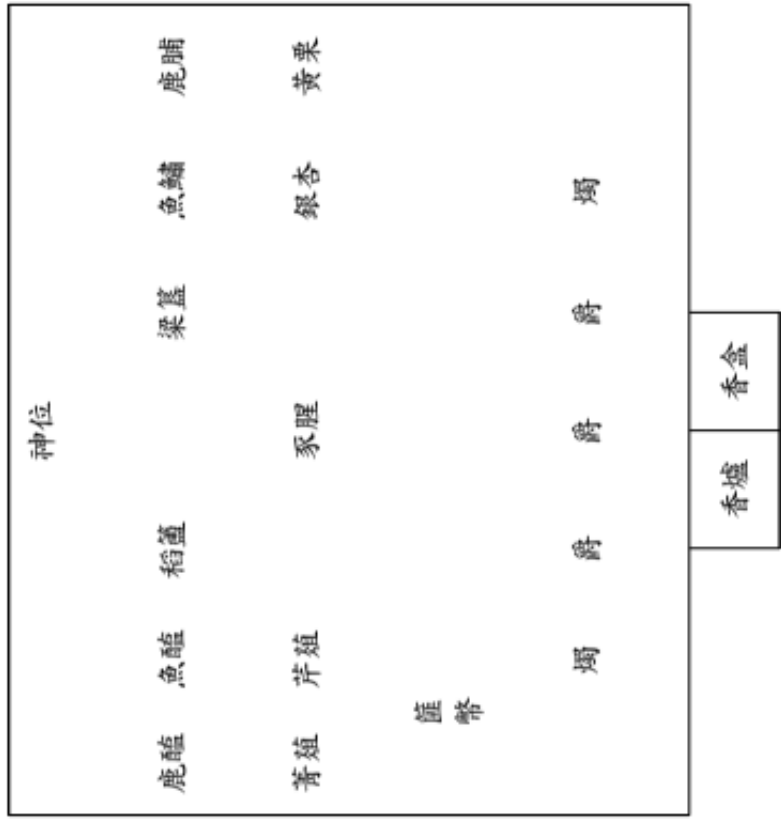


陶山書院 尙德祠享禮陳設圖(元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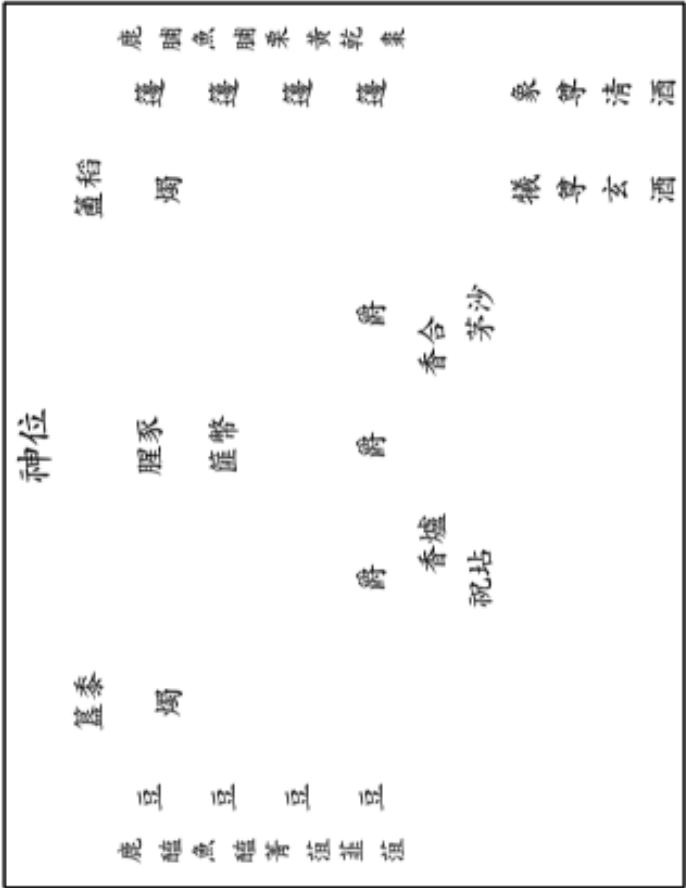
<陶山書院 笏記帖>

筆巖書院 祐東祠享禮陳設圖(元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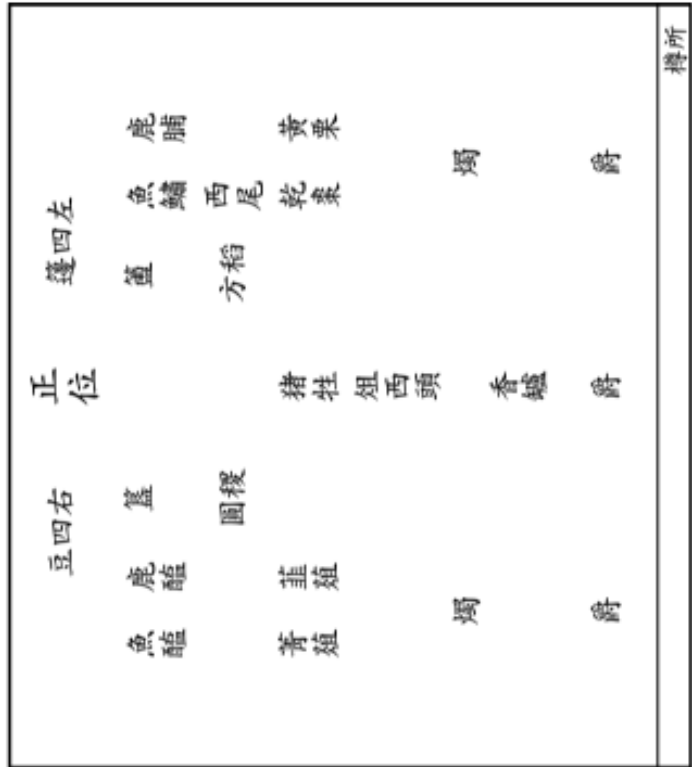
<筆巖書院誌>

道東書院 廟宇 享禮 陳設圖



<出處：道東書院 笏記帖>

屏山書院 尊德祠 享禮陳設圖(元位)



<出處：屏山書院 笏記帖>

붙임 2. 鄉校 釋奠 및 世界遺産 登載 書院 現行 享祀祭需(元位)

區分	簋		簋		籩								豆								腥		幣
	稻	粱	黍	稷	鹿脯	魚鱸	栗黃	乾棗	榛子	菱仁	芡仁	形鹽	鹿醢	魚醢	兔醢	醢醢	韭菹	筍菹	菁菹	芹菹	豕	羊	
鄉校																							苧
紹修	稻	-	黍	-	鹿脯	大口脯	乾棗	柏子	-	-	-	-	肉醢	生石魚	-	-	韭菹	-	菁菹	-	鷄	-	韓紙
菴溪	稻	-	黍	-	肉脯	明太脯	乾棗	黃栗	-	-	-	-	肉醢	生石魚	-	-	芹菹	-	菁菹	-	豕	-	帛
玉山	稻	-	黍	-	肉脯	大口脯	乾棗	黃栗	-	-	-	-	肉醢	鯉魚塊	-	-	芹菹	-	菁菹	-	豕	-	苧
陶山	稻	-	黍	-	肉脯	文魚脯	乾棗	柏子	-	-	-	-	肉醢	錢魚醢	-	-	芹菹	-	菁菹	-	豕	-	-
筆巖	稻	-	粱	-	肉脯	大口脯	銀杏	黃栗	-	-	-	-	肉醢	生石魚	-	-	芹菹	-	菁菹	-	豕	-	帛
道東	稻	-	粱	-	肉脯	文魚脯	乾棗	栗黃	-	-	-	-	肉醢	生石魚	-	-	韭菹	-	菁菹	-	豕	-	玉洋木
屏山	稻	-	粱	-	肉脯	大口脯	乾棗	黃栗	-	-	-	-	肉醢	生石魚	-	-	韭菹	-	菁菹	-	豕	-	-
武城	稻	-	黍	-	肉脯	乾石魚	乾棗	栗黃	-	-	-	形鹽	肉醢	生石魚	-	-	芹菹	-	菁菹	-	豕	-	帛
逖巖	稻	-	粱	-	肉脯	-	栗	銀杏	-	-	-	-	-	石首魚	-	-	韭菹	-	菁菹	-	豕	-	帛

[출처 : 『향교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2008년부터 조사). 2011~13년 간행]

붙임 3. 世界遺産 登載書院 現行 享祀儀節 比較

區分	奉行日時	服飾	廟宇入出	陳設	就位	迎神	初獻, 亞獻, 終獻	飲福受昨	辭神	望瘞
嶺南 白雲洞	3・9月上丁日			2보2제 4변4두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讀祝(主享)		受昨, 飲福	撤饌豆 後 獻官以下皆再拜	望瘞
	3・9月上丁日			2보2제 4변4두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讀祝(主享)	飲福, 受昨 獻官以下皆再拜	撤饌豆 後 在位者皆再拜	望瘞
紹修	3・9月上丁日	獻官 祝執: 笏 道袍 儒生: 儒巾 道袍	中入東出	1簋1簋 4籩4豆	執事再拜 獻官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樂正(道東曲) 終獻後獻官皆再拜	獻官以下皆再拜	撤饌豆 後 在位者皆再拜	望瘞 禮畢
麓溪	2・8月仲丁日	獻官 祝執: 笏 深衣 儒生: 儒巾 道袍	東入西出	1簋1簋 4籩4豆	開讀 請行事 初獻以下皆再拜	上香 三祭; 奠幣	奠幣, 再拜 讀祝(主享, 配享) 再拜	再拜後啐酒, 受昨 後再拜, 在位者 再拜(初獻不拜)	撤饌豆 後 初獻以下皆再拜	望瘞 禮畢 闕讀
玉山	2・8月仲丁日	獻官: 笏 黑道袍 祝執: 儒巾 黑道袍 儒生: 儒巾 道袍	東入西出	1簋1簋 4籩4豆	開讀後再拜 請行事 獻官及學生皆再拜	上香 奠幣	開讀篇蓋 讀祝 終獻後獻官皆再拜		撤饌豆 後 獻官及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闕讀
陶山	2・8月仲丁日	獻官: 紗帽 官服 祝執: 笏 道袍 儒生: 儒巾 道袍	中入東出	1簋1簋 4籩4豆	開讀開蓋後再拜 獻官再拜	上香	讀祝(主享)	獻官以下皆再拜	撤饌豆 後 在位者皆再拜	望瘞
筆巖	2・8月仲丁日	獻官: 儒巾, 青衿 儒生: 儒巾, 道袍	東入西出	1簋1簋 4籩4豆	再拜後開讀 啓讀篇蓋 請行事 獻官及學生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配享) 終獻後獻官皆再拜		撤饌豆 後 獻官及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闕讀
道東	2・8月仲丁日	獻官 祝執: 儒巾 黑道袍 儒生: 儒巾 道袍	東入東出	1簋1簋 4籩4豆	開讀後再拜 請行事 獻官以下皆再拜	上香 三祭, 讀祝(主享) 終獻後獻官皆再拜	奠幣	初獻官再拜 在位者再拜	撤饌豆 後 獻官皆再拜	望瘞 禮畢 闕讀
屏山	3・9月上丁日	初獻: 紗帽 紅官服 獻官: 紗帽 青官服 祝執: 笏 道袍 儒生: 儒巾 道袍	東入東出	1簋1簋 4籩4豆	再拜後開讀 開讀篇蓋 獻官皆再拜 請行事	上香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撤饌豆 後 在位者及 學生皆再拜 閉讀	望瘞 禮畢
武城	2・8月仲丁日	諸生: 儒巾 道袍	獻官: 中入 東出 執事: 東入 東出	1簋1簋 4籩4豆 形鹽	開讀啓讀篇蓋後再拜 請行事 三獻官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各位別讀) 終獻後獻官皆再拜	獻官皆再拜	撤饌豆 後 學生皆再拜	望瘞 禮畢 闕讀
遼巖	2・8月仲丁日	獻官: 祝執: 金冠祭服 儒生: 儒巾 深衣	東入東出	1簋1簋 3籩3豆	再拜後開讀 啓讀篇蓋 獻官及諸生皆再拜	上香 奠幣	讀祝(主享)	獻官皆再拜	撤饌豆 後 獻官及諸生皆再拜 闕讀	望瘞

[출처: 이동구 편, 『유네스코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2013년 발행.]

『향교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2008년부터 조사), 2011~13년 간행]

붙임 4. 書院과 家廟의 尊賢儀禮 比較 -陶山書院 尙德祠와 退溪宗宅 家廟를 中心으로-

區 分		書 院	家 廟
祠堂	起源	朝鮮 中宗32(1543)年 白雲洞書院(1549年賜額→紹修書院) 文成公廟 * 一般廟宇는 新羅 南海王3年 始祖廟 建立	高麗 恭讓王2(1390)年 設置令(趙浚의 上疏)
	目的	先賢崇慕・學德繼承 = 修養, ◎後學奉祀	報恩・追慕 = 孝, ◎子孫奉祀
	稱號	尙德祠, * 成均館學校 : 大成殿, 玉山 : 體仁廟, 蓋溪道東 : 無	無
	構造	三間椽집+內三門 * 規模는 모시는 聖賢의 數에 따라 差異	三間椽집+三門
	位置	前堂右側後廟 * 書院마다 若干의 差異(예, 회연서원, 소수서원)	前廳後廟
奉安	對象	先賢 * 餘他 書院 奉安可能(例 退溪先生 : 朝鮮時代 27書院, 現在 7書院) 主享 退陶先生, 從享 月川趙公, * 中上南向 中 主享, 東壁西向 從享	承嗣祖上(不遷位, 高祖, 曾祖, 祖, 父母) * 宗宅에만 奉安
	配置		左昭 右穆 (西上南向)
	祠板稱	位牌	神主
	規格	非規格	一定(규격 : 1尺2寸×3寸×1.2寸, 前後身分離, 陷中記載 등)
	文句	非規定(例, 陶山書院 : 退陶李先生, 道東書院 :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	規定(顯 ○○代祖考 官職府君 神主, 左側下段 ; 奉祀者)
行祀	時期	士林共議⇒ 主享 : 書院賜額 翌年(1576.2.), 從享 : 1614.11.9	禫祀時(退溪先生 1572.2)
	期限	永久(特別事由 外)	不遷位 永久, 奉仕者卒後 入廟時 5代祖父母遞遷 또는 祔埋
	行禮	享祀(奉 秋 仲月 中丁日), 正謁, 香謁, 隨時謁廟, * 書院別 定日	忌祭(亡日), 時祀, 薦新, 茶禮, 吉祀
	時刻	享祀 : 定日丑時, 正・香謁 ; 日出前 → 午時(2009년부터)	忌祭祀 ; 忌日丑時, 그 외 ; 낮.
	告由	祠版移安(廟宇修理 等), 重要院事時(文集刊行, 院舍修理 등)	祠版移安(廟宇修理 等), 重要家政事時(主婦新行, 子孫慶事 등)
	奉祀者	儒林(堂會決定 出望)	宗孫
	祝文	享祀 境遇 非規程(奉安時 制定) * 서원마다 문구가 같지 않음,	忌祭 境遇 規程化 ;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祭需	酒, 豕牲, 稻蘆, 黍蘆, 黍魚, 鹿脯, 鹿脯, 魚脯, 乾菜, 柏子, 韭菹, 菁菹, (14器) * 梁蘆, 稷蘆 ; 癸未國減, 幣 : 戊辰(1868)國減, * 정확한 사유 ?	酒, 果, 鮑, 醢, 炙, 湯, 菜, 飯, 麵, 羹, (25器) * 집집마다 다양(沖齋宗宅 : 44器)
	節次	享祀	忌祭祀
		開坐-陳設點祝-執事入就-獻官入就-三上香-皆再拜-初獻禮-讀祝-亞獻禮-終-分獻禮-飲福受昨-受禧再拜-撤饌豆-禮畢再拜-望塵-執事者再拜-罷坐-飲福禮	出主-開楨-參神禮-降神禮-進饌-初獻禮-讀祝-亞獻禮-終獻禮-佑食禮-辭神-罔楨-焚祝-還安-撤床-飲福

* 參考文獻 : 제사와 제례문화(한국국학진흥원 刊),韓國禮學叢稿(김시항, 푸른세상 刊), 종가의 제례와 음식 7(국립문화재연구소, 월인 刊), 예절개요(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부설 전통예절교육원 刊), 도산서원의의절(박약재 刊),성군관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5. 成均館과 鄕校 釋奠 및 世界遺産登載 書院 享祀時 獻官執事分定

區分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成均館	初獻	亞獻	終獻	分獻	執禮	大祝	典祀官	廟司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謁者	贊引						
鄕校	初獻	亞獻	終獻	分獻	陳設	祝官	執禮	謁者	贊引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濂器	學生	廟司	應唱	曹司		
紹修	初獻	亞獻	終獻		祝	贊者	謁者	贊引	司爵	奉香	奉香	奉爵	奠爵	學生	祭物有司	柔盛	司牲	都陳設	陳設		
楹溪	初獻	亞獻	終獻		大祝	執禮	贊引	判陳	掌牲	掌饌	司爵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學生					
玉山	初獻	亞獻	終獻		大祝	贊者	謁者	贊引	判陳設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掌饌	掌牲	濂洗位	學生	直日	公事員	曹司
陶山	初獻	亞獻	終獻	分獻	祝	贊者	謁者	贊引	司爵	奉香	奉爐	奉爵	奠爵								
筆巖	初獻	亞獻	終獻		陳設	執禮	祝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掌牲	典飼	洗爵	濂器	盥洗	贊引	謁者	學生	
道東	初獻	亞獻	終獻		掌儀	祝	贊者	贊唱	司爵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盥	司悅	掌饌					
屏山	初獻	亞獻	終獻		祝	陳設	贊者	謁者	贊引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供飯	掌饌	濂器	濂洗位			
			獻官		陳設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供飯	掌饌	濂器								
武城	初獻	亞獻	終獻		典祀	陳設	執禮	祝官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爵	贊引	贊唱	直日					
逕巖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大祝	謁者	陳設	司爵	奉香	奉爐	奉爵	奠爵	直日							

[출처 : 『향교·서원향사』 국립문화재연구소(2008년부터 조사). 2011~13년 간행]

붙임 6. 鄉校 및 世界遺産 登載 書院 現行 享祀 祝文(元位)

區分	頭文	本文	終文
鄉校	檀君紀元○○○○年歲次千支○○月千支朔 ○○日千支 後學 官職○○○敢昭告于 大聖至聖文宣王伏以維王	道冠百王 萬歲宗師	茲值上丁精禮是宜謹以牲幣醴齊 榮盛庶品 式陳明薦 以 先師 克國復聖公 卨國宗聖公 沂國述聖公 鄒國亞聖公 配享 以 宋朝四賢 我國十八賢 從享 尚 饗
紹修	維歲次 千支 某月千支朔某日千支 後學 某官 姓名 敢昭告于 先師 文成公晦軒安先生 伏以	尊信斯道 闡教吾東 功存學校 百世攸宗	茲值上丁 謹以 牲幣醴齊 榮盛庶品 式陳明薦 以 文貞公安氏 文敬公安氏 文敏公周氏 配 尚 饗
權溪	維歲次千支 月千支朔 日千支 後學○○○敢昭告于 文獻公一蠡鄭先生 惟 先生	學究性理 行隆孝義 蔚爲先覺 師式士類 禮宜稱祀 朝命優異 鄉邦興慕 建院祇事	茲惟仲春(秋) 恪修歲常 尚克右之 啓後不忘 以 介菴姜先生 文簡公桐溪鄭先生 配 尚 饗
玉山	維大年號歲次千支 某月千支朔 某日千支 後學某官 姓名 敢昭告于 先師 文元公晦齋先生 伏以	學問淵深 道德高厚 東國攸宗 歲享悠久	屬茲仲春(秋) 謹以 清酌牲幣 用伸常薦 尚 饗
陶山	維歲次千支 ○月千支朔 ○○日千支 後學○○○ 敢昭告于 先師退陶李先生 伏以	心傳孔孟 道紹閭洛 集成大東 斯文準極	謹以 豕牲黍盛 清酌庶品 式陳明薦 以 月川趙公 從享 尚 饗
筆巖	維歲次千支幾月千支朔幾日千支後學某官姓名 敢昭告于 文正公河西金先生	忠孝之全 道德之純 行藏遲速 終不緇磷 倫綱永賴 風流如昨	後學尊尚 敢薦牢爵 尚 饗
道東	維歲次某年某月朔幾日某支 後學○○○等 敢昭告于 贈右議政文敬公寒暄堂金先生 惟 公	夾持敬義 兩進明誠 精積力久 德立道成 聞揚絕學 百代儒宗 蜜過松楸 悅陪儀容	茲值仲春(秋) 陳薦馨香 用格時款 惠祐無疆 以 贈 領議政文穆公寒同鄭先生 配 尚 饗
屏山	維歲次 某年 某月某朔 某日 千支 後學 某官 姓名 敢昭告于 領議政文忠公西厓柳先生	學博而要 見微而實 莊敬之功 表裏如一	謹以 清酌豬牲 祇薦時事 以 贈吏曹參判修巖柳公從享 尚 饗
武城	維檀君紀元某年歲次千支某月千支朔某日千支 後學 某 敢昭告于 文昌侯孤雲崔先生 伏以	北學莫先 貞道俱東 倡我後蒙 萬古英風	茲值仲丁 精禮是宜 以 牲幣庶品 式陳明薦 以 不憂軒丁先生 訥庵宋先生 宣川申先生 熙齋鄭先生 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 配 尚 饗
逕巖	年號幾年歲次千支幾月千支朔幾日千支某官某 敢昭告于 文元公沙溪金先生 伏以	躬行純淑 蔚然成德 紹述前脩 啓迪來學	典刑未渝 尊尚彌篤 蓬豆有楚 庶其昭假 以 慎獨齋文敬公 同春堂文正宋公 尤庵文正宋公 尚 饗

[출처 : 이동구 편, 『유네스코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2013년]

부임 7. 陶山 · 遷巖書院 享祀 笏記比較

區分	安東 陶山書院	論山 遷巖書院
迎神禮	諸執事先詣外位 ○謁者引初獻官詣視陳設 ○執事開楨 ○開蓋 ○謁者及贊引各引獻官就外位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 再拜 ○鞠躬拜 ○興 ○拜 ○興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再 盥洗位 ○盥洗 ○各就位 ○謁者及贊引各引獻官入就拜位 ○再 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點視 獻官諸執事升降自東階 訖還出 威明獻官以下各服其服 ○諸執事及學生先就門外位 ○執禮謁者贊 引贊者先入階間再拜各就位執禮位於東序西向贊者二人分立於西階 下 ○贊引引學生入就位 ○謁者贊引引獻官俱就門外位 ○贊引引 祝及諸執事入就位再拜 ○鞠躬 ○拜興 ○平身 ○贊引引 祝及諸執事詣盥洗位之南北向立盥洗 ○訖就位就東階上向司 罇立於罇南北向盥洗位立於盥洗之東 ○奉爵奠爵詣爵洗位洗爵拭 爵訖置於箱奉詣罇所置罇上降復位 ○祝開楨出位版於座仍啓籩豆 簋簠四位同復位謁者贊引引獻官入就位 ○獻官及諸生皆再拜 ○鞠 躬 ○拜興 ○拜興 ○平身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盥洗 ○引詣神位前 ○跪 ○三上香 ○奠幣 ○俯伏興 ○引降復位 * 奠幣：戊辰國減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之南北向立盥洗 ○訖引詣 文元公神位前 跪 ○奉香奉爐升 ○奉香奉盒詣獻官之右 ○奉爐奉香爐詣獻官 之左 ○獻官三上香 ○奉香奉爐還置香盒香爐於故處降復位 ○祝 奉篚詣獻官之右授獻官獻官執幣以幣授祝祝自左受之奠于 神位 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次詣 -中略(配享位 奠幣禮)- 者引降復位 ○於是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尊所 ○引詣 神位前 ○跪 ○奠爵 ○俯 興 ○少退跪 ○讀祝 ○俯伏興 ○引降復位	○謁者引初獻官詣 文元公罇所西向立 ○奉爵奠爵升司罇舉罇酌酒 奉爵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 文元公神位前 ○奉爵奠爵隨 ○獻 官跪 ○奉爵詣獻官之右以爵授獻官獻官執爵奠爵以爵授奠爵奠爵 自左受之奠于 神位前西端第一站奉爵奠爵降復位 ○獻官俯伏興少 退 ○北向跪 ○祝進 神位之右執版東向跪讀之 ○訖祝還置祝版於 故處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 ○謁者引詣 -중략(배향위 헌작)- 奉爵奠爵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謁者引降復位
行亞獻禮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 ○盥洗 ○引詣尊所 ○引詣 神位前 ○跪○奠爵 ○俯伏興 ○引降復位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之南北向立盥洗 ○訖引詣 文元公罇所西向 立 ○奉爵奠爵升司罇舉罇酌酒 ○奉爵以爵受酒 ○贊引引獻官詣 文元公神位前 ○奉爵奠爵隨 ○獻官跪 ○奉爵詣獻官之右以爵授 獻官獻官執爵奠爵以爵授奠爵奠爵自左受之奠于 神位前第二站降 復位 ○獻官俯伏興平身 ○贊引引獻官詣 -중략(배향위 헌작)- ○贊引引降復位

行終獻禮	○贊引各引終獻官分獻官詣盥洗位 ○盥洗 ○各引詣尊所 ○各引詣神位前 ○跪 ○奠爵 ○俯 伏 興 ○引降復位 * 獻爵재배(獻官皆再拜) 省略 많은 서원시행, 특히 남계서원은 헌작직후 모우내 재배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之南北向立盥洗 ○訖引詣 文元公縛所西向立 ○奉爵奠爵升司縛舉畢酌酒 ○奉爵以爵受酒 ○贊引引獻官詣文元公神位前 ○奉爵奠爵隨 ○獻官跪 ○奉爵詣獻官之右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奠爵自左受之奠于 神位前第三站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 ○贊引引獻官詣 -중략(배향위 헌작)- ○贊引引降復位 獻爵재배(獻官皆再拜) 省略
飲福受昨	○執事詣尊所 ○以爵酌福酒 ○執事進減 神位前胙肉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北向跪 ○執事進獻官之左 ○以爵授獻官 ○獻官飲卒爵 ○執事受虛爵 ○執事北向以昨授獻官 ○獻官受昨 ○授執事 ○俯 伏 興 ○引降復位 ○再拜 ○獻官以下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獻官以下皆再拜 : 퇴계선생 예서 受禧拜 稱(소수서원홍기)	祝詣尊所以爵酌福酒置站上 ○持俎及刀進減正位前胙肉盛于俎上出置于尊所卓上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跪 ○祝詣尊所執爵詣獻官之左北向跪授獻官獻官飲卒爵 ○祝受爵反于站 ○取胙肉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受之降自東階出門置俎於門外 ○獻官俯伏興平身 ○謁者引降復位 ○獻官皆再拜 ○鞠躬 ○拜興 ○平身
辭神禮 (徹籩豆)	○祝入徹籩豆 ○在位者皆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祝入籩豆各一少移故處四位同還出 ○獻官及諸生皆再拜 ○鞠躬 ○拜興 ○平身 ○祝奉位版納于楨
望瘞	○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 ○北向立 ○祝取板降自西階 ○瘞坎 ○引降復位 ○謁者引初獻官贊引引獻官以次出 ○祝及諸執事皆復拜位 ○再拜 ○鞠躬拜 ○興 ○拜 ○興 ○平身 ○以次出	望瘞位先率役夫詣位開坎○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 ○祝以筴取正位祝版及配位幣俱復階間拜位再拜 ○瘞坎 ○謁者及贊引各引獻官以次出 ○祝及諸執事俱復階間拜位再拜 ○鞠躬 ○拜興 ○拜興 ○平身 ○以次出 ○諸生出 ○執禮謁者贊引贊者就階間再拜而出○齋任率執事者復入撤饌闔戶而退 ○禮畢

[출처 : 이동구 편, 『유네스코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의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협의회, 2013간행]

MEMO

MEMO

MEMO

MEMO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028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802호(삼선동4가 336)

T. 02-929-5440~2

F. 02-3673-5444

W. k-seowon.or.kr

